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및 정책적 함의

김남정 / 이종권 / 김용순 / 이의중 / 양진아 / 구아라 / 권오준 / 임민정

report

연구관리 2024-043호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및 정책적 함의

지 은 이 김남정, 이종권, 김용순, 이의중, 양진아, 구아라, 권오준, 임민정
발 행 인 김홍배
발 행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 소 (34047)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홈 페이지 <http://lhri.lh.or.kr>
전화 번호 042-866-8665
이 메 일 knj3315@lh.or.kr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검토한 기초자료로서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및 정책적 함의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al Estate Market Issues

김남정 • 이종권 • 김용순 • 이의중 • 양진아 • 구아라 • 권오준 • 임민정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진〉

이종권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의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양진아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구아라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임

권오준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임

임민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임

〈연구심의위원〉

장인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심의위원장)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전세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상 LH 홍보실 부장

박현호 LH 홍보실 차장

김용민 LH 판매기획처 차장

권순영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자문위원〉

김선재 (주)보성종합건설 대표

김영화 (주)대광건설산업 대표

류재숙 국민은행 유성지점장

신상필 금빛호수공인중개 대표

이명훈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승복 대한리더십센터 원장

최정덕 (주)보보 인테리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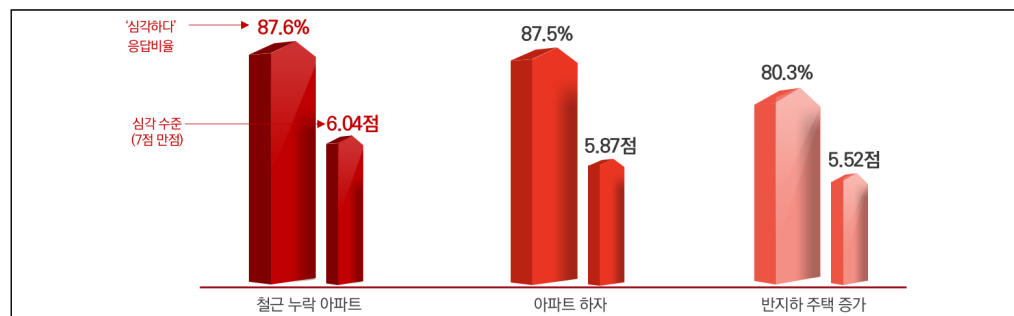
■ 연구 배경 및 목적

2023년은 아파트 하자, 건설자재가격 폭등, 전·월세 사기, 민간건설사 부도 등 주택품질과 부동산 거래, 건설시장 등 부동산시장 전 분야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이슈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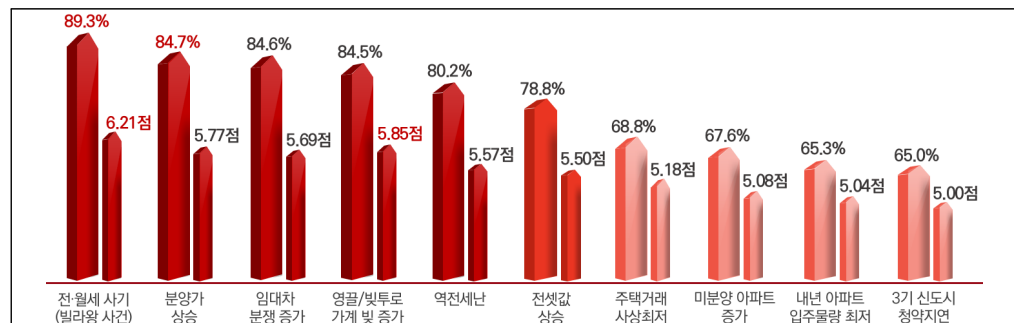
LH는 국민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부동산시장 이슈의 지속적 관찰과 국민 여론 파악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 정책·사업 추진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2023년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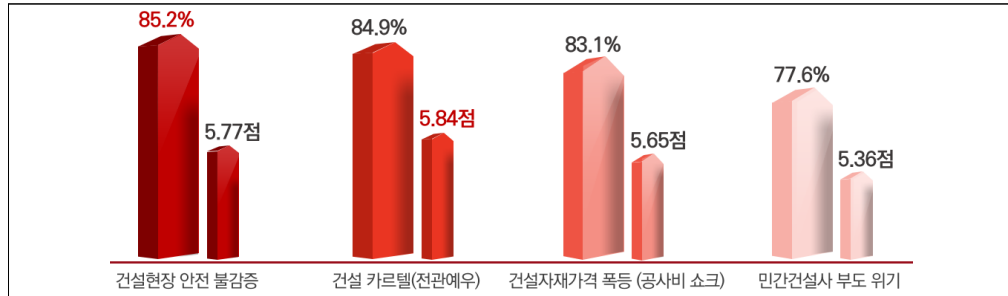
-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철근 누락 아파트’, ‘아파트 하자’, ‘반지하 주택 증가’ 관련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부동산시장과 관련하여 전·월세 사기와 이와 관련된 임대차 분쟁, 건설자재값 상승 여파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주요 이슈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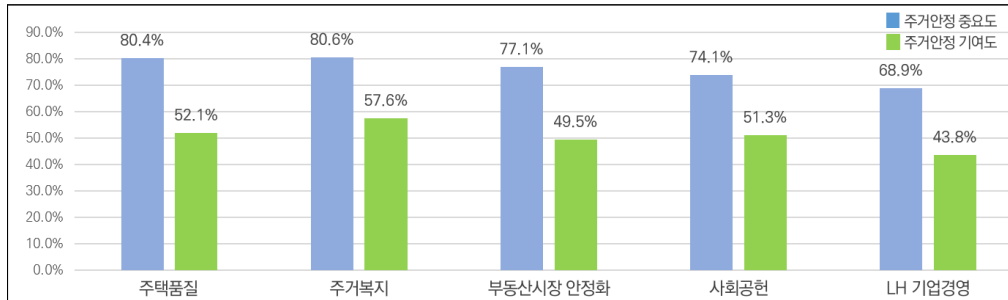
- 건설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건설 카르텔’, ‘자재비 폭등’, ‘민간건설사 부도’와 관련된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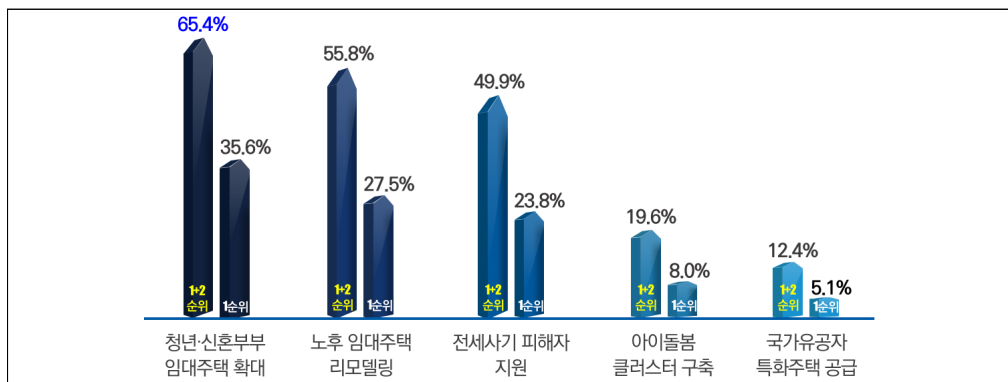
■ 2023년 LH 추진 사업에 대한 국민 선호도 분석

LH는 주택품질,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사회공헌, 기업경영 등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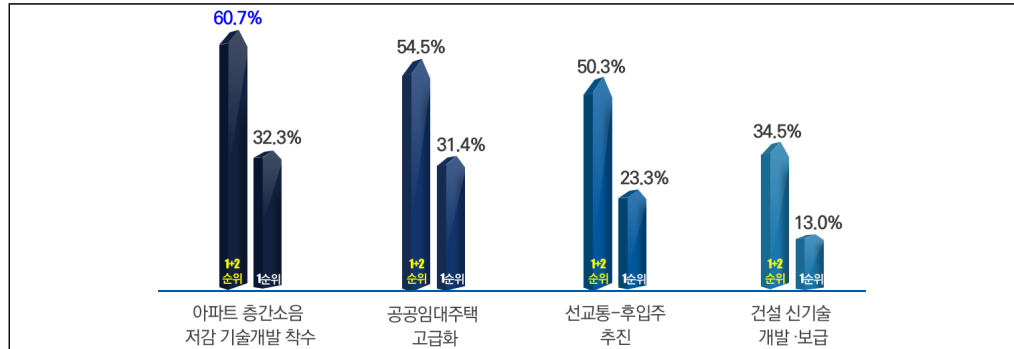
- 주거안정을 위한 선호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LH 언론보도 중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주거복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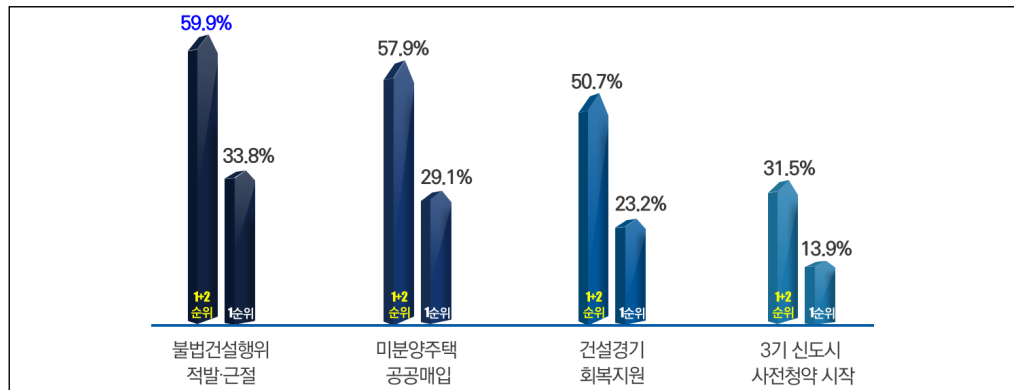
- 주거복지 분야 중 LH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청년·신혼 부부 임대주택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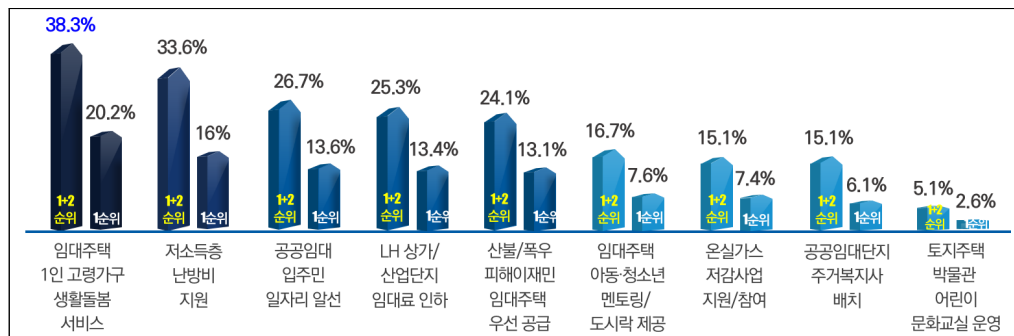
- 주택품질과 관련하여 LH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선호도는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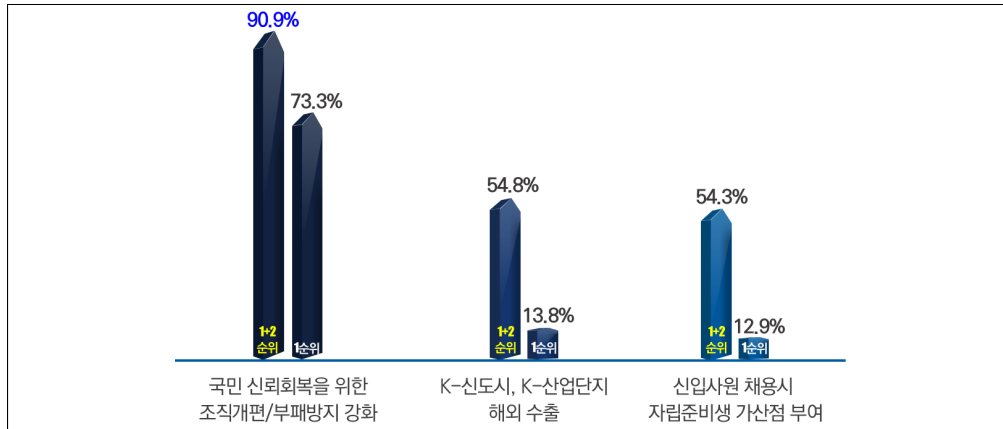
-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하여 LH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불법 건설행위 적발·근절’,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순으로 나타남.



- LH가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 중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 서비스’가 향후에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로 꼽힘.



- LH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개편, 부패방지 강화’가 꼽힘.



■ 시사점 및 향후 LH 역할

-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주택 공급과 거래에 대한 관심 보다는 현재 주택의 상태와 거주 여건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난 부동산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화에 맞춰져 있었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기본요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정 및 주택품질 관리, 주택금융관리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
- LH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주거복지와 주택품질 관련 사업으로 나타남. 다만, 주거안정 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실제 기여도 간의 격차가 존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실정
 - 주거안정 중요도와 주거안정 기여도 간의 인식 차이는 국민이 생각하는 정책·사업과 LH 언론보도가 상호 매칭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 기대와 실제 LH 추진사업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주거복지’와 ‘주택품질’ 관련 전략적 홍보를 통해 LH 역할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부동산시장, LH 사업, 주거불평등, 국민 인식도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제2장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분석	5
1.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 특징	5
2.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관련 이슈	7
3. 부동산시장 관련 이슈	11
4. 건설사 관련 이슈	23
5. 시사점	28
제3장 2023년도 언론보도로 전달된 LH 사업에 대한 국민 선호도 분석	29
1. 2023년도 LH 추진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특징	29
2. 주택품질 관련 사업	32
3. 주거복지 관련 사업	37
4.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련 사업	43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48
6. 기업경영 관련 사업	58
7. 시사점	62
제4장 국민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분석	63
1. 조사개요	63
2.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64
3. 주거불평등 원인 및 심각성, 10년 후 기대	65
4. 시사점	68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5
【부록】 설문조사 결과(통계표 및 질문지)	77

표차례 List of Tables

[표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
[표2]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 및 관련 주요 기사 헤드라인	6
[표3] 2023년도 LH 추진 사업 및 관련 주요 뉴스 헤드라인	30
[표4]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조사개요	63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1]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관련 이슈별 심각성	7
[그림2]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8
[그림3]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9
[그림4] 반지하 주택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0
[그림5] 부동산시장 관련 이슈별 심각성	11
[그림6] 전·월세 사기 사건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2
[그림7] 분양가 상승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4
[그림8] 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5
[그림9] 영끌·빚투로 가게 빚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6
[그림10] 역전세난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7
[그림11] 전세값 상승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8
[그림12] 주택거래 사상 최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9
[그림13]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0
[그림14]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최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1
[그림15] 3기 신도시 청약 지연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2
[그림16] 건설사 관련 이슈별 심각성	23
[그림17]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4
[그림18] 건설 카르텔·전관예우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5
[그림19] 건설자재가격 폭등·공사비 쇼크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6
[그림20]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27
[그림21] LH 언론보도 기사 유형별 주거안정에 대한 중요도 및 기여도	30
[그림22] 주택품질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32
[그림23]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33
[그림24] 공공임대주택 고급화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34
[그림25] 선교통-후입주 추진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35

[그림26]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36
[그림27] 주거복지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37
[그림28]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38
[그림29]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39
[그림3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0
[그림31]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1
[그림32]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2
[그림33]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43
[그림34] 불법건설행위 적발·근절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4
[그림35] 미분양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5
[그림36] 건설경기 회복지원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6
[그림37]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7
[그림38] 사회공헌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48
[그림39]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49
[그림40]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0
[그림41]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1
[그림42]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2
[그림43] 산불·폭우 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3
[그림44] 임대주택 아동·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4
[그림45]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여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5
[그림46] 공공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6
[그림47] 토지주택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7
[그림48] 기업경영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58
[그림49]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개편·부패방지 강화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59
[그림50] K-신도시·K-산업단지 해외수출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60
[그림51]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61
[그림52] LH 관련 언론보도 기사 유형별 주거안정에 대한 중요도와 기여도 조사결과 차이	62
[그림53] 과거, 현재, 미래의 주거불평등 인식 수준	64
[그림54] 주거불평등 심화 원인	65
[그림55]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	65
[그림56]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66

[그림57]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66
[그림58]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장 경험	67
[그림59]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장 경험	67
[그림60] 10년 내 타인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기대감 및 그 이유	68
[그림61] 주거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선호 정책	6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 소득불평등 및 저출생·고령화 심화, 부동산시장 침체기 따른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과 사업모델 발굴,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강화 등 LH 역할 변화·강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 증가
- LH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모색 및 국민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최근 발생한 다양한 부동산시장 이슈에 대하여 그 유형과 강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서 LH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 주거불평등과 같은 현재 국민의 주거여건에 대한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LH 경영의사결정에 반영 필요

■ 부동산시장 및 LH 추진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분석

- 2023년은 아파트 하자, 건설자재가격 폭등, 전·월세 사기, 민간건설사 부도 등 주택품질과 부동산 거래, 건설시장 등 부동산시장 전 분야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이슈 발생
- LH는 국민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필요. 동시에 최근 LH와 관련된 부정적 평판은 LH가 추진하는 사업 및 공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 국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및 홍보 강화 등의 국민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한 시점
- 부동산시장 이슈 및 언론에 보도된 LH 사업들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LH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

-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마련 금융환경 강화로 인해 저소득층·중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 악화(최근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로 이어져 소득 빈곤 초래)

-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선진국형 경제구조 진입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 및 주거불평등 더욱 심화 예상
- 불평등이 심화되면 시민들은 더 이상 동일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평등한 시민성이라는 자치의 토대를 침식(Michael Sandel, 1996)
- 상대적 격차의 증가는 사회구성원 간 지위경쟁을 심화시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의 병리현상을 심화(Kawachi & Kennedy, 1999)
- 국민 주거불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1. 2. 연구의 목적

■ 국민 여론을 고려한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개발 및 LH 의사결정과정 제고

- 최근 1년(2023년) 동안 발생한 부동산시장 이슈별 강도 분석과 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국민 선호도를 반영한 부동산 정책 및 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부동산시장 이슈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국민 여론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 정책·사업 추진여건 마련

■ LH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언론 보도자료 생산

- 국민의 언론접촉 피로도를 고려하여 국민 선호도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사업발굴 및 홍보계획 수립 필요. 동시에 LH에 대한 부정적 기업이미지 희석 및 LH 사업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 관심도·선호도 조사결과를 LH 경영계획에 반영 필요
- LH 사업에 대한 국민평가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영계획 수립 및 국민 신뢰도 회복 추진

■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파악

- 일반적으로 심리지수는 실물경제 및 정책으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인식, 태도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 그러나 국민 주거생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통계가 부재하여 관련 조사 필요성 제기
- 주거불평등 인식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주거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주거안정·주거복지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내용적 범위

-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동산시장 관련 부정적 기사 및 긍정적 LH 언론보도 기사로 한정
-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는 부정적 이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심각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 2023년도 LH 언론보도 기사(언론에 보도된 LH 추진사업)는 긍정적 기사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주거안정 중요도 및 기여도, 중점추진 필요사업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시사점 도출
- 주거불평등 인식수준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 수도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을 통해 2023년 11월 22일~12월 8일 기간 동안 조사
- 본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pm 3.1\%p$ (95% 신뢰수준) 수준

[표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전체		1,000명	100.0%
연령별	청년층	242	24.2
	중·장년층	698	69.8
	노년층	60	6.0
지역별	서울	365	36.5
	인천	116	11.6
	경기	519	51.9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271	27.1
	다인 가구	729	72.9
주거 점유 형태별	자가	500	50.0
	임차	500	50.0
주택 유형별	아파트	500	50.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4.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5.9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0.7
	2분위(268~402만원)	128	12.8
	3분위(403~588만원)	291	29.1
	4분위(589~1,042만원)	313	31.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6.1

■ 부동산시장 이슈 및 LH 추진 사업의 유형화 과정

- 2023년 신문과 방송의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된 부동산시장 이슈 및 LH 추진사업에 대하여 노출 빈도 및 관련 주제의 반복성에 기초하여 키워드 도출
- 도출된 키워드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시 및 향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반영을 고려하여 LH 사업조직 및 정책 담당 조직을 고려하여 범주화

2.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시장 이슈’, ‘LH 추진 사업’, ‘주거불평등’의 3개 부문으로 구성

Part 1.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분석	
부동산시장 이슈	부동산시장 이슈 특징
	· 주택품질·주거환경, 부동산시장, 건설사 등 3개 유형화, 유형별 이슈 특징
	부동산시장 이슈 유형별 국민 인식도 분석
	· 부동산시장 이슈별 문제의 심각성 분석
	시사점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Part 2. 2023년도 언론보도로 전달된 LH 사업에 대한 국민 선호도 분석	
LH 추진 사업	LH 추진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특징
	· 주택품질,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사회공헌, 기업경영 등 5개 유형화
	LH 추진 사업별 국민 선호도 분석
	·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된 LH 추진사업에 대한 중요도(향후 중점추진 필요사업) 분석
	시사점
	· LH 기업이미지 회복 및 국민 수요 맞춤형 사업발굴을 위한 제언
+	
Part 3. 국민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분석	
주거불평등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 5년 전·현재·5년 후 주거불평등 수준
	주거불평등 원인 및 심각성, 10년 후 기대 분석
	· 주거불평등 심화 원인 분석
	· 상대적 주거생활 수준과 주거문제에 따른 심리적 상태·감정 분석
	· 10년 후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 분석
	시사점
	· 주거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제2장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별 국민 인식도 분석

1.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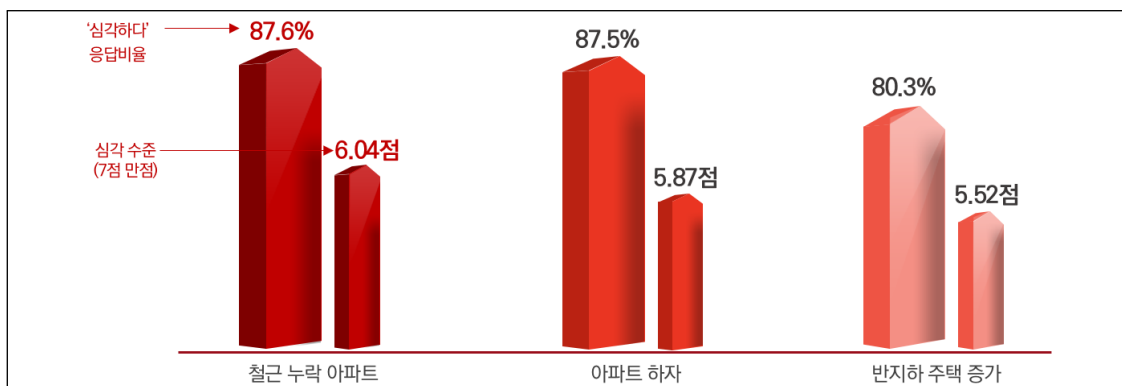
-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부동산시장, 건설사와 관련된 다수의 이슈가 집중적으로 발생
 -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주택의 ‘하자’, ‘불량’, ‘위험’과 관련된 이슈 발생
 - 부동산시장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 문제가 이슈가 되며, 반대로 침체기에는 주택품질과 하자에 대한 이슈가 주류를 이루는 특징이 있음.
 - 2023년도에는 꾸준히 아파트 하자에 대한 언론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철근 누락 아파트 이슈와 함께 주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음.
 - 2022년에 발생된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를 계기로 반지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특히, 장마철에 반지하 주택의 침수가 이슈가 되어 옴.
 - 부동산시장 부문에서는 ‘미분양’, ‘사기’, ‘역전세’, ‘분쟁’, ‘가계 빚’, ‘임주물량’과 관련된 이슈 발생
 - 2023년도는 대출금리 인상과 건설자재 가격 폭등 여파로 주택 거래, 대출금 상환, 미분양 아파트 증가, 주택공급 축소 등의 이슈가 발생함
 - 특히, 서민 피해가 컸던 전·월세 사기(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9813건이 발생했고, 건당 평균 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함. HUG 등 정부·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금은 4조 5000억 원에 이르며, 6월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
 - 건설사 부문에서는 ‘부도’, ‘안전 불감증’, ‘공사비’, ‘건설 카르텔’과 관련된 이슈 발생
 -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건설사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중소건설사에서 다수의 부도사태가 발생함.
 - 또한, 철근 누락 아파트 여파로 건설 시공과 감리, 계약 전 분야에 대한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었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문제를 포함하여 건설 카르텔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이 마련됨.

[표2]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 및 관련 주요 기사 헤드라인

이슈 유형	키워드	주요 기사 헤드라인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아파트 하자	‘그냥 사세요’ 논란에 강수 둔 원희룡 “민간임대, 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천장 곰팡이에 누수까지...입주 앞둔 사천 한 아파트 하자 ‘붓물’. 아파트 하자접수 ‘균열·기능불량’ 최다
	반지하 주택 증가	작년 ‘최악 폭우’에도... 서울 반지하 300곳 늘어났다.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이 주민공간으로 변신...시흥 ‘한울타’. 폭우 참사에도 ‘반지하’ 허가...서울은 무정부 상태
	철근 누락 아파트	‘무량판 아파트’는 죄가 없다. ‘철근 누락’ 검단신도시 아파트 10곳 재조사 한다
부동산 시장	미분양 아파트 증가	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준공 후 미분양’ 34%. 미분양 골머리, 입주지연에 또 고심. 미분양 공포... 지난달 아파트 공급 80% 급감. 미분양 199% 급증... ‘건설’ 손 놓은 건설사들
	전·월세 사기(빌라왕)	전국 전세사기 15조원 추산... “서울 아파트 1만5000가구 사라진 셈”. ‘깡통전세’ 위험가구 1년 새 3배 급증.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구제 못받아... 대책 절실. 피해자 벌써 1만명 넘었다 전세사기 70%가 사회초년생
	역전세난	전셋값 10% 더 하락 땀...아파트 40%, 보증금 못 돌려줄 위험. “수익원 깎아주고 재계약했어요” 甲乙바뀐 전세... 집주인 비명. 전세금 미반환 현실로... 임차 권등기명령 신청 급증. 못 받은 전세금 벌써 2조원 세입자 10명 1명 ‘눈물’
	임대차분쟁 증가	임대차 분쟁 폭증...집주인-세입자 극한대립. “전세금 안 주면 소송” “지연이자 주면 되지” 역전세 갈등 격화전세가 반등에도 보증금 갈등 지속. 주택보증금 분쟁 열에 둘만 해결... 조정제도 있으나마나
	주택거래 사상 최저	부동산 거래회전을 ‘역대 최저’. 집값 하락세·고금리... 생애 첫 구매자 역대 최저. “매물 쌓였는데 집 보려 안와요”... 서울도 ‘거래절벽’ 위기. 고금리·대출규제 강화에 관망세 짙어져...다시 거래 절벽 오나
	3기 신도시 청약 지연	3기신도시 2년 지연... 사전청약자 속탄다. 갈팡질팡 ‘3기 신도시’...보상 지연·사업 주체 교체 검토에 사업 취소까지
	분양가 상승	미분양 쌓이는데...분양가 왜 치솟나. 소형 아파트 분양가 22% 상승. 분양가 6개월째 상승... 3.3㎡당 1653만원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최저	서울에 들어갈 집 없어진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 1만가구 미만
	영끌·빚투로 가계 빚 증가	1000조 넘는 가계부채 ‘빨간불’. ‘50년 만기 주담대’ 이달에만 2조 넘게 늘었다. 규제 강화에도... 주담대 한달새 2.8조 증가. ‘영끌족 아파트’ 쏟아지나... 임의 경매 물건 속출
	전세값 상승	역전세 걱정했더니... 매물 부족에 다시 뛰는 전셋값. 역전세 우려 줄자... 전세 선호 커졌다. 고금리에 내집마련 대신 계약 연장... 전셋값 15주째 상승세
건설사	민간건설사 부도(위기)	하루 13곳씩 문닫는 건설사... 지방 아파트 현장 공사 중단 속출. 문 닫은 건설사 올해 405곳... 17년 만에 최다. 건설사 줄도산... 분양보증 사고 10년래 최다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건설현장 서류작업 ‘몸살’...안전관리 플랫폼 만든다. 여전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3분기에만 65명 사망
	건설자재가격 폭등 (공사비 쇼크)	30년 만의 시멘트 파동... 건설현장 멈췄다. t당 61만원 하던 철근 값 100만원 넘어, 주택 착공·인허가 급감. “자재가격 또 뛴까”... 건설업계 ‘워프레이션’ 우려에 촉각
	건설 카르텔·전관예우	원가 공개로 이권 카르텔이 장난 칠 자리 없애야. 원희룡 “공공택지 전매, 계열사 끼리는 불가”. 국토부발 나 새 혁신안 임박...전관예우 차단 등 부실공사 해법 내놓을 듯

2.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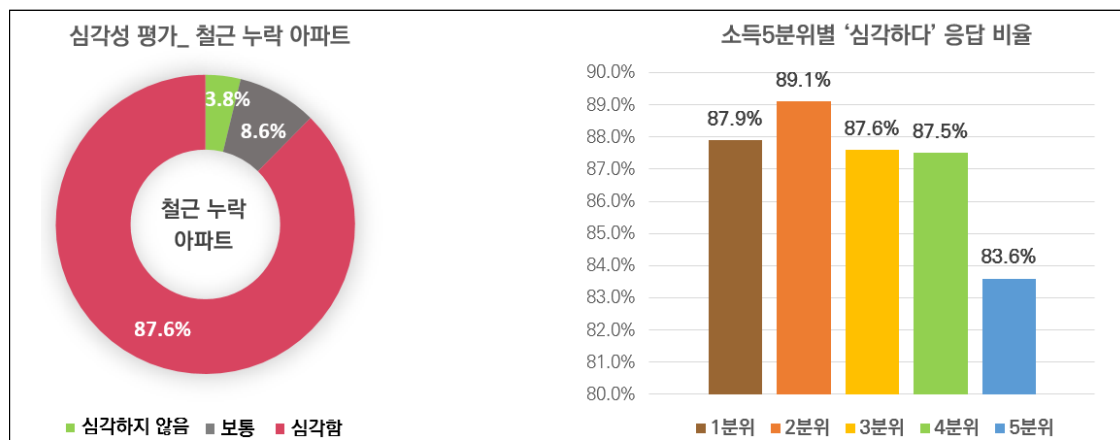
- ‘철근 누락 아파트’, ‘아파트 하자’, ‘반지하 주택 증가’와 관련된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
 - ‘철근 누락 아파트’가 주택품질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이슈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87.6%(복수응답)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했고, 심각성 수준 역시 6.04점(7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파트 하자’에 대한 이슈는 ‘철근 누락 아파트’ 이슈에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심각하다’ 응답비율이 87.5%이며, 심각성 수준은 5.87점으로 조사됨.
 - 반면, ‘반지하 주택 증가’ 이슈는 ‘철근 누락 아파트’ 및 ‘아파트 하자’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2023년도 한 해 동안 발생된 주요 부동산 이슈 중 10위 이내에 해당되는 수준임.
-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른 분야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심각성 수준에 해당
 - 아파트의 거주가구 비중과 주택 인·허가 물량 및 주택거래량이 타 주택유형에 비해 가장 많고, 대한민국 대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택 품질에 대한 이슈에 국민 관심이 집중됨.
 - 특히,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에서 ‘안전’,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했고,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됨.



[그림1]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 관련 이슈별 심각성

2.1. 철근 누락 아파트

-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이슈는 최근 10년간 다수 발생되어 옴.
-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은 설계와 시공 분리에 따른 현장 전문성 저하, 관리·감독 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감리업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은 2013년 인천 청라지구 D사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이후 10년 만이며, 건설카르텔 문제로 확산되어 시공 및 감리, 계약 등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됨.



[그림2]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무량판 아파트’는 죄가 없다_한국경제, 2023.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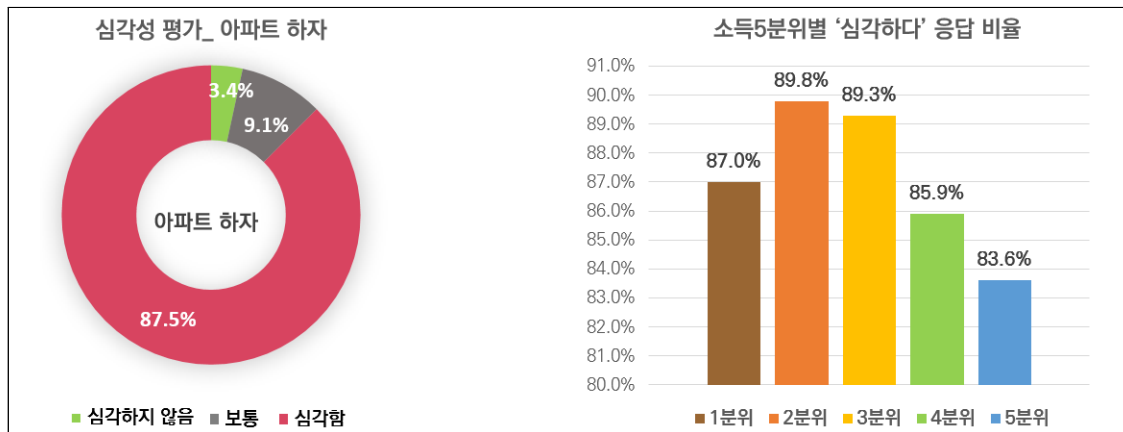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논란이 확산한 이달 초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늘었다. 지난달 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LH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뒤이어 철근 누락 단지는 총 20개로 5곳이 추가됐다. LH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정부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에게 주거 불안을 조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철근 누락’ 검단신도시 아파트 10곳 재조사 한다_충부일보, 2023.10.17.

인천시가 지난 5월 지역 내 91곳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철근 누락은 파악조차 못한 채 점검이 마무리되면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민간아파트단지 10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검단AA21 블록 아파트 벽체 철근 누락의 원인이 설계 오류로 확인됨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 오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2. 아파트 하자

-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음.
- 입주인 커뮤니티 활성화, 하자 전문 법률사무소 증가 등에 따라 하자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3]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그냥 사세요’ 논란에 강수 둔 원희룡 “민간임대, 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_서울경제, 2023.01.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품질 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강화 하겠다”며, “사전 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천장 곰팡이에 누수까지...입주 앞둔 사천 한 아파트 하자 ‘봇물’_연합뉴스, 2023.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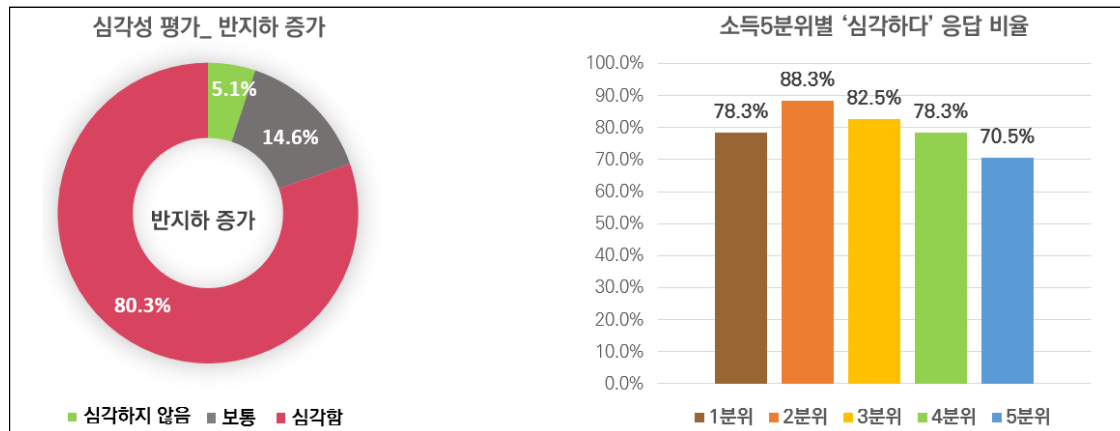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경남 사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하자 사례를 살펴보면 천장에 곰팡이가 피거나 신발장이 너무 작고 벽면이 찢어졌으며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이와 같은 하자를 발견해 안전이 우려된다며 사천시에 사용승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접수 ‘균열·기능불량’ 최다_한국경제, 2023.09.22.

최근 5년간 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택 하자 유형 중 ‘균열’과 ‘기능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례가 증가해 빠른 심사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수천 건의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묶여 있는 분쟁조정 신청 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2. 3. 반지하 주택 증가

- 전국에 3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실정이며,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대책으로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신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LH와 SH 등에 반지하 주택 매입을 주문함.



[그림4] 반지하 주택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작년 '최악폭우'에도... 서울 반지하 300곳 늘어났다_헤럴드경제, 2023.07.05.

지난해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건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퇴출' 대책을 내놔지만, 실제로 작년과 올해에만 300곳에 반지하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참사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이 주민공간으로 변신...시흥 ‘한울터’_연합뉴스, 2023.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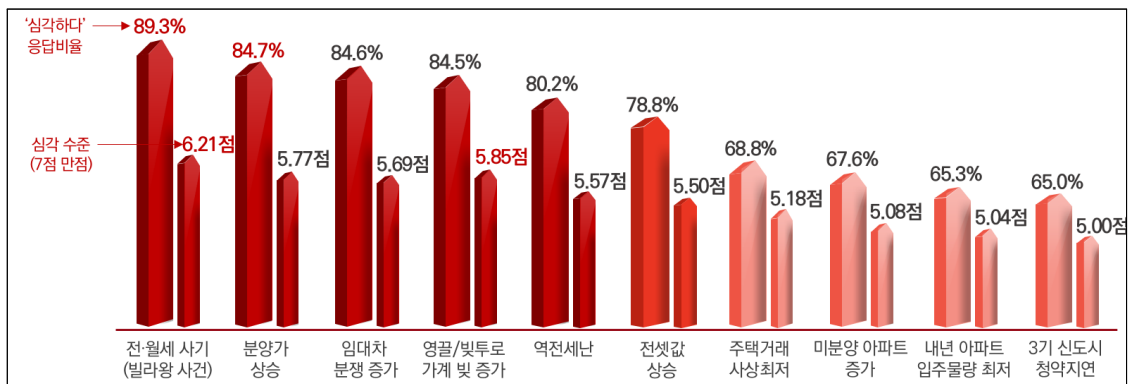
경기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주택을 주민커뮤니티시설로 바꾼 ‘한울터’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활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울터는 주거 안전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비거주로 전환하고 빈 주택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탈바꿈해 주민 안전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하는 것이다.

“폭우 참사에도 ‘반지하’ 허가...서울은 무정부 상태”_오마이뉴스, 2023.08.05.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반지하 건축을 허가하고, 오히려 공공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에 반지하 가구가 23만이다. 그중 지상으로 거주지를 옮긴 가구는 2700가구밖에 안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1% 밖에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 부동산시장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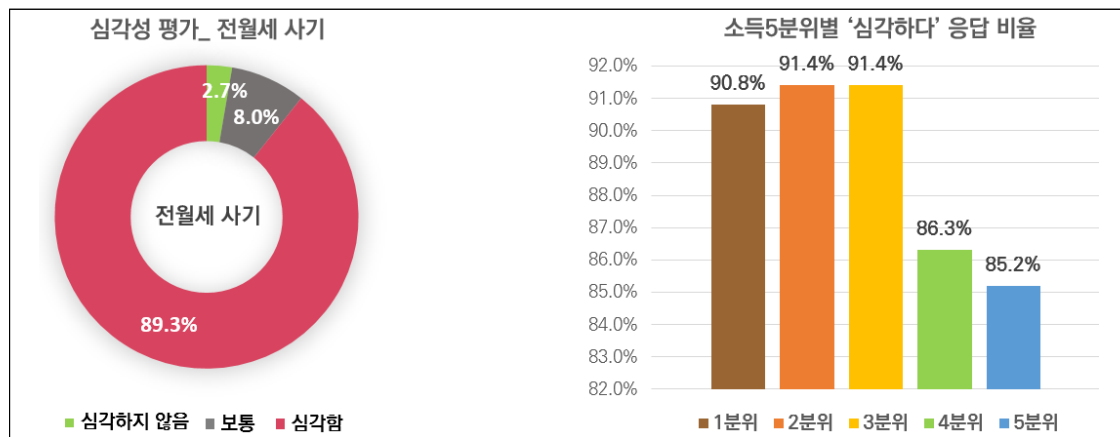
- 2023년은 전·월세 사기(일명 빌라왕 사건)와 역전세난, 이로 인한 임대차 분쟁으로 기억되는 한 해임.
 - 문제의 심각 수준이 높은 이슈들 대부분이 금융, 가계와 관련된 이슈들로 나타남.
 - 이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인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깡통주택 문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반대로 거래량 감소 및 주택구입능력 하락에 따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심각수준이 낮게 나타남.
- 실제 부동산시장 이슈 중 주택금융 관련 이슈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직접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으로 이해됨.
 - 10명 중 9명이 ‘전·월세 사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성 수준 역시 6.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2023년도 부동산 관련 모든 이슈 중 가장 심각한 수준에 해당됨.
 - 다음으로 ‘분양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84.7%로 높았고, ‘영끌·빚투로 인한 가계 빚 증가’는 심각성 수준이 5.85점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외에도 건설자재값 상승 여파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심각성이 높게 나타났고,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빚 증가, 전·월세 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선호에 따른 아파트 전세값 상승 등의 문제에서 심각성 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림5] 부동산시장 관련 이슈별 심각성

3.1. 전·월세 사기(빌라왕) 사건

- 2022년 하반기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이후 약 1만3천건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0% 이상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함.
- 전·월세 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 청년층이 73%로 최대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함.



[그림6] 전·월세 사기 사건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전국 전세사기 15조원 추산… “서울 아파트 1만5000가구 사라진 셈”_국민일보, 2023.01.27.

전국 곳곳에서 ‘빌라왕’들이 벌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체 피해 규모도 추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세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와 HUG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추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강통전세’ 위험가구 1년 새 3배 급증_중앙일보, 2023.05.27.

각지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강통전세’의 위험 가구가 급증했다.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도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최근 매매 시세가 기존 세입자(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2000만원씩 낮아져 있었다. 문제는 강통전세·역전세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막겠다면 보증보험 강화… 되레 ‘전세 별따기’ 됐다_조선일보, 2023.07.25.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셋집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빌라·오피스텔을 주로 찾는 2030세대에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보증보험이 필수가 됐지만 전세 매물 가운데 보증금이 가입 요건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구제 못받아… 대책 절실_국민일보, 2023.09.25.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6063건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 인정을 못 받은 경우도 10%에 달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구제받기 어려운 다가구주택 등 피해 사례를 살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선점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손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기준, 연소득 7000만→1억 3000만원 완화_동아일보, 2023.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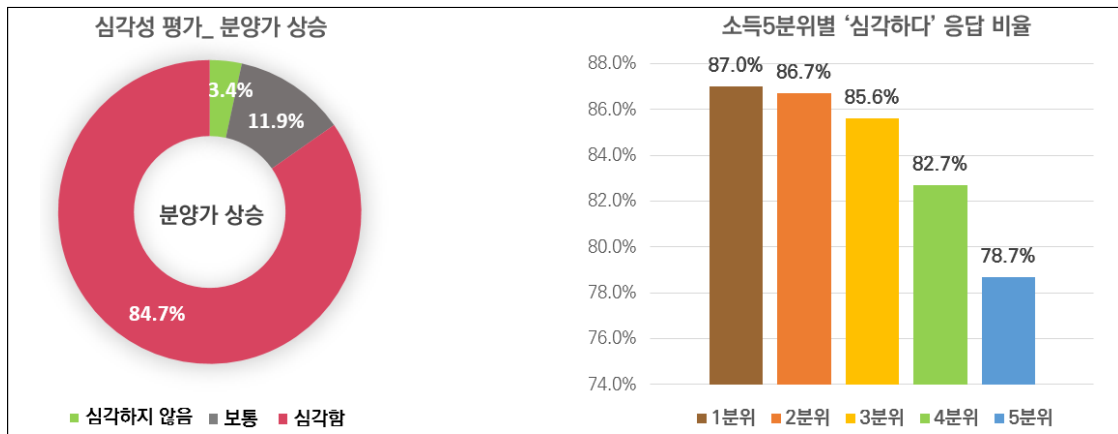
6일부터 연소득 1억 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대출에서도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단 보증금(3억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 원 이하)는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이달부터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경매 개시에 필요한 소송대리를 진행한다.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원한다.

피해자 벌써 1만명 넘었다 전세사기 70%가 사회초년생_한국경제, 2023.11.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합동 단속에도 전셋값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깃으로 떠올랐다.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해져 젊은 층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최근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3.2. 분양가 상승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흥행이 이어졌고, 건설자재 파동 여파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짐.
- 분양가 상승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려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 시공사 선정 난항으로 많은 재건축사업에서 차질이 발생함.



[그림기] 분양가 상승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미분양 쌓이는데...분양가 왜 치솟나_한국일보, 2023.02.23.

최근 분양단지, 인근 아파트보다 1,2년새 5000만~1억원씩 급등, 서울 8개월 새 평당 3000만원 넘어 업계 “청약 경기 풀리면 더 올라 하반기엔 둔촌주공 싸게 보일 듯”, 정부 규제 완화와 원자재값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시행사들이 청약 수요를 끌어 모으기 위해 그나마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약 경기가 풀리면 분양가 상승폭이 훨씬 가팔라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 22% 상승_내일신문, 2023.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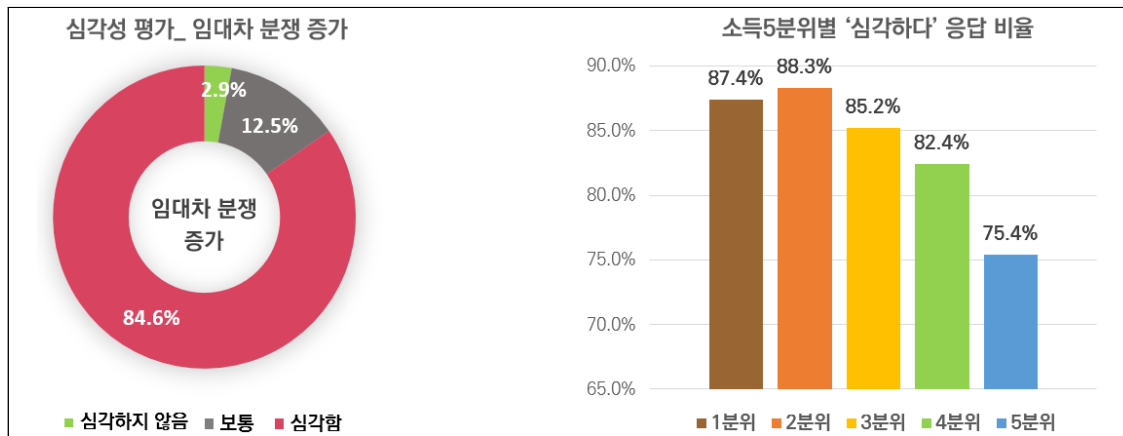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1년 사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세종시에서 상승폭이 27.8%로 가장 컸다. 세종시 분양가는 1794만원대다.

분양가 6개월째 상승... 3.3㎡당 1653만원_서울경제, 2023.09.16.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기준 평(3.3㎡)당 전달보다 1.69% 올랐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2%가 넘게 뛰었다. 건설 원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흥행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뚝박질하는 가운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3.3. 임대차 분쟁 증가

- 2023년도에 발생한 임대차 분쟁은 전·월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 현상과 맞물려 심각하게 인식됨.
- 2020년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임대차 3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됨.



[그림8] 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전세금 안주면 소송” “지연이자 주면 되지” 역전세 갈등 격화_파이낸셜뉴스, 2023.05.30.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계약만료를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세입자는 떨어진 전셋값으로 연장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역전세에 따른 임대차 갈등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기존 전세가격보다 하락된 금액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이다. 역전세난으로 불거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세가 반등에도 보증금 갈등 지속_헤럴드경제, 2023.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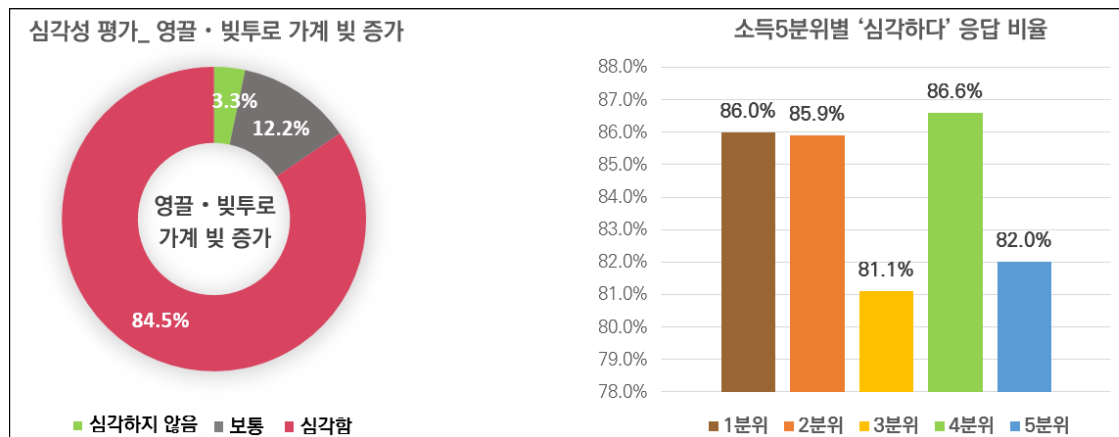
전세가격이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지는 분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마찰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곳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는 최근 전셋값이 다소 올랐다고는 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주택보증금 분쟁 열에 둘만 해결… 조정제도 있으나마나_동아경제, 2023.10.18.

보증금 관련 조정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에 불과한 329건으로 확인됐다.

3.4. 영끌·빚투로 가계 빚 증가

- 2023년에는 가계빚이 187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이자부담도 역대급으로 가중됨.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기지역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기록한 경우도 많고, 아파트 매매 심리 증가로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함.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그림9] 영끌·빚투로 가계 빚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1000조 넘는 가계부채 ‘빨간불’_아시아경제, 2023.07.15.

아파트 ‘영끌’ 열풍이 다시 불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수가 늘고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줄을 이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자칫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이 재발할 경우 영끌족들의 파산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강화에도... 주담대 한달새 2.8조 증가_서울경제, 2023.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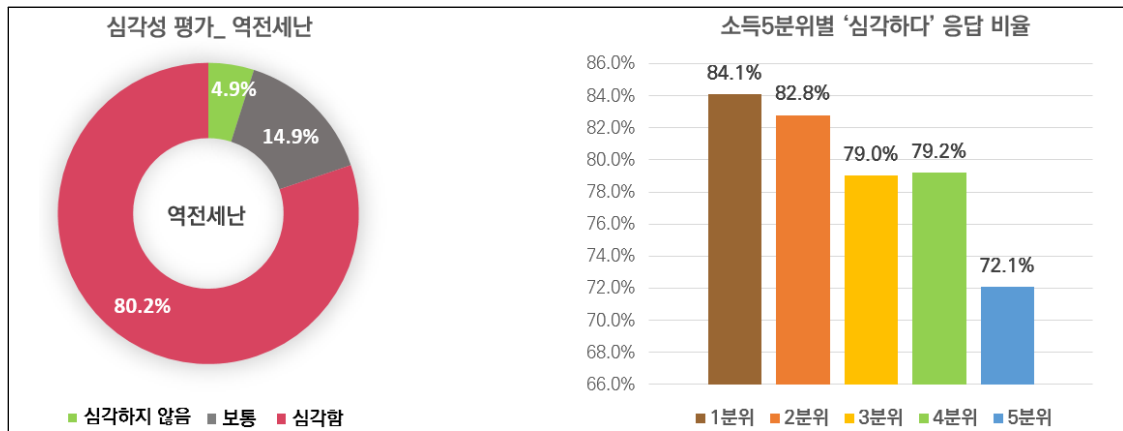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금융 당국의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음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댄 주담대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영끌족 아파트’ 쏟아지나... 임의경매 물건 속출_한국경제, 2023.11.06.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물건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세칭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입한 사람) 아파트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5. 역전세난

-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난이 2023년 상반기에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였고, 역전세난 우려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비중이 높아짐.
- 2024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될 예정이어서 일시적인 전세값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주택가격 약세와 고금리 기조에 따라 역전세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10] 역전세난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전셋값 10% 더 하락 땀...아파트 40%, 보증금 못 돌려줄 위험_중앙일보, 2023.01.05.

2년 전 6억 전세, 지금은 4억원, 강남선 10억 이상 하락 아파트도 집주인 “돌려줄 돈 마련 어려워” 업계 “올해 강제경매 늘어날 듯”, 특히 2021년 높은 전셋값을 지렛대로 ‘갭 투자’(투자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수)에 나섰던 이른바 ‘영끌족’이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02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고비”_조선일보, 2023.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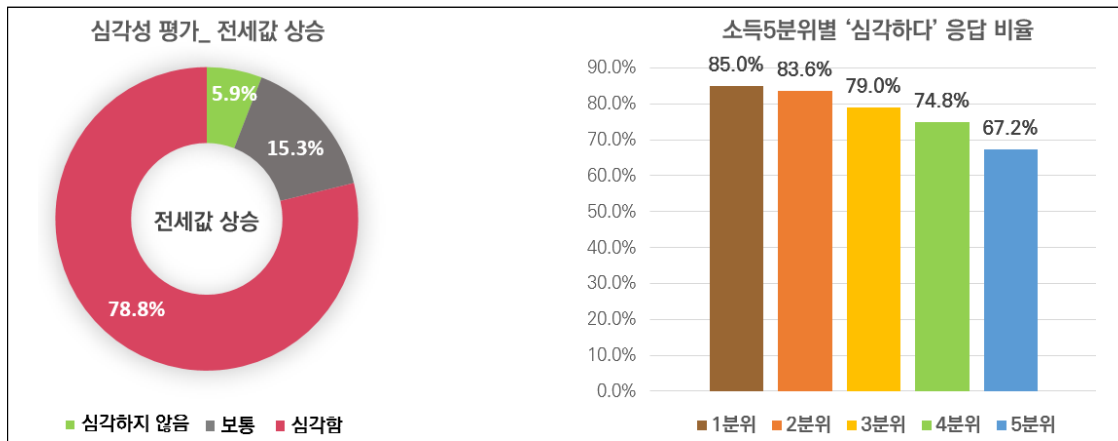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가구 비율은 4월 전체 전세의 52.4%인 102만 6000가구로 파악된다. 다만 이 숫자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역전세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서울시 2년만에 628% 폭증_머니투데이, 2023.10.23.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늘었다.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전세보험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3.6. 전세값 상승

-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2023년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세자 금대출 금리 인하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와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비아파트에서 소형 아파트로 넘어가는 전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또한, 고금리 및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내 집 마련 대신 전세계약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림11] 전세값 상승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역전세 걱정했더니... 매물 부족에 다시 뛰는 전셋값_한국일보, 2023.09.05.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상반기까지 전셋값 급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이 많았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선 기존보다 보증금을 20% 넘게 올려 갱신하는 사례가 나올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월세 수요, 다시 전세로_한겨레신문, 2023.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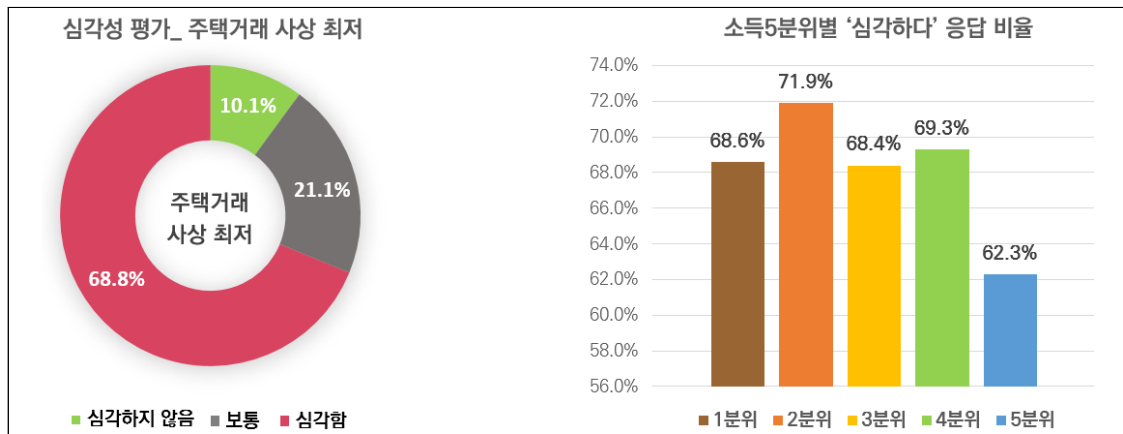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지난달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최고 연 6%대까지 올랐던 사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근 3%대까지 내리자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고금리에 내집마련 대신 계약 연장... 전셋값 15주째 상승세_국민일보, 2023.11.06.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15주 연속 올랐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세입자들이 아파트 매입 대신 전세 연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에 따른 수요 이동, 지난해 전세가 하락의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지난 7월 넷째주에 상승 전환한 뒤 15주 연속 올랐다.

3.7. 주택거래 사상 최저

-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매매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반대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함.
- 특히, 하반기에 고소득자와 유주택자에게 빌려주던 일반형 특례보증자리론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대출금리 연 7% 상회 등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됨.



[그림12] 주택거래 사상 최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집값 하락세·고금리... 생애 첫 구매자 역대 최저_세계일보, 2023.05.04.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의 숫자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데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많은 영향이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졌고, 집값도 계속 하락세를 타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물 쌓였는데 집 보러 안와요”... 서울도 ‘거래절벽’ 위기_파이낸셜뉴스, 2023.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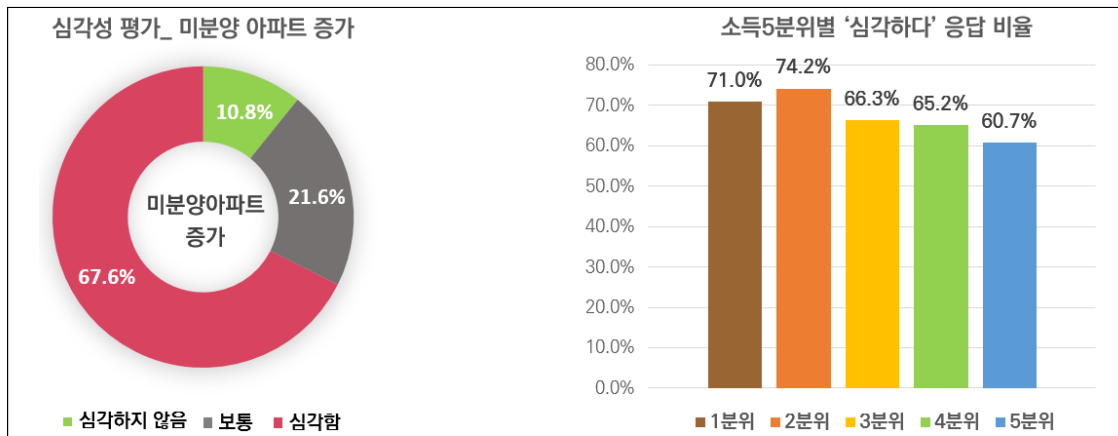
주택시장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절벽’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급매 소진에 대출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지만, 호가는 쉽게 낮아지지 않아 거래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3186건을 기록한 이후 9월까지 6개월간 3000건을 웃돌았다. 거래량은 ‘고점’을 찍고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금리·대출규제 강화에 관망세 짙어져...다시 거래 절벽 오나_아시아경제, 2023.11.01.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래회전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반면, 매도자는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도 8개월 만에 꺾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8. 미분양 아파트 증가

- 금리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비인기지역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했으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2023년 말로 접어들면서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반대로 증가하여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그림13]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준공 후 미분양’ 34%_아시아경제, 2023.01.20.

작년 말 기준 서울 지역의 미분양 주택물량이 1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전 미분양 물량 54가구와 비교하면 18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쌓이면서 전체 미분양 물량의 34%를 차지했다.

미분양 199% 급증...‘건설’ 손 놓은 건설사들_중앙일보, 2023.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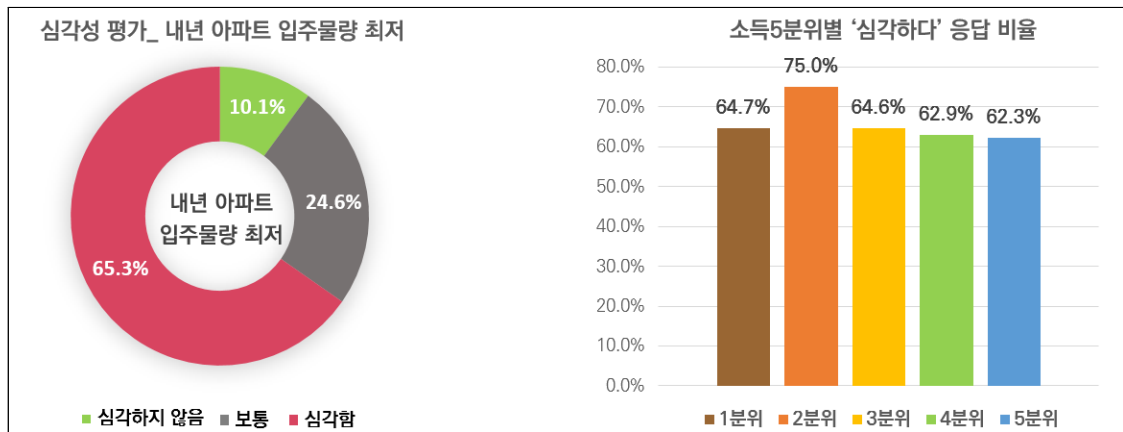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자금 경색,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탈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아쇠는 고금리였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438가구로 1년 전보다 199% 급증했다. 전체의 83%가 지방 물량이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 건설사들 “이자 내다 숨 넘어갈 판”_중앙일보, 2023.11.01.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건수가 반 토막 나며 2~3년 후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관련 대책을 내놔다. 당장의 자금 숨통을 틔워 주택 착공을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에선 찬바람만 불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착공 감소 폭이 더 커졌다. 1~9월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도 25만 14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3.9.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최저

- 인허가 물량 감소,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PF 부실 여파 등으로 2024년의 분양물량이 축소됨.
-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만 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와 전·월세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14]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최저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서울에 들어갈 집 없어진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_파이낸셜뉴스, 2023.0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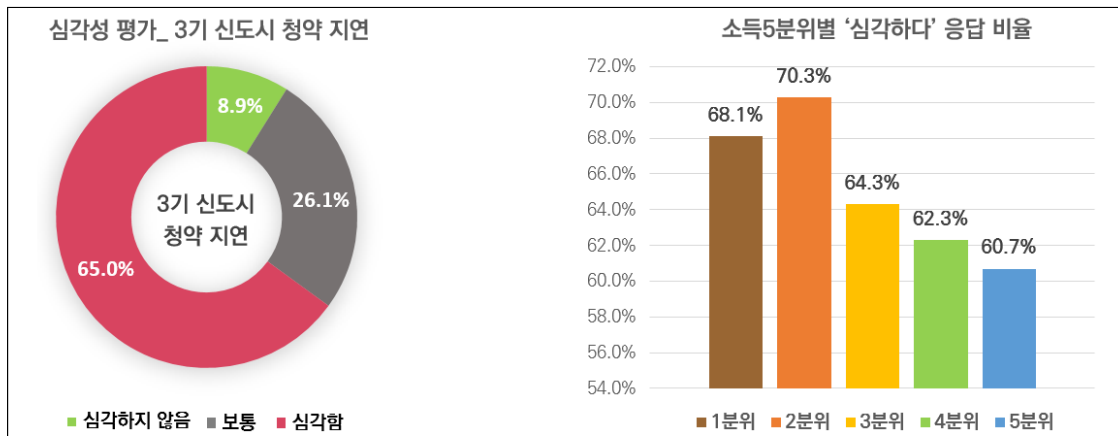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인허가·착공 등 미래지표도 악화되는 등 공급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내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최대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입주물량은 전월세는 물론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축 아파트 품귀현상으로 내년에는 전월세물량이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 1만가구 미만_뉴스1, 2023.11.10.

서울 입주물량이 내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연간 1만가구 미만 입주는 개별 연도별 수치가 집계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급감하면 신축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입주시장은 앞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평년보다 물량이 더 줄어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사업비 증가 등 사업을 지연시킬 만한 변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10. 3기 신도시 청약 지연

- 토지보상과 착공 지연 등으로 애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동시에 LH에 대한 대대적 혁신안이 이행됨에 따라 기존 용역계약 일부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임.



[그림15] 3기 신도시 청약 지연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3기신도시 2년 지연... 사전청약자 속탄다_서울경제, 2023.0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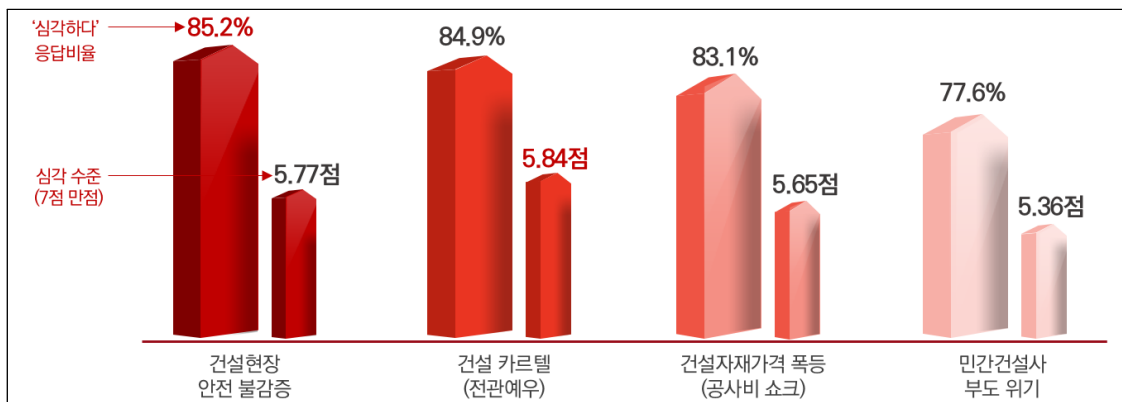
3기 신도시 사업이 최소 1~2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021년 첫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만 해도 빠르면 2025년 최초 입주가 예정됐었는데 2년이나 늦어지면 내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증가해 청약 당첨자의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팡질팡 '3기 신도시'...보상 지연·사업 주체 교체 검토에 사업 취소까지_TV조선, 2023.11.08.

국토부는 최근 3기 신도시 왕숙 자구에 공급할 계획이던 신혼희망타운의 사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으로 변경돼 기존 계획을 승인 취소 했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에서 첫삽조차 뜨지 못한 곳이 16만 가구, 전체의 66%정도입니다. LH의 자금난 의혹으로 사업 주체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4. 건설사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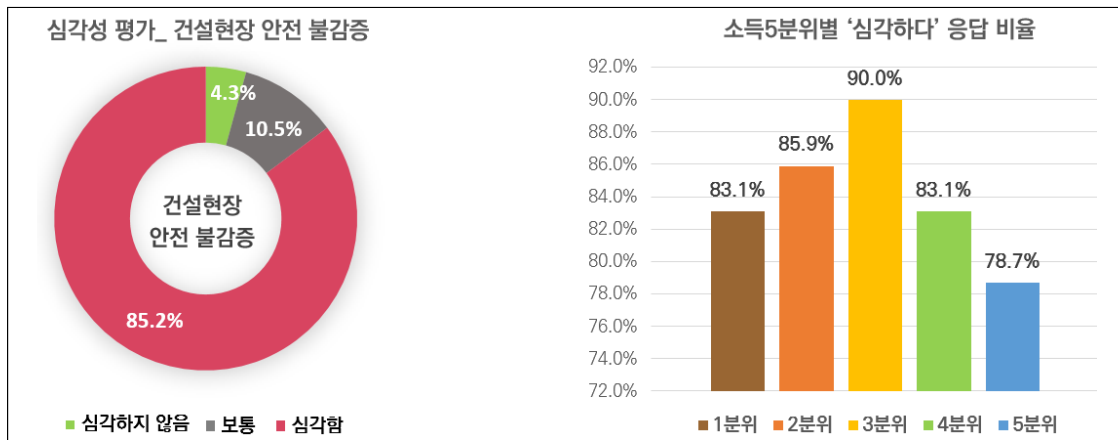
- 2023년에는 건설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건설 카르텔’, ‘자재비 폭등’, ‘민간건설사 부도’와 관련된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
 -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각’ 수준이 가장 큰 이슈는 ‘건설 카르텔(전관예우)’로서 심각성 수준이 5.84점(7점 만점)으로 나타남.
 -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은 노동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최근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건설 카르텔’(전관예우)에 대한 심각성은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신뢰성 및 청렴성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철근 누락 아파트와 같이 주택의 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심각 수준이 매우 높게 조사된 것으로 이해됨.
 -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이슈보다 ‘건설 카르텔’ 이슈의 심각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건설 카르텔’ 문제가 안전을 비롯하여 건설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 ‘건설자재가격 폭등’은 분양가격 상승, 재건축사업 지연, 중소 건설업체 부도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어 심각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됨.
 - 반면에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는 국민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특히, 최근 부실시공이나 아파트 하자 등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에 영향을 받아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이슈들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됨.



[그림16] 건설사 관련 이슈별 심각성

4.1.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 2023년에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며,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등임.



[그림17]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건설현장 서류작업 ‘몸살’…안전관리 플랫폼 만든다_대한경제, 2023.01.13.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분야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과도한 서류작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성하고 있는 서류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이 작성하는 자료 현황과 소요되는 시간·인력 등을 파악해 정량화하기 위해서다.

여전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3분기에만 65명 사망_MoneyS, 2023.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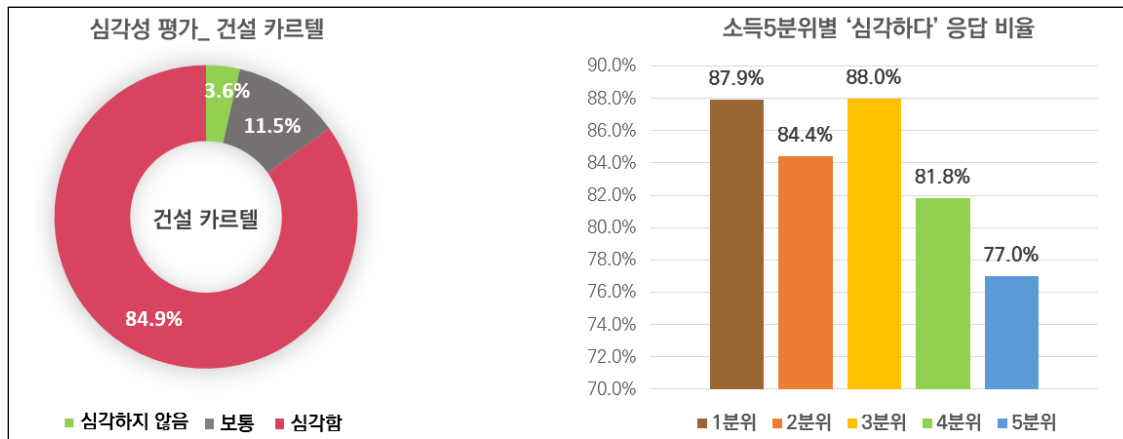
올 3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현장에서 2명 이상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 명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업체와 관련 하도급 업체의 소관 건설 현장,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 감소 속에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증가_내일신문, 2023.11.07.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4.2. 건설 카르텔·전관예우

- 건설 카르텔 문제는 2023년도 LH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등장하였으며,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원인이 전관 등 건설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 업무를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함. 다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전관예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그림18] 건설 카르텔·전관예우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원가 공개로 이권 카르텔이 장난 칠 자리 없애야”_중앙일보, 2023.08.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문제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상징되는 철근 빠진 부실시공, 그리고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를 망라한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병폐만 더해졌다.

원희룡 “공공택지 전매, 계열사끼리는 불가”_매일경제, 2023.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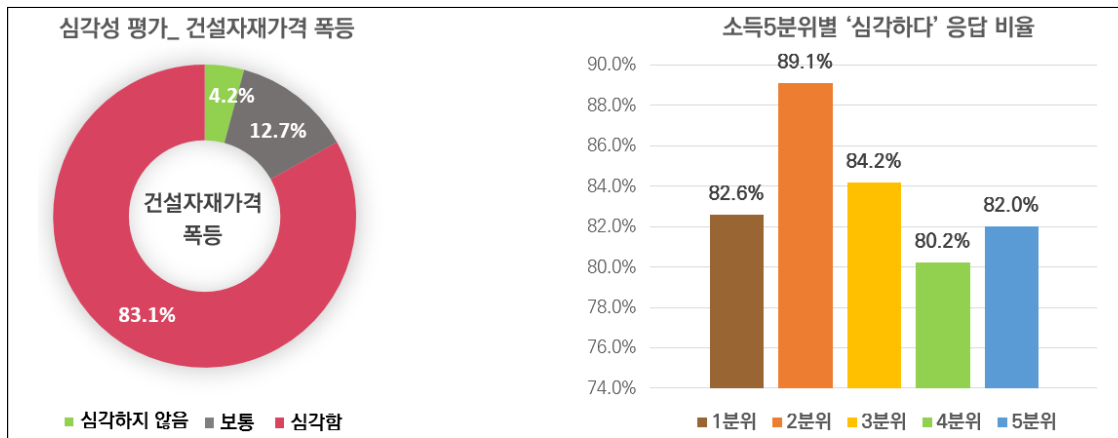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전매를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들끼리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고,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토지들을 위주로 전매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발 LH 새 혁신안 임박...전관예우 차단 등 부실공사 해법 나올 듯_뉴스1, 2023.10.27.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으로 비롯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혁신안이 조만간 나온다. 혁신안에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및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차단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LH가 갖고 있는 택지 개발부터 공공주택 공급까지 거의 전 과정에 걸친 권한을 일부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3. 건설자재가격 폭등·공사비 쇼크

-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폭등 여파로 건설사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함.
- 공사비 상승은 자금 운용 여력이 낮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를 유발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부실공사 발생 등 건설시장 전반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림19] 건설자재가격 폭등·공사비 쇼크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30년 만의 시멘트 파동... 건설현장 멈췄다”_한국경제, 2023.04.01.

전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멘트 품귀로 공사가 크게 지연됐다”며 4월 예정이던 입주일을 5월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시멘트 공급난의 충격파는 공공 건설 현장과 지방 중소형 주택건설 현장을 우선 덮쳤다. 시멘트회사들이 대량장기 거래를 하는 대형 레미콘사 위주로 물량을 배분하면서 관급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형 레미콘사가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t당 61만원 하던 철근 값 100만원 넘어, 주택 착공·인허가 급감_중앙일보, 2023.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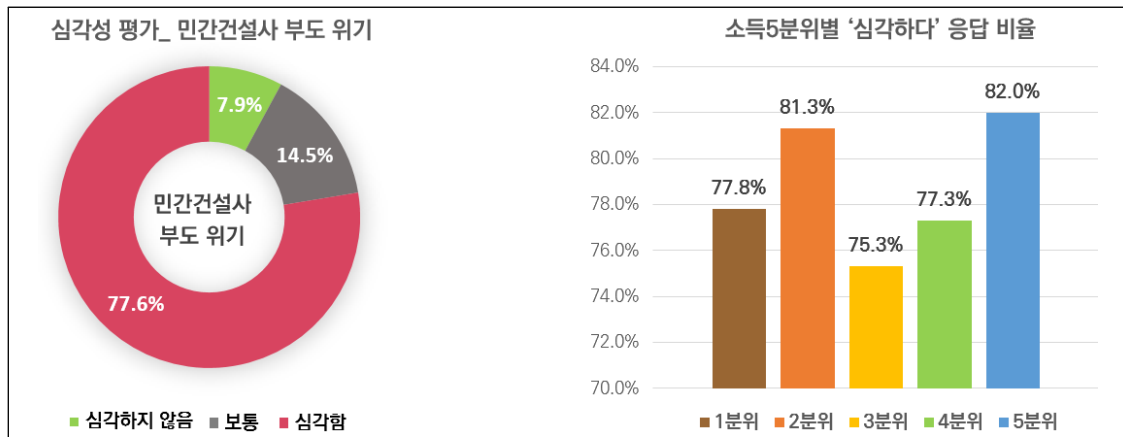
‘2~3년 뒤에는 주택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해 주택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위기의식이다. 올해 들어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다.

“자재가격 또 뛸까”... 건설업계 ‘워플레이션’ 우려에 촉각_서울경제, 2023.10.1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충돌에 국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시 국제 유가 등 자재값이 급등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2의 중동 봄’을 노리며 진출한 인근 국가의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돼 해외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 자재 가격도 요동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시멘트 등 자재값과 각종 운송비가 덩달아 뛰기 때문이다.

4.4.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

- 2023년에 발생한 종합건설사 폐업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남.
-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러-우크라 전쟁과 이-팔 전쟁에 따른 건설 자재 가격 폭등,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금융권 자금 경색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건설사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20]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에 대한 심각성 평가결과

건설사 매달 41곳씩 문 닫았다_조선일보, 2023.07.14.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관리와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PF 시장 경색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닫은 건설사 올해 405곳... 17년 만에 최다_한겨레신문, 2023.09.25.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올해 문을 닫은 건설사 수가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보면, 1월~9월 22일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모두 405건으로, 2006년(연간 435건) 이래 최대치로 집계됐다. 건설사 폐업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사 줄도산... 분양보증 사고 10년래 최다_매일경제, 2023.10.11.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향후 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사 부도로 건설현장이 멈추며 수분양자들이 입주 지연 피해 등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 시사점

-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주택 공급과 거래에 대한 관심 보다는 현재 주택의 상태와 거주 여건에 대한 관심 증가
 -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거주 안전성에 대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사회적 이슈로 발전함.
 - 주택의 ‘하자’, ‘불량’ 등 물리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주거비 안전성까지 폭 넓게 이슈가 발생함.
 - 더욱이 주택의 하자·불량 문제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거래와 불법행위에서 시작된 만큼 건설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로 발전함.
- 지난 부동산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화에 맞춰져 있었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기본요건에 대한 재정비 필요
 - 2023년에 발생한 부동산 이슈들은 국민에게 주택의 안전·안심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짐.
 - 특히, 주거비는 목돈이 필요하고 서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주거비 안정성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해 왔고, 공기업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하자·부실은 공공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유발함.
 - 따라서 주택가격 관리에 대한 정책적 부담이 적은 현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정 및 주택품질 관리, 주택금융관리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
 - 부조리한 건설 관행과 무책임한 하자·보수 문제,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 불감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계약, 시공, 감리, 하자·보수 등 건설과정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그동안 주택자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된 주택금융 정책에 더하여 전세 보증금 안전성 확보와 같은 주택자금 관리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저소득 가구 등 서민 주거를 책임지는 LH의 이미지 개선 및 국민 신뢰 회복 필요
 - 단순히 건설 공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아닌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이미지 개선,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제3장 2023년도 언론보도로 전달된 LH 사업에 대한 국민 선호도 분석

1. 2023년도 LH 추진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특징

■ 2023년도에 LH는 주택품질,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사회공헌, 기업경영 등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추진

○ 사업지구별 공급계획 등 안내성 기사 이외에 주거복지 사업과 주택품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도됨.

- 주택품질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층간소음 저감, 건설 신기술 개발, 선교통 공급 추진 등과 관련된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음.
-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등과 관련된 기사가 집중되었음.
-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하여 미분양주택 매입, 불법건설행위 근절 노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건설경기 회복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추진되었음.
-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온실가스 저감사업, 이재민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 입주민 대상 일자리 알선 및 주거복지사 배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1인 고령가구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음.
- LH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생 채용 가산점 지원, 부패방지 노력, K-신도시·산업단지 수출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짐.

○ 상반기에는 건축기술과 정부정책 관련 기사, 중반기에는 재난·안전·지원 관련 기사,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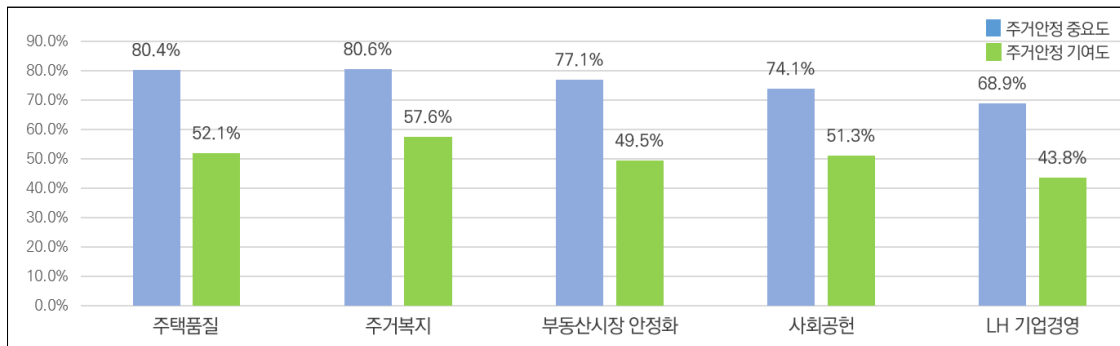
- 상반기에는 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춰 층간소음 기술 개발, 임대주택 고급화, 선교통 후입주 등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의 주류를 이루었음. 동시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아이돌봄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 미분양주택 매입,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주된 언론보도 내용에 해당됨.
- 중반기에는 재난·안전·지원 관련 LH 역할을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추진되었는데 LH 상가 임대료 인하, 이재민 주택 공급,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에 대한 기사가 대표적임. 이외에도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K-신도시 수출 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하반기에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추진됨. 매입임대주택 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공급 속도전 등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음.

○ 주거안정을 위한 선호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LH 언론보도 중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주거복지’로 나타남.

- 국민 주거안정에 중요도가 높은 LH 업무영역은 주거복지 > 주택품질 > 부동산시장 안정화 > 사회공헌 > LH 기업경영 순으로 나타남.
-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LH 업무영역은 주거복지 > 주택품질 > 사회공헌 > 부동산시장 안정화 > LH 기업경영 순으로 나타남.



[그림21] LH 언론보도 기사 유형별 주거안정에 대한 중요도 및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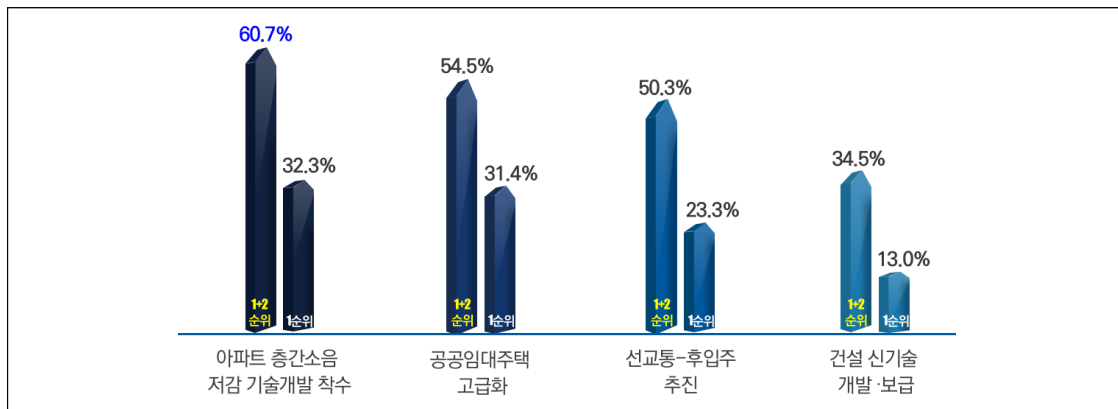
[표3] 2023년도 LH 추진 사업 및 관련 주요 뉴스 헤드라인

이슈 유형	키워드	주요 기사 헤드라인
주택 품질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LH 임대주택 ‘고급화 선언’. 면적 넓히고 마감재 업그레이드... ‘공공임대 고급화’에 박차. LH 임대주택 품질 높인다... 층간소음 줄이고 마감재 업그레이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LH, 층간소음 해결 ‘품질혁신’ 직제 개편. 입지 좋은 공공주택, 층간소음 독... ‘주거 혁신’ 삶의 질 높인다. LH, 층간소음 해결사로 나선다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LH, 중소기업 특허 신기술 찾아 현장적용. LH, 국내 혁신 건설기술 해외 수출 돕는다... 코트라와 ‘맞손’. LH, UN과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신기술 개발 협업.
	선교통-후입주 추진	LH, 층간소음·선교통 후입주 등 주거혁신 올인. LH 3기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원칙... “서울 30분 내 출퇴근”. LH, 3기 신도시 교통망 적기 구축... 50만 가구 공급 ‘속도’
주거 복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가구 청약. LH,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공공분양 6300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청약

이슈 유형	키워드	주요 기사 헤드라인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	입주민 육아·돌봄 부담 덜어주고 자립준비 청년 등 지원도 앞장서. '0.78 저출생 쇼크' 대안 아이돌봄 통합거점시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 첫 제공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	LH,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투어'...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LH, 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 개최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LH, 노후 임대주택 유지보수 외관 리모델링·편의시설 개선. 오래된 LH 임대주택 4만 가구 오래 '그린리모델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 LH, 미분양 36채 공공임대용 매입... '건설사 특혜' 비판도.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불법건설행위(불법노조) 적발·근절	LH, 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뿜었다. LH "공사현장 82곳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270건 적발".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 '3기 신도시 최대' 남양주 왕숙 첫삽... "공급난 해소 기대"
	건설경기 회복지원	LH "건설경기 회복 돕는다"... 올해 10조원 공사·용역 발주. LH, '파업 여파·경기침체' 건설업 회복지원
사회공헌	토지주택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LH,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LH, 어린이날 맞아 'LH로 놀러와' 초청 문화행사 개최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여	LH, 파키스탄 슬럼가 개선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탄소배출 26% 절감". LH, 파키스탄 주거 개선·온실가스 저감사업 시동..新 사업 모델 구축되나
	산불·폭우피해 이재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산불·수해 이재민들 "LH 임대주택 덕분에 일상 회복". LH, 폭우피해 이재민 주택 1500여채 지원. 포항에 지진 피해민 위한 공공임대 공급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	LH, 작년 입주민 2355명에 일자리. LH-해남군, 북일면 주거플랫폼사업 시행협약. 창원시·LH아파트 여성 취업 위해 된다
	공공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LH, '영구임대' 주거복지 향상 추진..."인력 확충·제도개선 절실". LH, 영구임대주택 67곳에 주거복지사 배치.
	임대주택 아동·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	아동·청소년에게 꿈을 전하는 'LH멘토와 꼬마친구' 사업 18년째 진행. LH, 여름방학 맞아 임대주택 아동 도시락 제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H, 660가구에 연탄·등유 기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었다. LH, 저소득층에 4개월치 난방비 지원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인하	LH, '중부세 감면액' 임대주택·상가 임대료 인하여 재투자. LH, 임대상가 연 말까지 임대료 25% 인하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LH, '임대주택 고독사' 스마트기술로 막는다. LH, 수도권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에 생활돌봄서비스 제공
기업경영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LH 직원 230명 채용... 자립준비청년엔 5% 가산점. LH, 신입사원 230명 공채... 자립준비청년에 가산점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LH, 사장직속 '국민주거혁신실' 신설 등 조직개편. LH,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조직신뢰 위기에 '배수진' LH 전부 싹 바꾼다...'조직개편' 어디까지
	K-신도시 K-산업단지 해외수출	LH, 베트남에 K-신도시 수출한다. 韓·베트남 경험 산단에 15개 필지 공급. 베트남 최초 '한국 산업단지' ... "일본 산단 뛰어넘겠다"

2. 주택품질 관련 사업

- 주택품질은 주거복지 부문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분야임.
- 주택품질과 관련하여 LH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선호도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공공임대주택 고급화’가 54.5%, ‘선교통-후입주 추진’이 50.3%,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이 34.5%로 나타남.



[그림22] 주택품질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LH, 10대 건설사와 층간소음 기술협력 맞손_에너지경제, 2023.03.18.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팔걸은 LH_서울경제, 2023.0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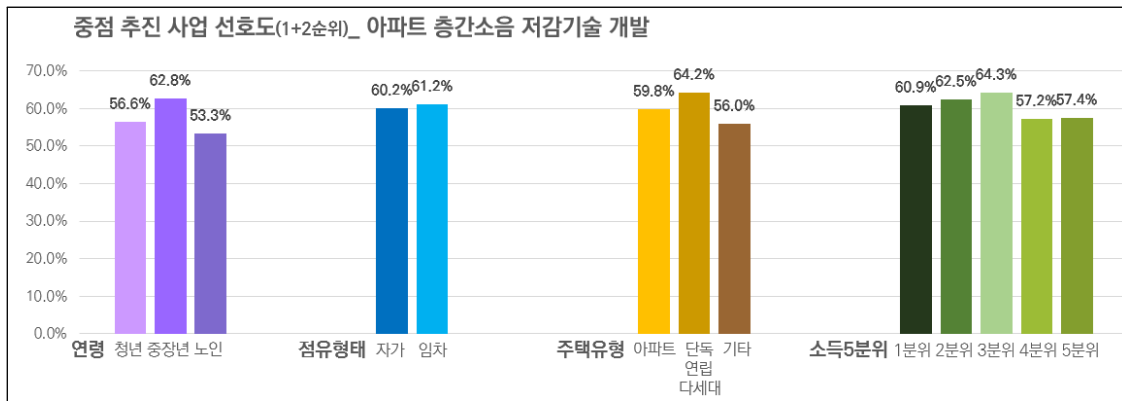
LH 층간소음과의 전쟁...‘소음 제로’ 아파트 시동_bizwatch, 2023.05.18.

LH, 유명무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보완시공 지침 만든다_뉴시스, 2023.06.28.



2.1.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 층간소음은 ‘이웃 간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있음.
- 이를 반영하듯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층과 소득분위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중장년층과 비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임.



[그림23]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층간소음 해결 ‘품질혁신’ 직제 개편_조선일보, 2023.01.0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사장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LH는 “국민의 관점에서 LH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고, 실행력 있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 성과를 창출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입지 좋은 공공주택, 층간소음 뚝... ‘주거 혁신’ 삶의 질 높다_디지털타임스, 2023.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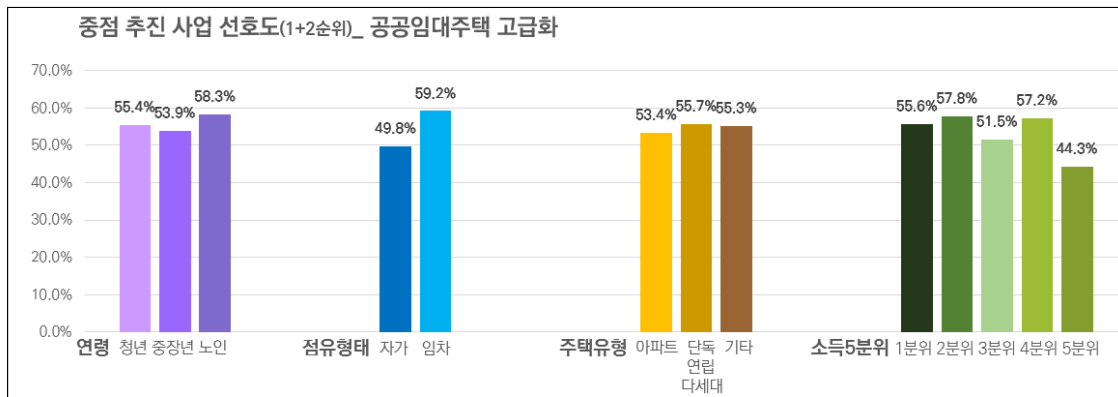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LH 제6대 사장에 취임한 이 사장은 조직개편부터 손을 봤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기존 벽식구조를 개선해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소음 저감요소별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새로운 공법을 발굴하고, 시공자재에 대한 현장 적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LH, 층간소음 해결사로 나선다_아시아경제, 2023.05.19.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해 LH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연구하는 차음성능실험실 등을 체험했다. 현재 HERI의 가장 큰 역점 과제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이다. LH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상호 교류를 통해 층간소음 우수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 2.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 및 입주 선호도 향상을 위해 우수 마감재 사용, 디자인 혁신, 편의시설 개선 등의 품질개선 노력을 진행 중임.
- 공공임대주택 고급화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노인층, 임차 가구,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24] 공공임대주택 고급화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임대주택 ‘고급화 선언’_한국일보, 2023.01.02.

정부에 마감재 사용 예외 규정 요구 대기업 제품으로 ‘하자’ 오명 탈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품질 저하 지적이 빚발친 임대주택의 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LH는 이런 제도상의 맹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면적 넓히고 마감재 업그레이드… ‘공공임대 고급화’에 박차_서울경제, 2023.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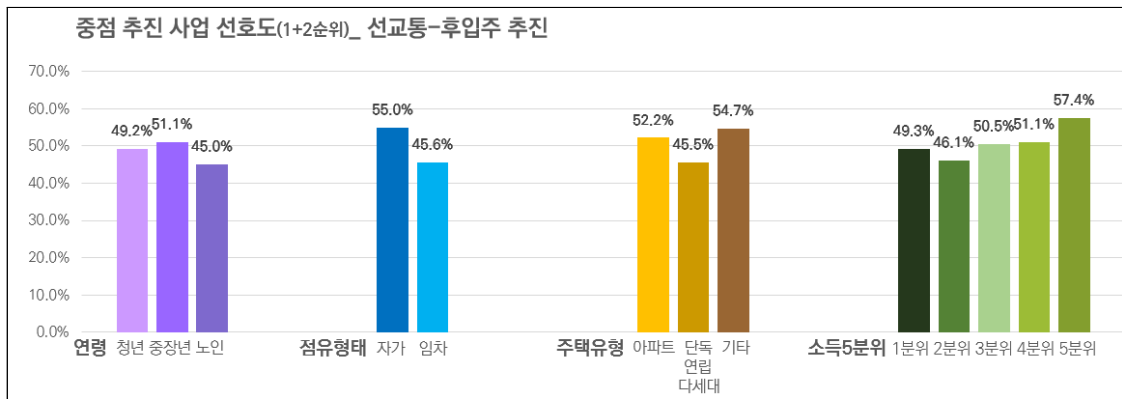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협소했던 주거 면적을 넓히고 분양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마감재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한다.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주방가구를 사용하고 서랍장 등 공간 활용도를 입주자 편의성을 고려해 개선한다. 욕실변기·세면대 등 도기류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욕실수납장과 뒷선반을 확대했다.

LH 임대주택 품질 높인다… 층간소음 줄이고 마감재 업그레이드_파이낸셜뉴스, 2023.07.1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전방위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 주택 80만 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신축 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주택 설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마감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분양주택 수준으로 마감재를 상향 조정한다.

2.3. 선교통-후입주 추진

-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 때마다 반복되어 온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先교통 後입주’ 방침을 밝힘.
- 선교통-후입주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자가 가구,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25] 선교통-후입주 추진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층간소음·선교통 후입주 등 주거혁신 올인_헤럴드경제, 2023.01.04.

고위직 청렴도 검증 대대적 쇄신, 감사실장 등 개방형직위로 운영,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교통 후입주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하고 수행부서로 ‘선교통계획처’ 신설을 통해 신도시급 교통 전담 수행 조직을 강화했다.

LH 3기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원칙… “서울 30분 내 출퇴근”_서울신문, 2023.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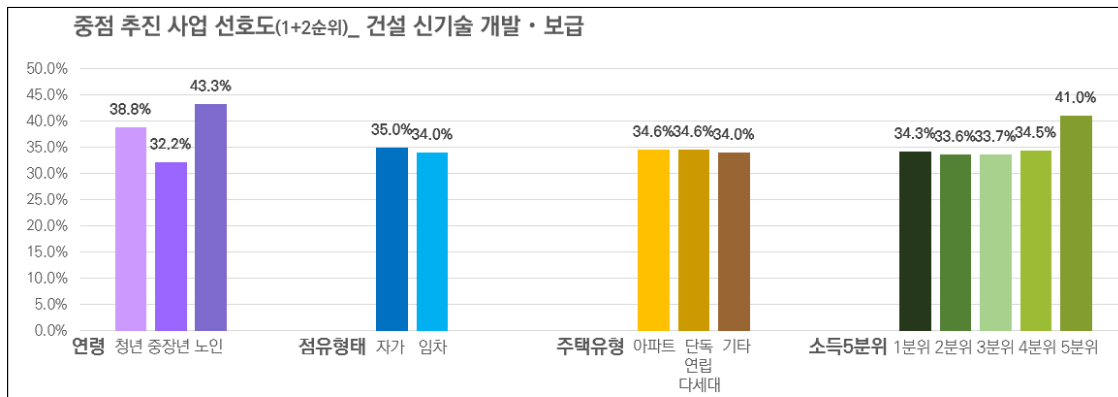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철도 노선을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해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계획을 조기 확정된 LH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시 LH본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승할 때 통행자 불편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는데, 실제로는 운영비 갈등 문제가 크다”며 “긴밀히 협의 중이라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3기 신도시 교통망 적기 구축… 50만가구 공급 ‘속도’_한국경제, 2023.09.19.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한 축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통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을 갖추고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LH는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인프라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교통업무 전담 조직인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했다.

2.4.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 최근 건설업계는 인공지능(AI) 활용, 재난 안전, 탄소중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노인층과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26]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중소기업 특허 신기술 찾아 현장적용_파이낸셜뉴스, 2023.04.1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1차 LH 인증 신기술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정 5개 공종과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제로에너지주택, 충전소음 저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신기술 특허 분야다. 공모대상은 정부인증 신기술 또는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 신자재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LH, 국내 혁신 건설기술 해외 수출 돕는다...코트라와 ‘맞손’_데일리한국, 2023.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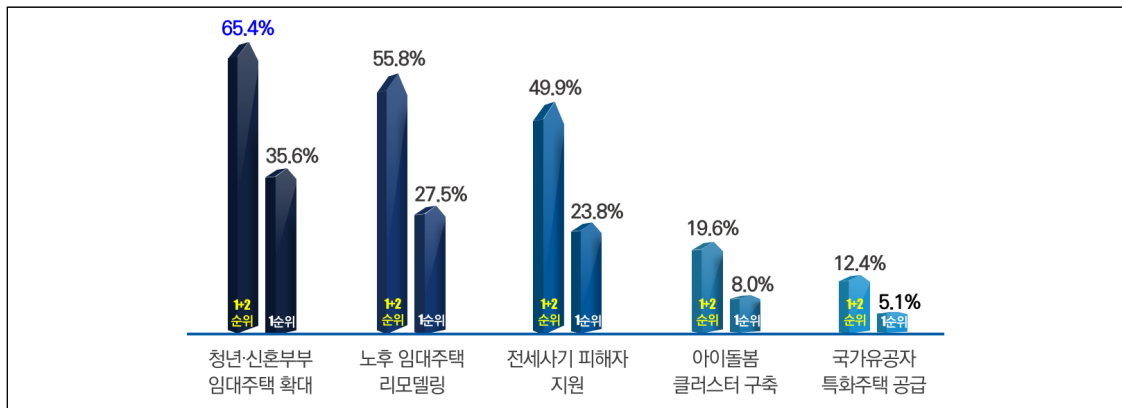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트라(KOTRA)와 LH인증신기술(자재) 등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OTRA의 해외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LH인증신기술 선정제도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혁신제품 등의 한류박람회 참여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LH, UN과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신기술 개발 협업_동아일보, 2023.11.09.

LH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UN과 공간정보 분야 협업을 위한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의사록 체결은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가치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지오AI’,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공간을 구축해 시뮬레이션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디지털트윈’ 등 기술 개발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3. 주거복지 관련 사업

- 주거복지 분야 중 LH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가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주된 대상자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그리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사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27] 주거복지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LH인천본부, 공실어린이집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개소_중부일보, 2023.01.18.

LH, 저출산 극복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아이돌봄시설 시범사업_뉴스메이커, 2023.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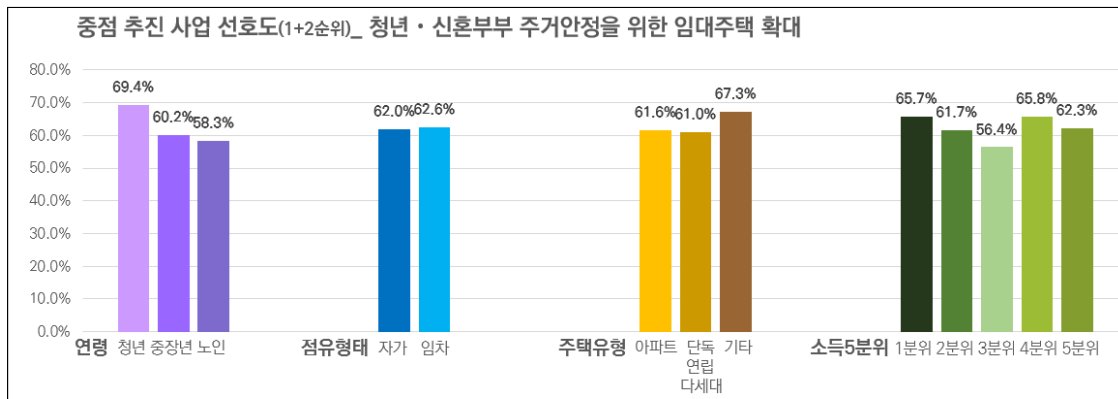
LH, 아이돌봄클러스터 등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_해럴드경제, 2023.07.25.

의정부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성...주민과 함께 설계한다_일요신문, 2023.08.23.



3.1.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 LH와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기타 주택유형 거주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28]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가구 청약_대한경제, 2023.01.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2174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76곳에서 청년대상 815가구(기숙사56가구 포함)와 신혼부부 대상 1359가구를 공급한다. 노영봉 LH매입임대사업차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LH,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공공분양 6300가구 공급_서울경제, 2023.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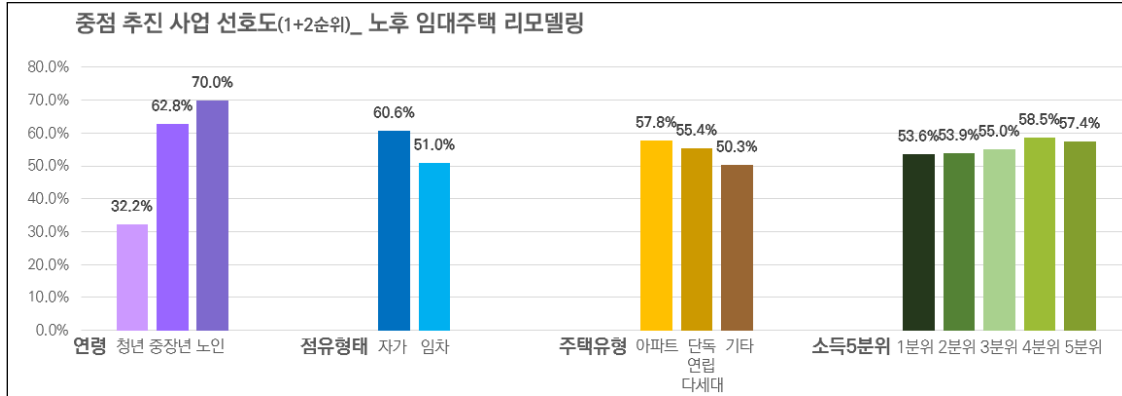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63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대방과 위례 등 주거 수요가 높은 물량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계획은 건설 공사 진행 상황,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청약_파이낸셜뉴스, 2023.10.0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II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2.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은 임대주택의 구조·설비 등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노인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29]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헌집에서 새집으로" 5년간 노후 공공임대 8.4만 가구 리모델링_서울경제, 2023.06.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3만 9000가구에 이어 2027년까지 추가로 8만 4000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6일 LH에 따르면 LH는 2027년까지 준공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8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LH는 노후 공공임대의 외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16개 단지를 추진 중이며 추후 보완을 거쳐 2026년까지 매년 준공 25년 이상인 영구임대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LH, 노후 임대주택 유지보수 외관 리모델링·편의시설 개선_아시아투데이, 2023.0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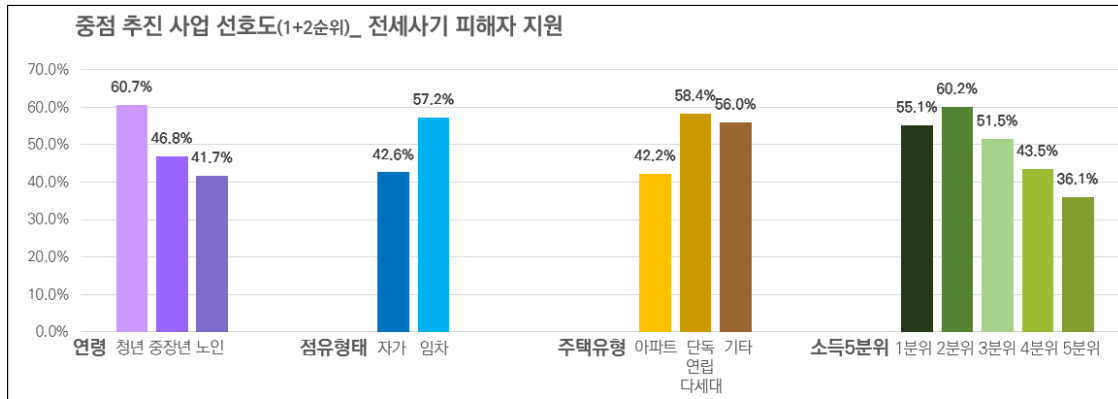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체인업(Change-up)’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공간이나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상가 외관의 리모델링 및 퇴색한 아파트 외벽의 재도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오래된 LH 임대주택 4만 가구 올해 ‘그린리모델링’_한국일보, 2023.0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부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임대주택 4만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약 5,900억 원이고 대상은 LH의 노후 영구임대(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만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아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매입임대 리모델링은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 개선과 함께 공동 현관 등 노후한 공용부분 리모델링으로 진행된다.

3.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는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 중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꼽힘. LH, HUG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청년층, 임차 가구, 비아파트 거주 가구,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_동아일보, 2023.04.2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2만 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지원' 손잡은 LH-서울시...첫 주거복지 포괄협약 체결_한국경제, 2023.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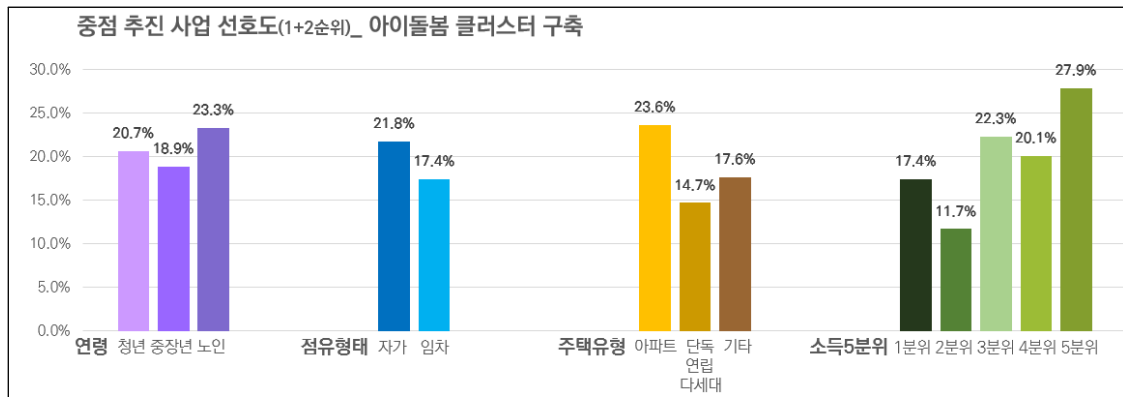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서울시와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와 서울시가 개별사업이 아닌 포괄적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차 심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서울 내 긴급주거지원 수요 증가 등 주거난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및 재난 피해 등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주거지원과 국가유공자 보훈주택과 같은 수요맞춤형 특화주택 공급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 첫 제공_경향신문, 2023.08.18.

LH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외국인·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자격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재외동포들은 그동안 주거지원에서 제외됐다.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이 국민으로 대상이 한정돼 외국인·재외동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4.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

-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생활권 중심에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각종 보육시설을 집적화하고, 어린이 도서관, 문화센터, 병원 등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해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육시설임.
-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노인층, 아파트 거주 가구, 중소득층·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31]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입주민 육아·돌봄 부담 덜어주고 자립준비 청년 등 지원도 앞장서_디지털타임스, 2023.02.08.

LH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입주민들에게 육아·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주거복지사를 확대 배치하고, 입주민 중심 하자보수체계 확립, QR 코드 활용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 등 주택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해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0.78 저출생 쇼크’ 대안 아이돌봄 통합거점시설_대한경제, 2023.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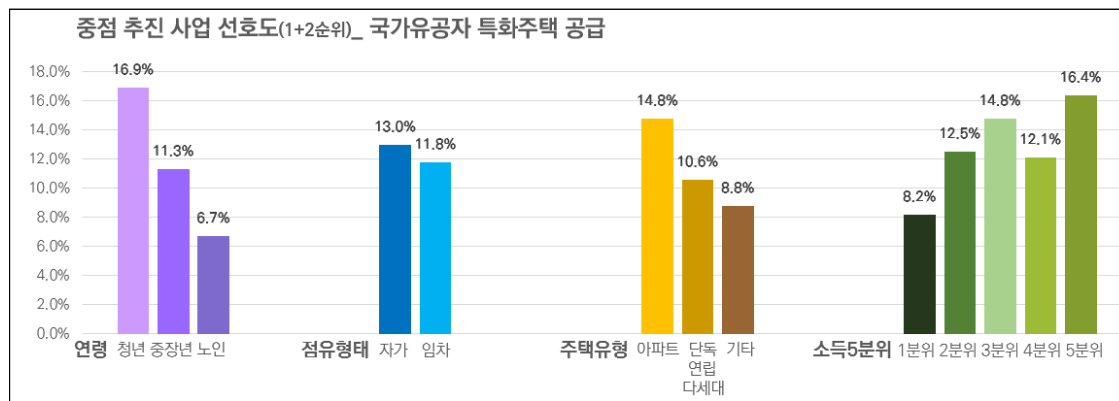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이 고작 0.78로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이 설치·운영하는 ‘아이 돌봄 통합거점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내 이용가능한 공원, 미매각 학교용지, 또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등이 설치되는 아파트단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아이돌봄에 필수적인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식당, 놀이, 교육, 상담, 도서관, 어린이부모휴게시설 등을 집적화해 거주자 인접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이 시설에는 육아관련 청년 창업기관도 입주하도록해 청년지원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따로 운영 아이돌봄 시설을 한곳에...LH,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연합뉴스, 2023.07.25.

LH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사업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는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아 통합 운영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의료, 여가 휴식,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5.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

-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며, 평균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임.
-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아파트 거주 가구,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32]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투어’...임대주택 공급도 확대_연합뉴스, 2023.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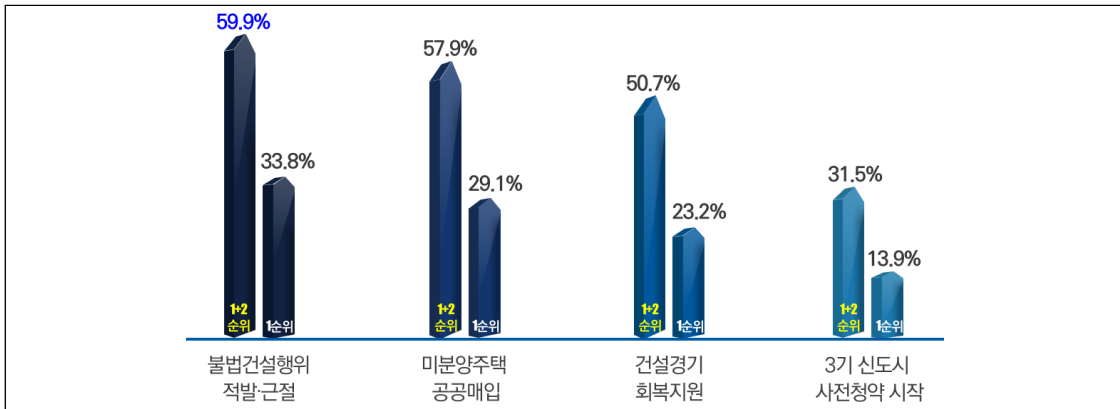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보훈투어를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LH 임대주택은 8천413가구이며, 이달 중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보훈보금자리 37가구에도 국가유공자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오주현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 개최_뉴스1, 2023.07.0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LH가 매입한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다. 이곳에는 총 37가구가 거주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560만~900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만~30만원 수준이다. 이한준 사장은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상향을 적극 지원하고 주거와 연계된 보훈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련 사업

-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하여 LH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불법건설행위 적발·근절’이 59.9%,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57.9%의 순으로 나타남.
 - 불법건설행위 적발·근절에 대한 선호는 2023년 초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해로 삼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특정 불법 건설 노조의 공사현장 불법행위가 서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됨.
 - 미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한 선호는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공급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건설사 부도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부족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됨.



[그림33]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LH,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 건설사 구제방안 마련한다_대한경제, 2023.02.23.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_헤럴드경제, 2023.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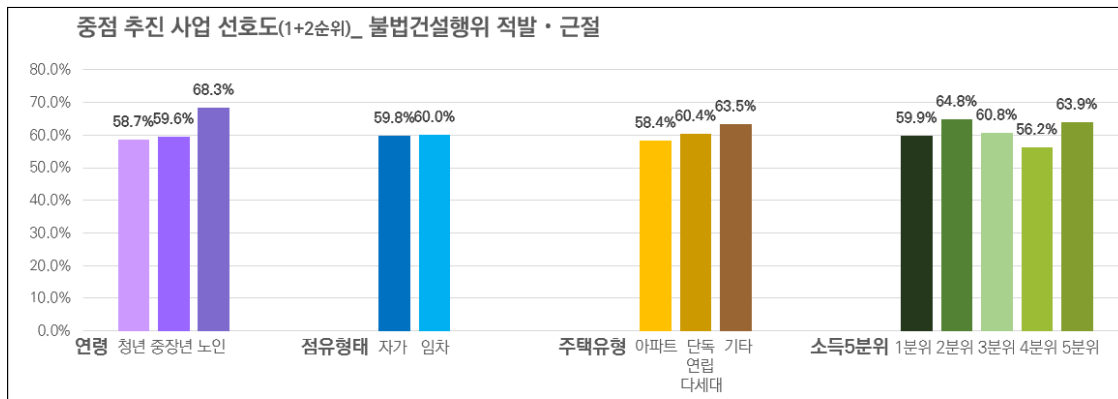
LH,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 18개 현장 수사의뢰_매일일보, 2023.03.29.

LH,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추진>>>신고건수 따라 입찰 시 가점_머니투데이, 2023.05.24.



4.1. 불법건설행위(불법노조) 적발·근절

- 정부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불법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금품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고, 건설협회와 LH 등 관계기관은 선진국형 상생 노사 관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임.
- 불법건설행위 적발·근절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에서 고르게 나타남.



[그림34] 불법건설행위 적발·근절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뽑았다_대한경제, 2023.01.11.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노조 횡포에 발주기관도 빨랐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4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TFT(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에 대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만·형사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LH “공사현장 82곳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270건 적발”_동아일보, 2023.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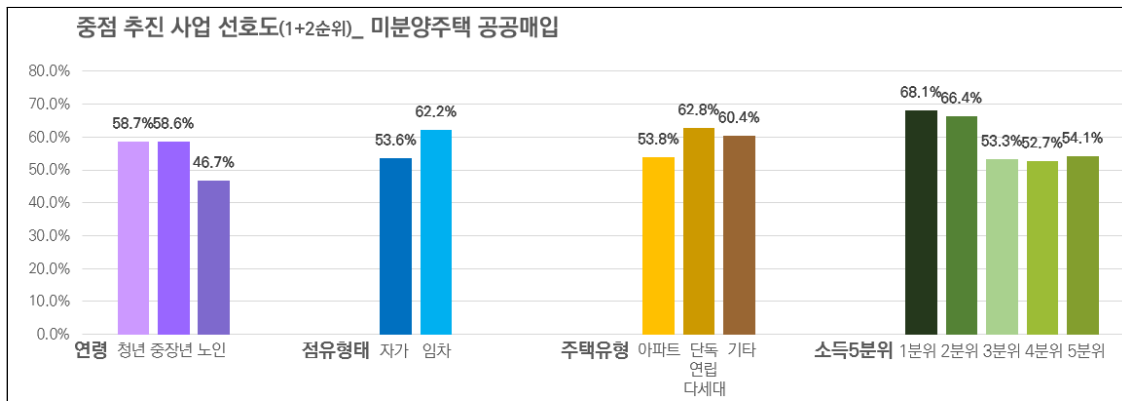
채용강요 51건, 월레비 강요 48건, 창원 공사 막은 노조원 수사의뢰, “공기관이 불법행위 처벌 앞장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국 공사현장 82곳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적발됐다. LH는 경남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을 중단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_대한경제, 2023.05.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신고가 의무화된다. LH는 계약 조건에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항목을 6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달 중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와 현장설명서에도 신고 의무 내용을 넣는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설사에는 신고횟수에 따라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4.2.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 2023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 리스크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었으나 연말로 가면서 분양가 상승과 공급 감소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양상을 보임.
- 미분양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임차 가구, 비아파트 거주가구,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35] 미분양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_이데일리, 2023.01.10.

윤대통령 지시에 공공임대 활용 검토, 건설 부양주거난 해소 두 토끼 노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미분양 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도 해결하면서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지역경제, 건설업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LH매입임대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양이다.

LH, 미분양 36채 공공임대용 매입... ‘건설사 특혜’ 비판도_동아일보, 2023.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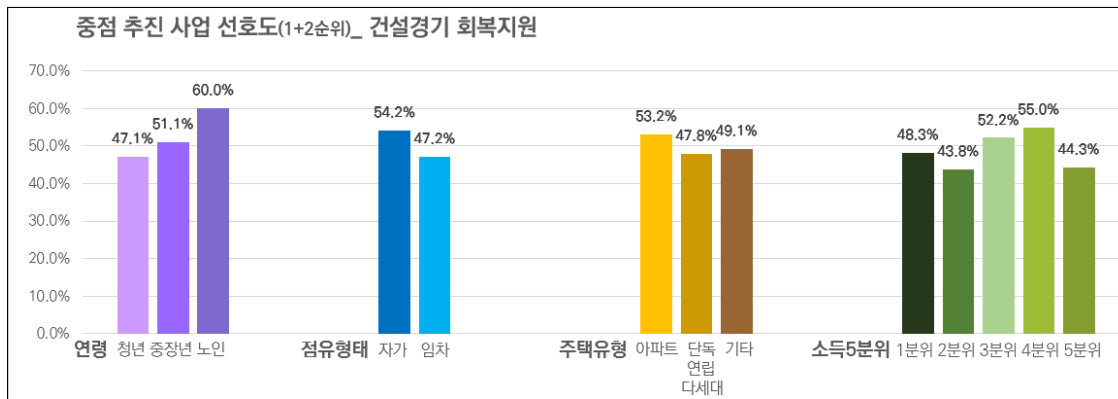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주거 안정뿐 아니라 미분양 급증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취지다.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_이투데이, 2023.0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당시 41가구를 분양했는데 전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LH가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매입한 것이다. LH는 이번에 매입한 물량을 청년 매입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3. 건설경기 회복지원

-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증가했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업체 부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건설경기 회복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노인층, 자가 가구, 아파트 거주 가구, 중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36] 건설경기 회복지원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건설경기 회복 돕는다”… 올해 10조원 공사·용역 발주_아주경제, 2023.02.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신규로 발주한다. 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등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한준 LH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발주를 확대하고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H, ‘파업 여파·경기침체’ 건설업 회복지원_서울경제TV, 2023.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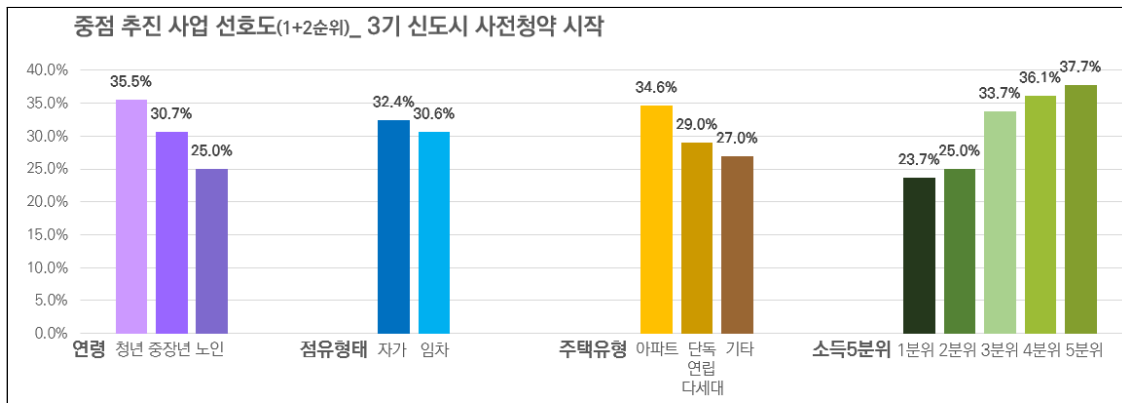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경기침체 등 영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공계약 건설현장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10조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 등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LH는 전국 관할현장에 기간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전하고 공공건설 참여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LH, 하반기 공사·용역 발주계획 공개… 8조2000억 규모_동아일보, 2023.07.1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 예정인 공사·용역 규모가 총 8조 2000억 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LH는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 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

4.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 사전청약은 주택 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 3기 신도시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토지보상 지연 및 공사비 부담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아파트 거주 가구,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37]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_이데일리, 2023.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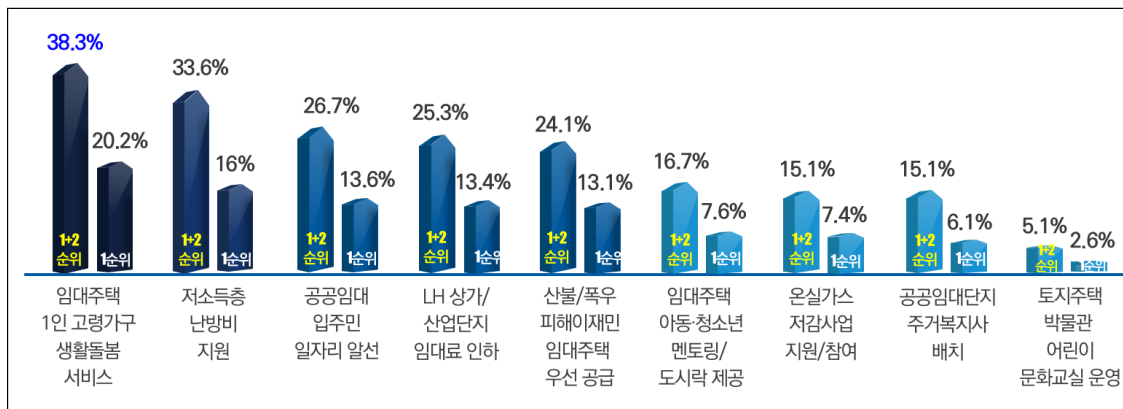
정부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광명과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의 사전청약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5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과천도 이번 정부 대책에서 사전청약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과천자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1만여 가구(인구 약 2만5000명)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최대’ 남양주 왕숙 첫삽… “공급난 해소 기대”_한국경제, 2023.10.16.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경기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다른 3기 신도시도 착공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9·26 공급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을 포함해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 LH가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 중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 서비스’가 향후에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로 꼽힘.
 -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비용 관련 지원사업에 높게 나타남.
 -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과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민 일자리 알선,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관리비 증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소득원 감소 등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그림38] 사회공헌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LH, ‘임대주택 고독사’ 스마트기술로 막는다_해럴드경제, 2023.03.09.

LH, 혼자 사는 임대주택 고령입주민에 생활서비스 제공_디지털타임스, 2023.0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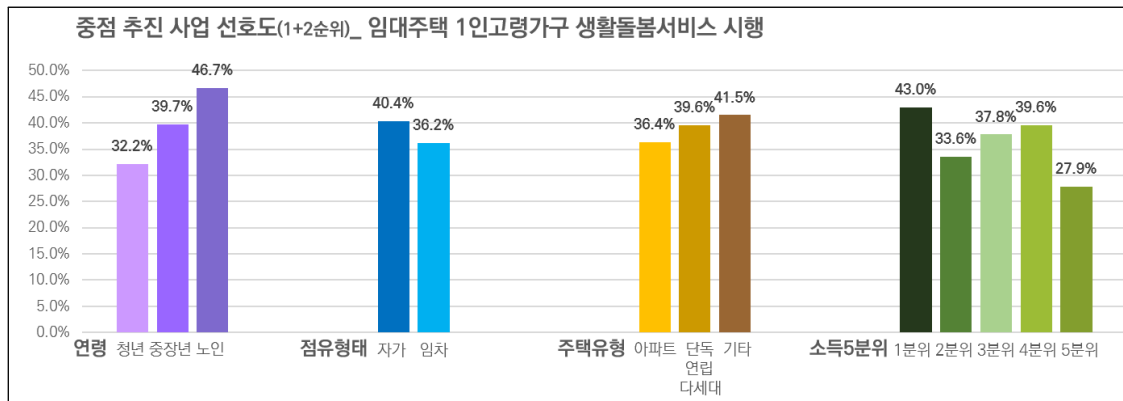
LH, 스마트홈 모바일앱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_뉴스핌, 2023.04.28.

LH, ‘Service Excellence Award’ CEO 부문 수상_한국경제, 2023.05.12.



5.1.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 통계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초고령 1인가구의 비중이 750만 2천 가구(2022년 말 기준) 중 18.6%를 차지한다고 발표함.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2.6%가 1인 가구로 나타나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임.
-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아파트 거주가구, 소득1분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9]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임대주택 고독사’ 스마트기술로 막는다_헤럴드경제, 2023.03.0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를 막을 스마트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입주민의 수도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등 돌봄 시스템으로 선제적인 공공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LH는 고독사 예후를 보이는 입주민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스마트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LH, ‘스마트홈 서비스’ 임대주택까지 확대_문화일보, 2023.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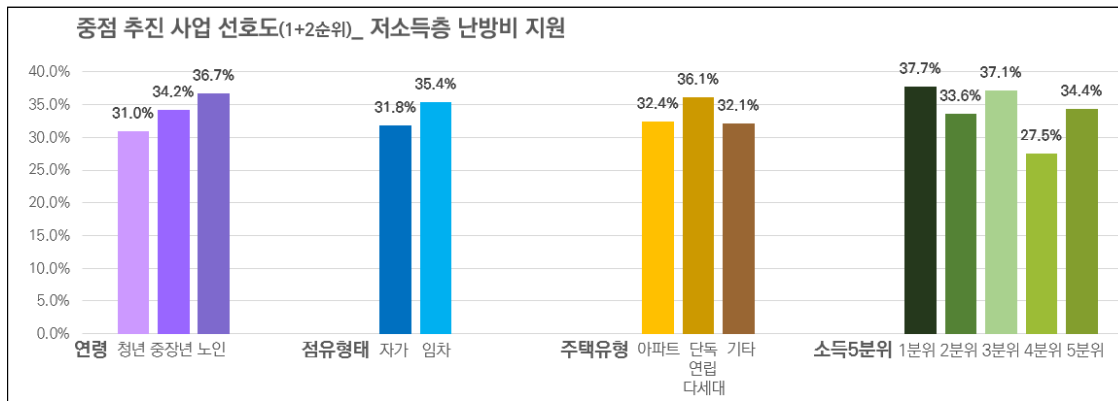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주택에만 적용했던 스마트홈 기술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국 임대주택 스마트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LH 스마트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등을 위한 고독사 방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LH, 수도권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에 생활돌봄서비스 제공_연합뉴스, 2023.07.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사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366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통해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강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5.2.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에너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LH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0]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660가구에 연탄·등유 기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었다_이투데이, 2023.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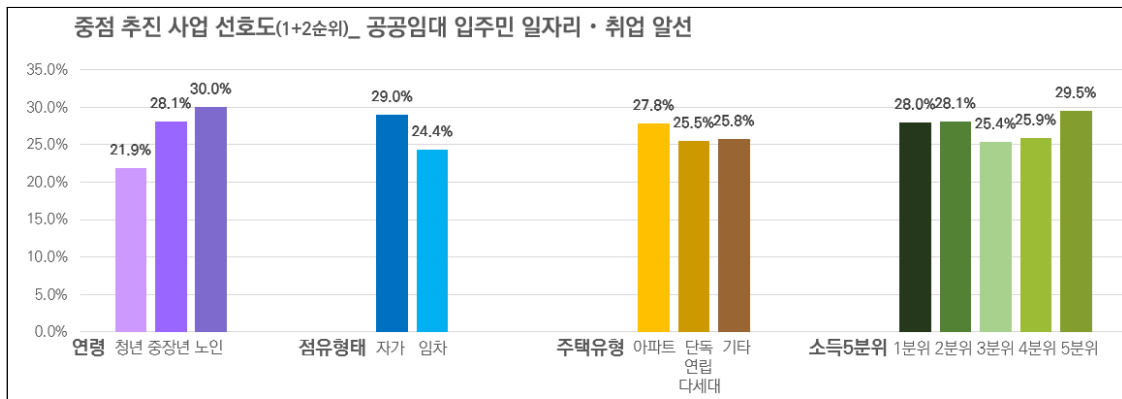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2만 장과 난방용 등유 11만2000리터 등 약 2억 원 상당 물품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품은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 내 취약계층 660가구에 전달됐다. LH는 최근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하반기에 실시하던 물품 기부 일정을 연초로 앞당겼다.

LH, 저소득층에 4개월치 난방비 지원_파이낸셜뉴스, 2023.03.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 서남부 및 충남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에는 월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3.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

-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일자리 알선 등의 복지·취업 연계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음.
-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일자리·취업 알선의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1]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작년 입주민 2355명에 일자리_헤럴드경제, 2023.03.20.

작년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2000여 명이 넘는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LH-해남군, 북일면 주거플랫폼사업 시행협약_남도일보, 2023.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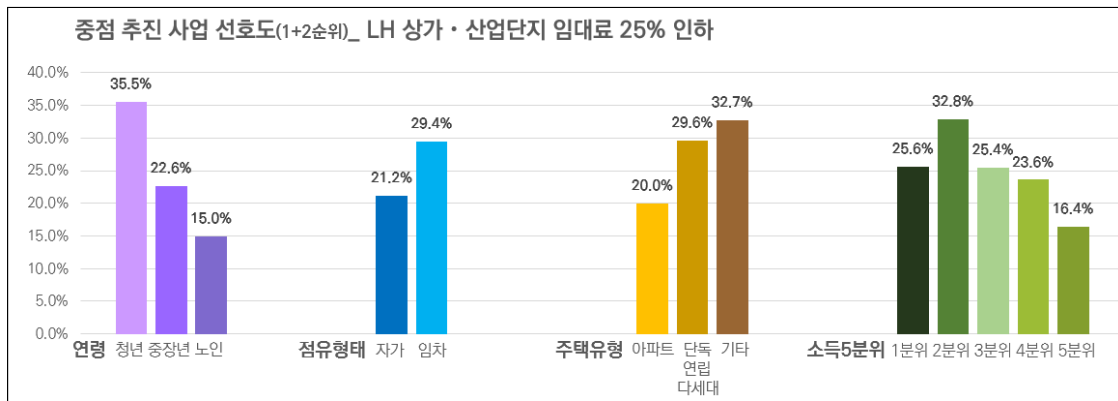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해남군과 해남군 북일면 주거플랫폼사업 시행협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주거플랫폼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일자리 등을 패키지로 공급한다.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 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다.

창원시·LH아파트 여성 취업 위해 뚝다_한국아파트신문, 2023.05.05.

경남 창원시는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5개 LH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기업체 협력망 회의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4월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취약계층 여성 대상 이동구직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파트 입주민 취업역량 강화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 등이다.

5.4.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 LH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때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와 임대조건을 동결해 오고 있음.
-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젊을수록, 임차 가구, 비아파트 거주 가구,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2]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종부세 감면액’ 임대주택·상가 임대료 인하에 재투자_이코노믹리뷰, 2023.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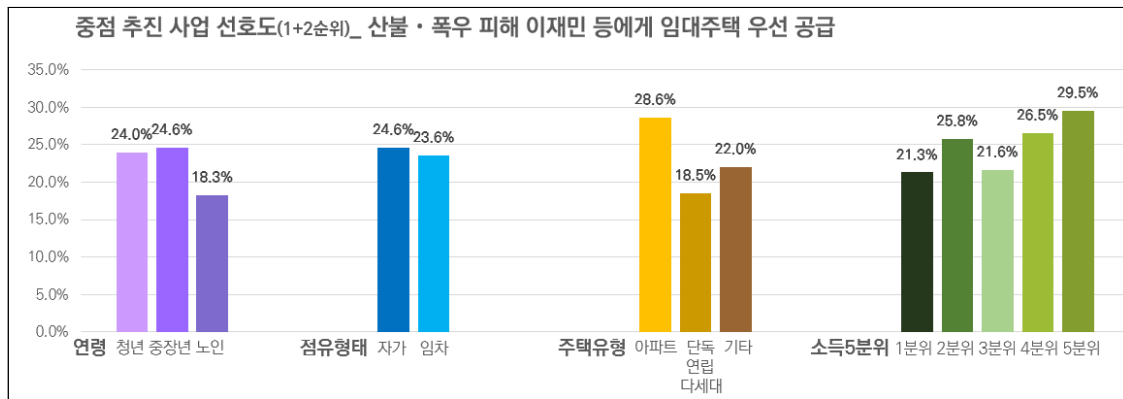
L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세제 보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위기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와 임대조건 동결조치를 적용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납부유예 및 인하,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오는 2024년 말까지 총 216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H, 임대상가 연말까지 임대료 25% 인하_헤럴드경제, 2023.06.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한다.

5.5. 산불·폭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 LH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 260호를 임시거주시설로 제공한 이후 현재까지 재난 이재민의 임시거처 등을 제공해 오고 있음.
- 산불·폭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청년·중장년층, 아파트 거주 가구,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3] 산불·폭우 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산불·수해 이재민들 “LH 임대주택 덕분에 일상 회복”_아시아투데이, 2023.04.05.

지난해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어 강원 삼척·동해·강릉에서도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당시 LH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발빠르게 주거 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긴급 주거지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곤장 이주 희망지역, 필요한 방 개수, 원하는 주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인근 지역 내 이재민에게 제공 가능한 사중 전세 물건을 찾고 보유 임대주택시설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도 보강하는 등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에 집중했다.

LH, 폭우피해 이재민 주택 1500여채 지원_대한경제, 2023.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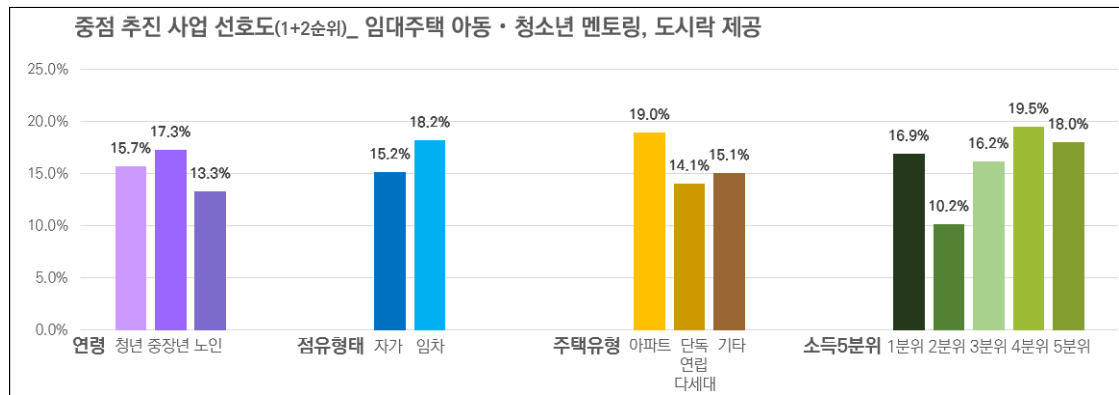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충북에 360여채, 경북에 1100여채의 긴급주거 주택을 확보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이에 앞서 실종인원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장병을 위한 물품도 경북 예천군에 전달했고 충북과 전북 등 피해지역에 재난 구호 키트를 지원했다.

포항에 지진 피해민 위한 공공임대 공급_파이낸셜뉴스, 2023.10.12.

오는 2026년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북 포항 흥해읍 학성리 일대에 2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100가구는 지진 피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된다. 또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약 390m도 새롭게 신설된다. 특히 지진 피해 주민 우선 공급물량을 당초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요건도 완화했다.

5.6. 임대주택 아동·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

-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을 1대 1로 매칭하여 각종 교육·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옴.
- 임대주택 아동·청소년 멘토링 및 도시락 제공에 대한 선호도는 임차 가구, 아파트 거주 가구, 중소득 이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4] 임대주택 아동·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아동·청소년에게 꿈을 전하는 ‘LH멘토와 꼬마친구’ 사업 18년째 진행_중앙일보, 2023.03.14.

‘LH 멘토와 꼬마친구’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18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LH의 대표적 주거서비스 사업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멘티와 멘토를 1:1 매칭해 멘티에게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멘토에게는 보람 있는 봉사활동과 예비 사회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지원한다.

LH, 여름방학 맞아 임대주택 아동 도시락 제공_파이낸셜뉴스, 2023.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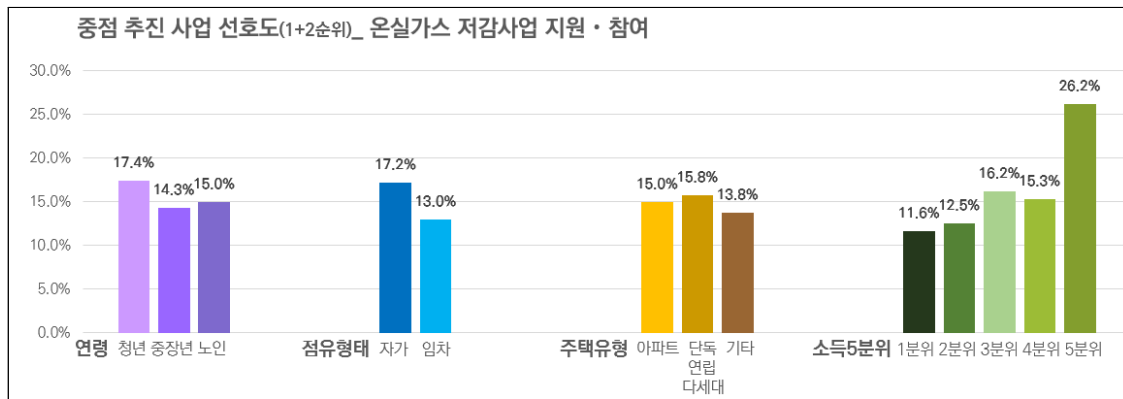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220개 임대주택단지 아동들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LH 행복한 밥상’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인 방학중 아이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LH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19년째 매년 진행하는 주거서비스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6만 230여명의 아동들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해왔다. 맞벌이·한부모·조손 가정 아동 등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지 내 조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직접 조리해 배식하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 이후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LH 파주 운정 해솔마을6단지, 방학 동안 결식아동에게 점심도시락 제공_매일일보, 2023.08.01.

경기 파주시 운정동 해솔마을6단지아파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LH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아동 등을 우선 지원하며 단지 내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해 급식 아동에게 방학 기간 동안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 제공해 오고 있다.

5.7.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여

- LH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흡수를 위한 다양한 계획·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여에 대한 선호도는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45]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여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파키스탄 슬럼가 주거환경 정비해 온실가스 줄인다_뉴스1, 2023.03.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키스탄 내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UN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 이에 LH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28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 감축 실적 전량은 LH에 귀속된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약 136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탄소배출 26% 절감”_문화일보, 2023.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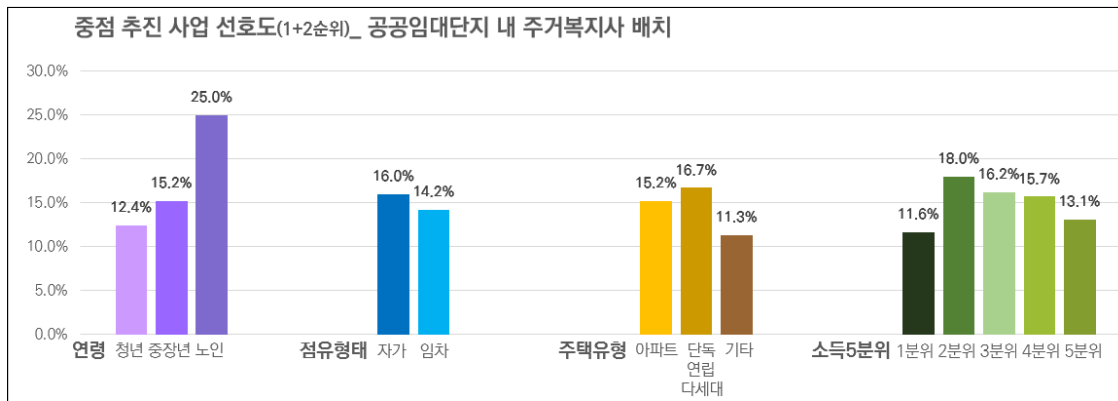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원 취급을 받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디지털화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다. LH는 이를 위해 밀양 나노융합 산단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한다. LH는 미세먼지 저감 및 산단 유출·유입 방지를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송전선으로 지중화를 통해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LH, 파키스탄 주거 개선·온실가스 저감 사업 시동..新 사업 모델 구축되나_파이낸셜뉴스, 2023.11.01.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동서발전이 추진 중인 파키스탄 내 슬럼 지역 주거환경과 연계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본격적인 닷을 올렸다. 해당 사업은 개발도상국 슬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 등으로 판매하는 LH의 신사업 모델이다.

5.8. 공공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 정부와 LH는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사 증원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공공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주택 거주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6] 공공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영구임대’ 주거복지 향상 추진...“인력 확충·제도개선 절실”_데일리안, 2023.02.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을 대폭 확대해 정부의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한다. 일선에서 영구임대 입주민들을 직접 마주하는 주거복지사들은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단지별 전문·보조 인력 확대 및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H, 영구임대주택 67곳에 주거복지사 배치_헤럴드경제, 2023.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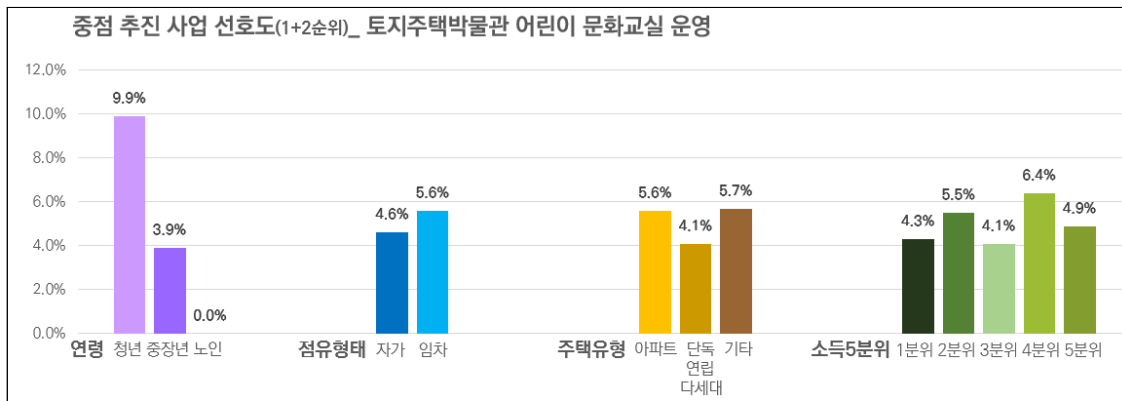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일부터 LH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LH가 추진 중인 영구 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상주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공동체 활성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되는 주거복지사는 가동불편, 저장강박, 정신건강 위기 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입주민 자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희룡 "LH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밀착돌봄 확대"_데일리안, 2023.11.08.

원 장관은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9. 토지주택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 LH 토지주택박물관은 문화재 조사·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소장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LH 토지주택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7] 토지주택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_뉴스, 2023.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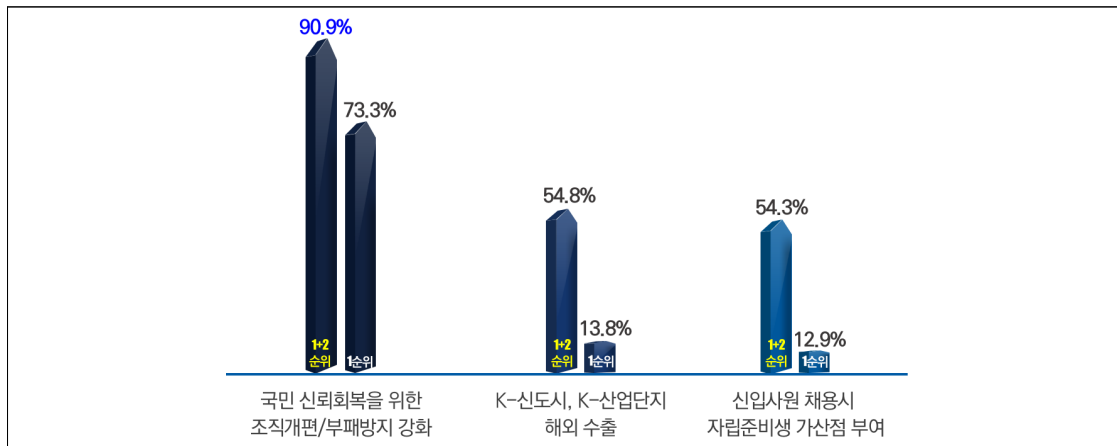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9일까지 경남 진주 LH토지주택박물관에서 2023년 상반기 어린이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문화교실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게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회당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 운영된다.

LH, 어린이날 맞아 ‘LH로 놀러와!’ 초청 문화행사 개최_천지일보, 2023.05.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일 가정의달을 기념해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로 놀러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로 놀러와!’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주지역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즐거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에도 지역아동센터 390여명이 행사에 초청됐다. ▲토지주택박물관 관람 ▲오케스트라 연주 ▲피터팬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6. 기업경영 관련 사업

- LH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개편, 부패방지 강화’가 꼽힘. 이는 LH에 대한 요구 사업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해당됨.
- 2021년 땅투기 사태 이후 LH에 대한 조직개편이 진행되어 오는 와중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전관 특혜 문제가 발생하면서 LH 쇄신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고조됨.
- 이에 LH는 주거품질 개선, 안전하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경영혁신에 나섰고 이를 통해 빠른 시일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계획임.



[그림48] 기업경영 관련 LH 중점추진 필요사업

LH, 베트남에 ‘K-신도시’ 수출...尹 ‘세일즈 외교’에 기여 AP신문, 2023.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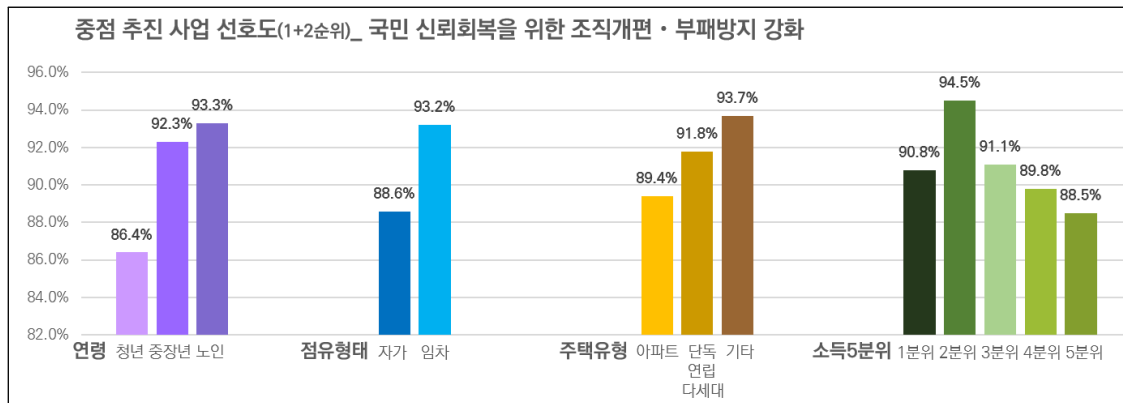
LH, 베트남 최초 ‘K-산단’ 선배...韓 기업 시장 진출 초석다진다_뉴스1, 2023.07.31.

제2의 ‘한강의 기적’ 꿈꾸는 베트남 건설시장_MoneyS, 2023.10.06.



6.1.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 혁신안 마련으로 이어질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음. 이에 계약업무 조달청 이관, 임직원 재취업 제한 강화, 민간의 공공주택 시행 등을 담은 LH 혁신안이 마련됨.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LH의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에 대한 선호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 가구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9]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개편·부패방지 강화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사장직속 ‘국민주거혁신실’ 신설 등 조직개편_아주경제, 2023.01.0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사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조직 혁신에 나섰다. LH는 혁신 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고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LH,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_헤럴드경제, 2023.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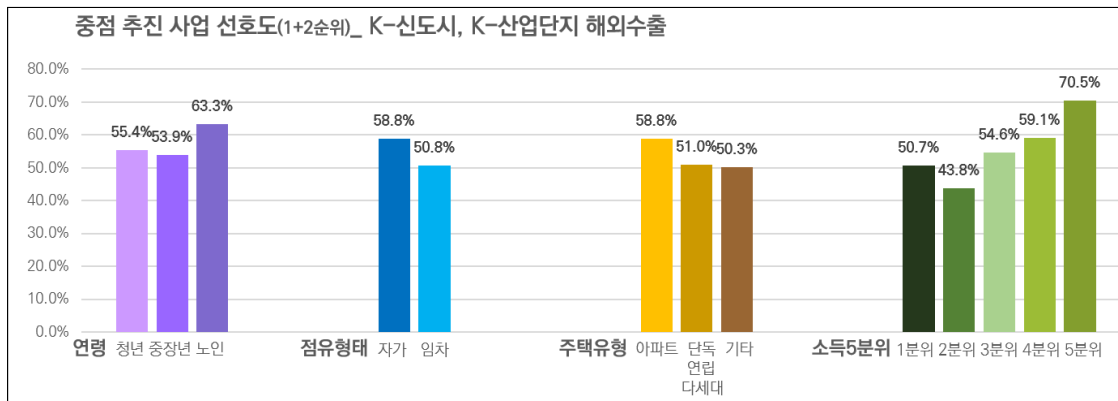
LH는 ISO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규격으로, 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조직신뢰 위기에 ‘배수진’ LH 전부 싹 바꾼다…‘조직개편’ 어디까지_동아일보, 2023.08.11.

이 사장은 그동안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만큼 자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보다 외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제외한 불필요한 업무도 모두 떼어낸다.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민간에 열든지 다른 기관에 이관할 방침이다.

6.2. K-신도시·K-산업단지 해외수출

- LH는 베트남에 동남아시아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인 경제협력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쿠웨이트 정부와 함께 K-신도시 건설(압둘라 신도시)을 추진 중임.
- K-신도시·K-산업단지 해외수출에 대한 선호도는 노인층, 자가 가구, 아파트 거주 가구,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50] K-신도시·K-산업단지 해외수출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베트남에 K-신도시 수출한다_아주경제, 2023.06.26.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식공에서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5개 지방성(박닌성, 타이빙성, 타잉화성, 하이즈엉성, 흥옌성)과 한-베 G2G 기반 도시·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해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새로운 도시모델로 발굴된 스마트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유무상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적극 활용해 원조사업과 투자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韓·베트남 경제 협산단에 15개 필지 공급_한국경제, 2023.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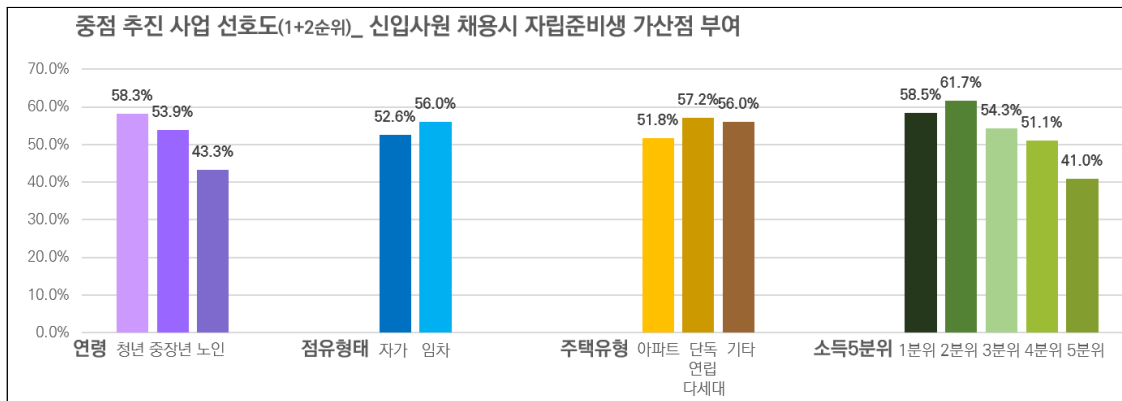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첫 공급을 시작한 뒤 두 번째 토지 매각이다. 이번 공급 대상은 산업단지 내 일반 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18만5962㎡)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로, 공급 가격은 ㎡당 116달러 수준이다. 토지 사용 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베트남 최초 ‘한국 산업단지’...“일본 산단 뛰어넘겠다”_MoneyS, 2023.10.06.

흥옌 클린산업단지 사업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최초로 짓는 산업단지다. LH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 정부·공공·민간 협력으로 추진하는 한-베 대표 경제협력 프로젝트다.

6.3.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 연속 감소 추세인 가운데 청년들을 고립시키고 은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LH의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에 대한 선호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차 가구, 중산층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51]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에 대한 중점추진 필요성 선호도 결과

LH 직원 230명 채용... 자립준비청년엔 5% 가산점_파이낸셜뉴스, 2023.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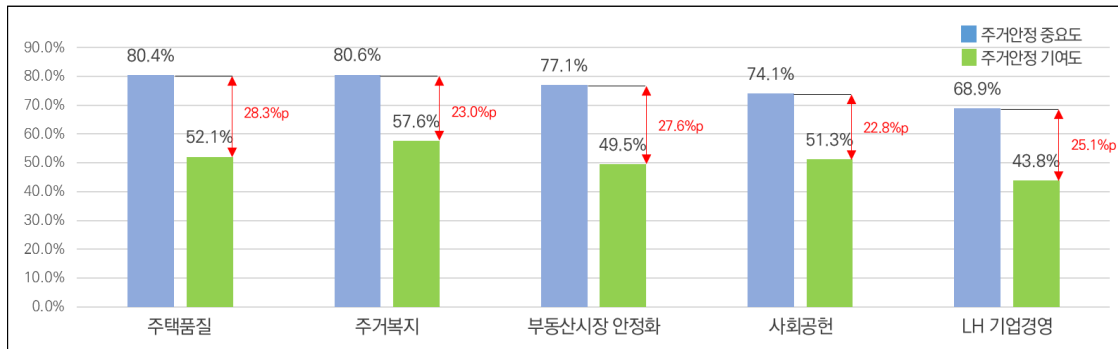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공급,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애인(7.2%)과 국가유공자(8%)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은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LH, 신입사원 230명 공채... 자립준비청년에 가산점_서울경제, 2023.07.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정책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 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신입 직원 채용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LH는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 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7. 시사점

- LH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주거복지와 주택품질 관련 사업이며, 국민 주거안정의 기여는 주거복지 사업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
- 다만,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과 실제 기여도 간의 격차가 존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실정
 - 주거안정 중요도와 주거안정 기여도 간의 인식 차이는 국민이 생각하는 정책·사업과 LH 언론보도가 상호 매칭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 기대와 실제 LH 추진사업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주거복지’와 ‘주택품질’ 관련 전략적 홍보를 통해 LH 역할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 관련 LH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큰 만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이재민’ 관련 LH 역할을 강화·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52] LH 관련 언론보도 기사 유형별 주거안정에 대한 중요도와 기여도 조사결과 차이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조직개편 및 부패방지 강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한 LH 경영 필요
 -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주택품질, 부동산시장 안정화, 사회공헌 관련 다양한 사업에도 LH 혁신에 대한 국민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주거복지 및 주택품질 관련 LH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혁신 절실
 - LH 추진사업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 확보, LH가 공급한 주택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리·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함.

제4장 국민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분석

1. 조사개요

■ 주거불평등 문제 및 정기적·주기적 조사의 필요성

- 불평등 심화는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 확대를 의미하며,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안, 정책 왜곡 등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 주거불평등이란 경제력이 상이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 및 소비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주거 질에 대한 불균형에 해당
-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경제 규모가 성장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계층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 국민 통합과 국민 주거행복권 확보를 위해서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조사 개요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또는 배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불평등 인식 및 전망, 주거불평등에 따른 심리·감정 상태, 주거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필요 정책 등을 조사
 -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규모,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 유형별 주택수를 반영하여 표본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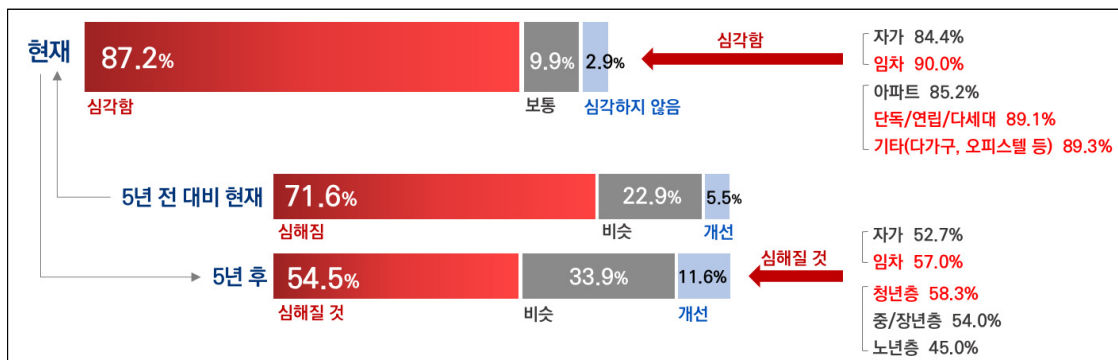
[표4]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수도권 거주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표집방법	지역별(서울, 경기, 인천), 점유 형태별(자가, 임차), 주택 유형별(아파트, 비아파트)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웹조사
조사기간	2023년 11월 22일 ~ 12월 8일
조사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2. 주거불평등 인식수준

■ 주거불평등 심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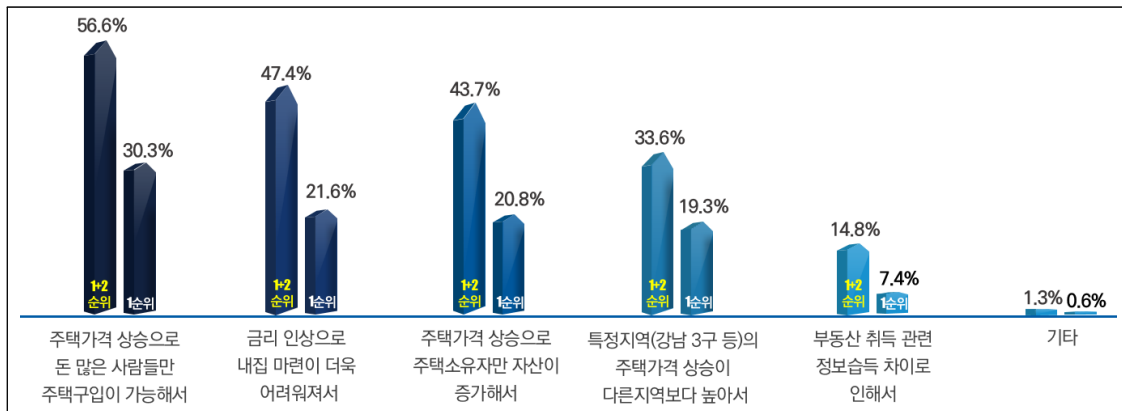
- 수도권 거주가구의 87.2%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
 - 특히, 임차가구(90.0%),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거주가구(89.1%), 다가구주택·오피스텔 거주가구(89.3%)에서 주거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71.6%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심해진 것으로 인식
- 54.5%는 주거불평등 수준이 향후 5년 뒤 더 악화될 것으로 인식
 - 임차가구(57.0%)와 청년층(58.3%)에서 주거불평등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그림53] 과거, 현재, 미래의 주거불평등 인식 수준

■ 주거불평등 심화 원인

- 주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집 마련 여건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인식
 -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내집마련이 가능해져서’, ‘금리 인상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져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소유자의 자산이 증가해서’, ‘특정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등이 원인으로 꼽힘.
 - 특히, 서울(58.4%)과 인천(57.8%) 거주자, 임차가구(60.0%)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집마련 어려움’이 주거불평등 심화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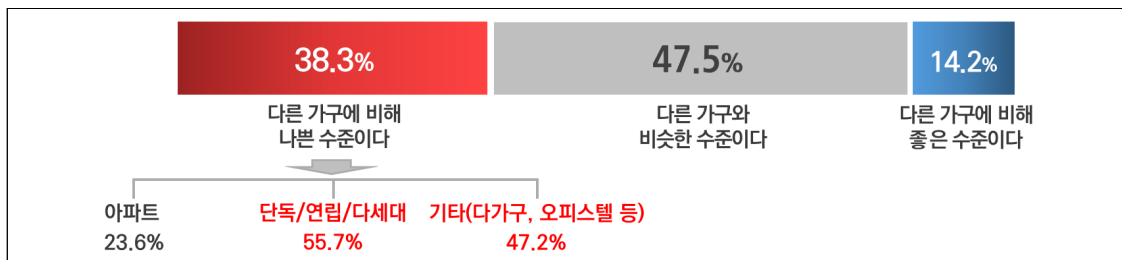


[그림54] 주거불평등 심화 원인

3. 주거불평등 원인 및 심각성, 10년 후 기대

■ 우리 가족의 상대적 주거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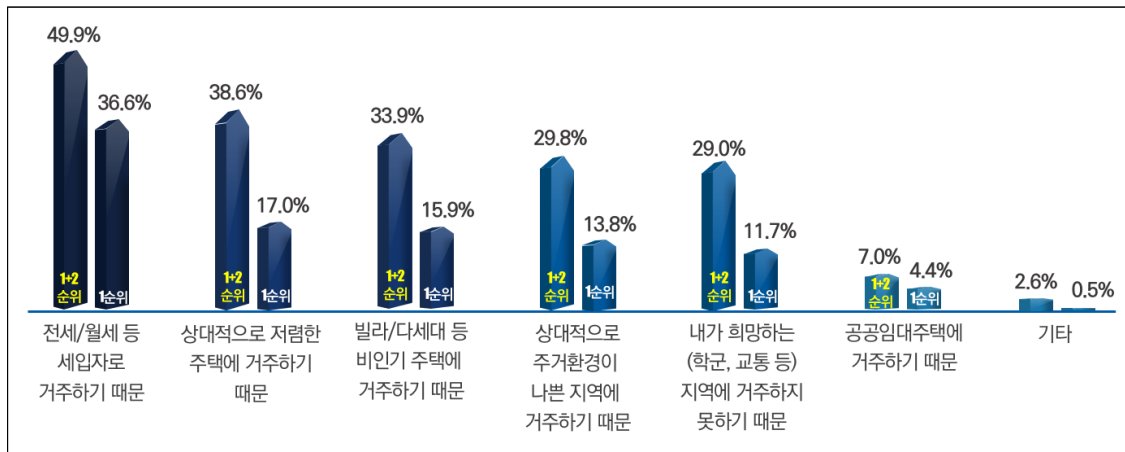
- 현재의 주거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가구 38.3%
 - 반면, 다른 가족에 비해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14.2%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아파트(23.6%) 보다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5.7%)과 다가구주택·오피스텔(47.2%)의 비아파트 거주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그림55]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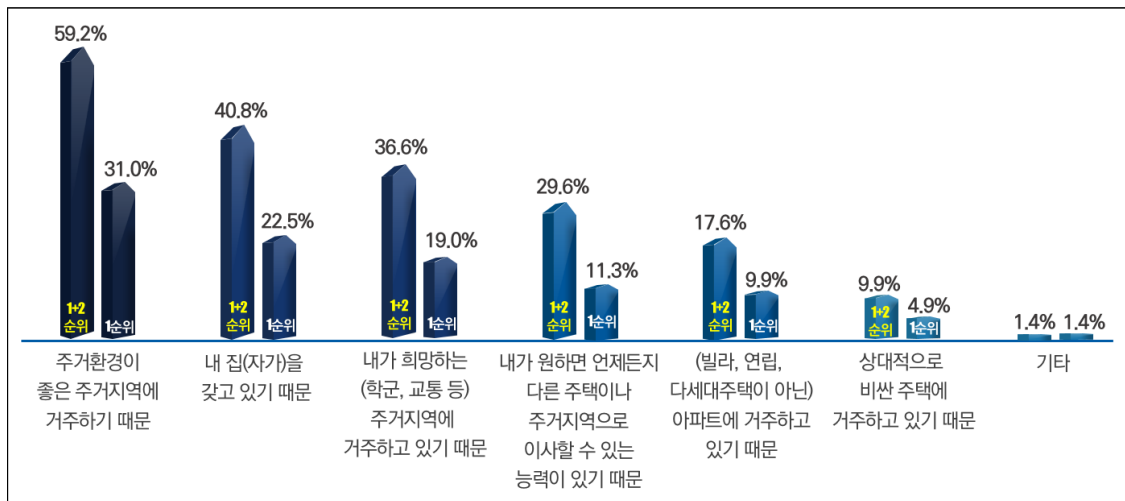
■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월세 등 세입자로 거주하기 때문’
 - 2가구 중 1가구는 ‘전세·월세 등 세입자로 거주하기 때문’에 가족의 주거생활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56]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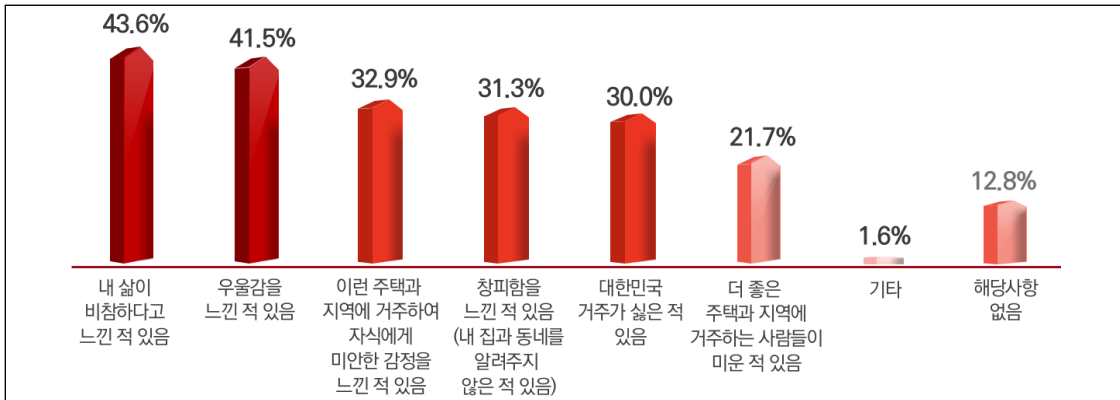
- 반면,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
 - 10가구 중 6가구가 ‘주거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족의 주거생활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내 집(자가)을 갖고 있기 때문’, ‘내가 희망하는(학군, 교통 등)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주택이나 주거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57]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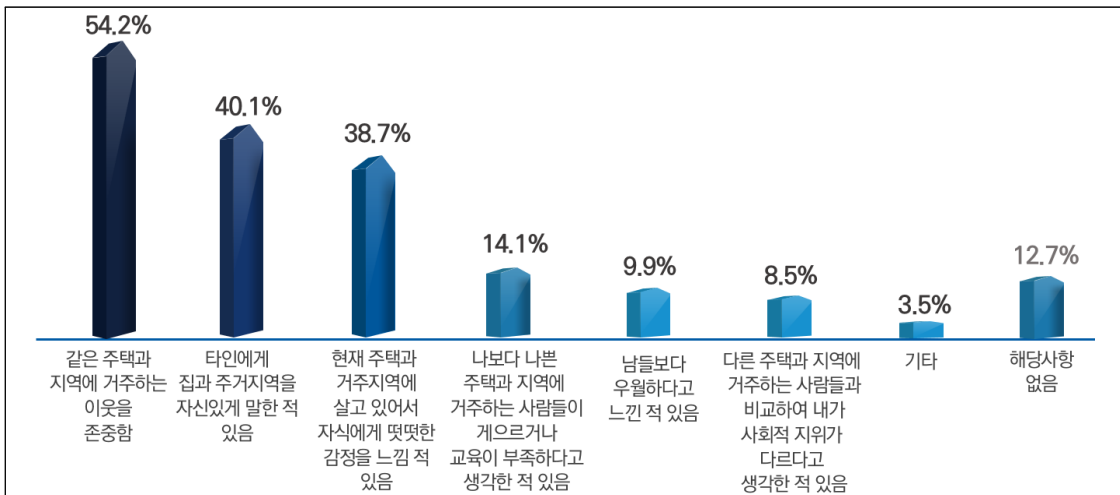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느끼는 감정

-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87.2%가 ‘비참함’, ‘우울감’ 등을 경험
 -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43.6%로 가장 많고, 우울감을 느낌(41.5%),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낌(32.9%)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임차가구, 비아파트거주 가구, 저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그림58]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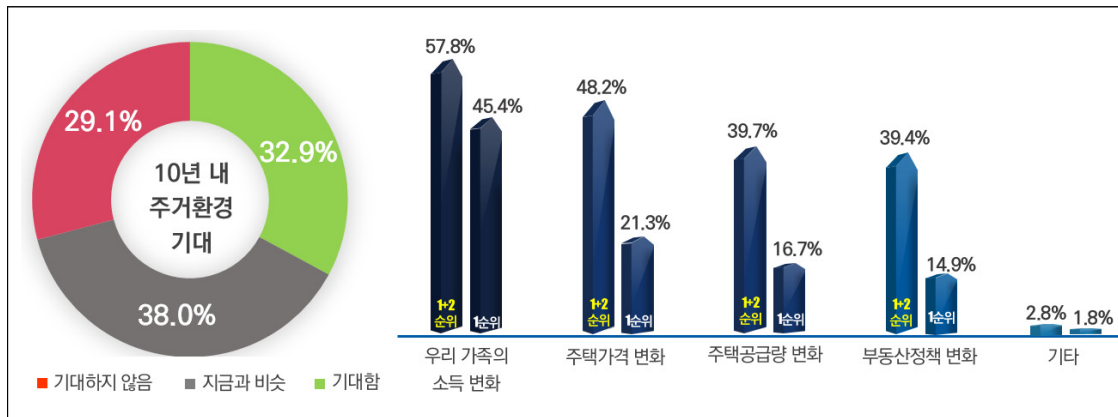
-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감’, ‘우월감’ 등의 감정을 경험
 -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이웃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4.2%이며, 다음으로 남들에게 주거지를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있는 경우가 40.1%로 나타남.



[그림59] 타 가족 대비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경험

■ 10년 내 타인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기대

- 10가구 중 3가구 정도만이 10년 내 타인과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주거환경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연령층이 젊을수록, 서울보다는 인천과 경기 거주가구에서, 1인가구 보다는 다인가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인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기대 이유는 ‘가족의 소득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가격 변화’, ‘주택공급량 변화’, ‘부동산정책 변화’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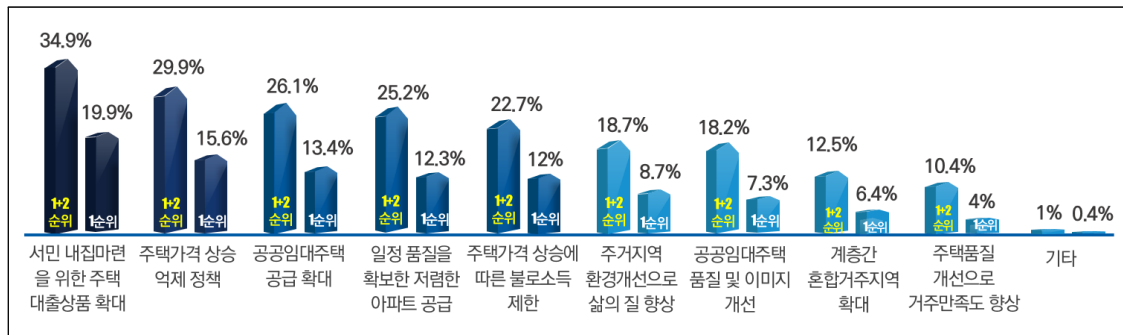


[그림60] 10년 내 타인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마련에 대한 기대감 및 그 이유

4. 시사점

■ 주거불평등 완화·해소는 내 집 마련 여건 확대·강화에서부터 시작

- 주거불평등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대출 상품 확대’로서 저금리, 장기대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나타남.
-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과 공공주택의 품질 및 이미지 개선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61] 주거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선호 정책

■ 주거불평등 원인 및 주거여건 인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정책 개발 필요

- 중·저소득 가구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상품 공급과 주택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아파트 밀집지역 및 불량한 주거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사업과 더불어 거주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사업과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제5장 결론

- 2023년도 부동산시장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도, LH 추진사업에 대한 선호도, 주거불평등에 대한 심리적 상태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함.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LH의 공적 역할 확대

-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LH의 역할 강화
 - 설계, 시공, 감리 상호 간 업무연계 프로세스 개선,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생산성 저하 문제 극복을 위한 건설인력관리체계 확립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LH 사업현장에 우선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불공정 관행 철폐를 위한 선도적 노력
 - LH 건설현장에 대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으로 공공기관-건설대기업-중소 건설업체로 이어지는 중대재해 예방의 선순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건설 사업장까지 건설안전 환경이 확산되도록 공공역할 수행이 필요함.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LH 임직원의 전관예우 철폐, 불법 하도급 제재 등 건설 선진화를 위한 LH의 자구노력과 협력건설사를 포함한 공정계약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건설경기 회복 및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역할 수행
 -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주택산업 사업성 저하, 지방 건설기업 부도,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자금 유동성 지원, 건설투자 확대 및 사업비 조기 집행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가격·유형의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강화

○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유형의 주택 공급 촉진

- 전·월세 사기로 인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 및 공급 절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 커짐.
-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 한시적 완화가 필요함.
- 전·월세 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 안심주택 확보 등을 위한 LH의 매입임대주택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주거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해 주택공급(물량 중심) 중심에서 내 집 마련 여건 개선(금융지원 확대)으로의 정책 전환

- 주택보급률이 100% 수준까지(지방은 100% 초과) 향상되었고, 노동소득으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주택정책 전환이 요구됨.
- 물량 중심 공급에서 주택가격의 다양화 및 주택자금마련 방식의 다양화에 기반한 주택금융패키지 공급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이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청약상품의 다양화 및 확대 보급이 필요함.
- ‘뉴·홈’과 같이 내 집 마련 희망 가구의 자산과 소득, 기대수입 등을 고려한 공공분양주택 상품의 확대 공급이 필요함.
- 다만, 중·저소득 가구가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믿을 수 있는 주택상품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상품의 연계가 필요함.
- ‘뉴·홈’과 같은 모기지가 수반되는 주택공급은 LH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융당국 및 금융권과의 협업이 요구됨.

■ LH의 공공기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LH의 다양한 역할·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LH 공익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필요

- 공공성에 기반한 LH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택건설기업 이미지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택 관련 부정적 이슈 발생 시 LH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LH가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가 필요함.
 - 예로서 LH의 지역균형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극히 미진한 실정임. 현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LH 관련업무에 대한 국민 홍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주택공급 분야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LH 역할을 홍보하는 등 LH의 공익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LH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국민 공감형 공익사업 지속 확대
- 현재 국민에게 각인된 LH의 부정적 이미지 희석 및 LH의 공익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이 요구됨.
 - 청년, 신혼부부,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이주민 등을 위한 공익사업 확대와 적절한 홍보를 통해 LH 기업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Reference

【단행본】

- 김남정(2020), 「부동산 논쟁의 마침표」, 서울: 좋은땅.
- 김성수(2020),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상생의 정치경제학을 위하여」, 서울: 박영사.
- 이정우(2021),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경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리처드 플로리다(2020),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서울: 매경출판.
- 파쿤도 알바레도 외(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 경기: 글항아리.

【연구보고서】

- 강석구 외(2021),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호기(2020), 서울시 공공분양주택의 대안적 모델 비교 및 시사점, 주택공급제도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연구원.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2021),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이병찬 외(2020),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정해식 외(202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문】

- 강성훈(2017),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5(4), 5-19.
- 구찬동·오정일(2011), “우리나라의 포괄소득 측정 및 정책적 함의”, 행정논총, 49(3), 251-273.
- 김낙년(2016),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40(3), 393-429.
- 이석화·임재만(2019), “서민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공적 주택금융 개선 방안”, 부동산학연구, 25(3), 39-57.
- 정의철 외(2009),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17(2), 5-28.
- 황선재(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5-25.

【외국문헌】

- Arundel, R.(2017), Equity Inequity: Housing Wealth Inequality, Inter and Intra-generational Divergences, and the Rise of Private Landlordism. *Housing, Theory and Society*, 34(2), 176-200.
- Atkinson, A. B.(1983),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Clarendon Press.
- Deaton, A. & Paxson, C. H.(1993), Intertemporal choice and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384-394.
- Kawachi, I and Kennedy, B. P.(1999),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pathways and mechanisms, *Health Serv Res*, Apr; 34(1 Pt 2), 215-227.
- Sandel Michael J.(1996),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2012), *The Price of Inequality*. London: Penguin.
- World Inequality Lab.(2021),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부 록_설문조사 결과(통계표 및 질문지) Appendix

■ 응답자 특성표

구분		사례수	
		(명)	(%)
전체		(1,000)	100.0
연령별	청년층	(242)	24.2
	중/장년층	(698)	69.8
	노년층	(60)	6.0
연령별(세부)	20대	(179)	17.9
	30대	(192)	19.2
	40대	(217)	21.7
	50대	(224)	22.4
	60대	(188)	18.8
지역별	서울	(365)	36.5
	인천	(116)	11.6
	경기	(519)	51.9
가구원 수별	1인가구	(271)	27.1
	다인가구	(729)	72.9
가구원 수별(세부)	1명(1인가구)	(271)	27.1
	2명	(178)	17.8
	3명	(257)	25.7
	4명 이상	(294)	29.4
주거 점유 형태별	자가	(500)	50.0
	임차	(500)	50.0
	아파트	(500)	50.0
주택 유형별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4.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5.9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0.7
	2분위(268~402만원)	(128)	12.8
	3분위(403~588만원)	(291)	29.1
	4분위(589~1,042만원)	(313)	31.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6.1
본인(응답자)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8)	16.8
	대학교 졸업	(832)	83.2
가구주 직업	자영업	(87)	8.7
	블루칼라	(140)	14.0
	화이트칼라	(635)	63.5
	무직/은퇴/기타	(138)	13.8
	상용근로자	(669)	66.9
가구주 고용 형태	임시·일용근로자	(67)	6.7
	자영업자	(125)	12.5
	기타(무직, 가사, 학생 등)	(139)	13.9

■ 주택 가격 및 전월세 전망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는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분		사례수 (명)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	평균 (개월)
전체		(1,000)	11.4	24.1	18.0	25.7	20.8	83
연령	청년층	(242)	25.2	39.7	21.1	7.9	6.2	41
	중/장년층	(698)	7.4	19.3	17.2	31.5	24.5	94
	노년층	(60)	1.7	16.7	15.0	30.0	36.7	126
지역	서울	(365)	12.3	23.0	19.7	23.8	21.1	86
	인천	(116)	10.3	27.6	14.7	24.1	23.3	85
	경기	(519)	11.0	24.1	17.5	27.4	20.0	8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8.5	37.3	19.9	13.7	10.7	56
	다인가구	(729)	8.8	19.2	17.3	30.2	24.6	94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6.0	13.6	14.8	32.2	33.4	115
	임차	(500)	16.8	34.6	21.2	19.2	8.2	51
주택유형	아파트	(500)	9.4	18.4	16.0	32.4	23.8	91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2.3	25.2	20.5	22.3	19.6	84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5.7	39.6	18.9	11.9	13.8	6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5.5	32.9	18.4	16.9	16.4	70
	2분위(268~402만원)	(128)	14.8	28.1	20.3	15.6	21.1	80
	3분위(403~588만원)	(291)	10.7	21.3	17.2	27.5	23.4	95
	4분위(589~1,042만원)	(313)	8.0	20.1	17.9	33.9	20.1	8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1.5	19.7	16.4	26.2	26.2	88

귀하께서는 내 집 마련(자가주택 보유)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다고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	② 필요하지 않음 (%)	③ 보통 (%)	④ 필요함 (%)	⑤ 매우 필요함 (%)	불필요 (①+②) (%)	보통 (③) (%)	필요 (④+⑤) (%)	5점 평균 (점)
전체		(1,000)	0.9	3.2	13.0	41.6	41.3	4.1	13.0	82.9	4.19
연령	청년층	(242)	0.4	2.9	12.8	36.4	47.5	3.3	12.8	83.9	4.28
	중/장년층	(698)	0.9	2.9	12.3	43.7	40.3	3.7	12.3	84.0	4.20
	노년층	(60)	3.3	8.3	21.7	38.3	28.3	11.7	21.7	66.7	3.80
지역	서울	(365)	0.3	3.6	11.8	41.1	43.3	3.8	11.8	84.4	4.24
	인천	(116)	3.4	2.6	16.4	36.2	41.4	6.0	16.4	77.6	4.09
	경기	(519)	0.8	3.1	13.1	43.2	39.9	3.9	13.1	83.0	4.18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4	4.8	18.1	38.4	38.4	5.2	18.1	76.8	4.10
	다인가구	(729)	1.1	2.6	11.1	42.8	42.4	3.7	11.1	85.2	4.2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0	2.2	10.0	44.6	42.2	3.2	10.0	86.8	4.25
	임차	(500)	0.8	4.2	16.0	38.6	40.4	5.0	16.0	79.0	4.14
주택유형	아파트	(500)	1.0	2.8	10.0	45.6	40.6	3.8	10.0	86.2	4.22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2	4.7	17.0	37.0	40.2	5.9	17.0	77.1	4.1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1.3	13.8	39.0	45.9	1.3	13.8	84.9	4.3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4	4.8	17.9	40.1	35.7	6.3	17.9	75.8	4.04
	2분위(268~402만원)	(128)	0.8	1.6	14.8	34.4	48.4	2.3	14.8	82.8	4.28
	3분위(403~588만원)	(291)	0.0	4.8	12.4	40.5	42.3	4.8	12.4	82.8	4.20
	4분위(589~1,042만원)	(313)	1.3	1.9	10.5	46.6	39.6	3.2	10.5	86.3	4.2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0.0	8.2	41.0	49.2	1.6	8.2	90.2	4.36

(자가 base)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또는 지역의 1년 뒤 주택가격은 얼마나 하락 혹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매우 하락할 것이다 (%)	② 약간 하락할 것이다 (%)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약간 상승할 것이다 (%)	⑤ 매우 상승할 것이다 (%)	하락 (①+②) (%)	비슷 (③) (%)	상승 (④+⑤) (%)	5점 평균 (점)
전체		(500)	4.8	17.4	45.4	28.4	4.0	22.2	45.4	32.4	3.09
연령	청년층	(48)	2.1	10.4	35.4	43.8	8.3	12.5	35.4	52.1	3.46
	중/장년층	(415)	5.3	18.3	45.8	27.0	3.6	23.6	45.8	30.6	3.05
	노년층	(37)	2.7	16.2	54.1	24.3	2.7	18.9	54.1	27.0	3.08
지역	서울	(174)	5.2	18.4	43.7	30.5	2.3	23.6	43.7	32.8	3.06
	인천	(67)	4.5	20.9	31.3	37.3	6.0	25.4	31.3	43.3	3.19
	경기	(259)	4.6	15.8	50.2	24.7	4.6	20.5	50.2	29.3	3.09
가구원 수	1인가구	(52)	5.8	9.6	59.6	23.1	1.9	15.4	59.6	25.0	3.06
	다인가구	(448)	4.7	18.3	43.8	29.0	4.2	23.0	43.8	33.3	3.10
주택유형	아파트	(393)	5.1	17.6	43.0	30.0	4.3	22.6	43.0	34.4	3.11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80)	5.0	18.8	50.0	22.5	3.8	23.8	50.0	26.3	3.0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27)	0.0	11.1	66.7	22.2	0.0	11.1	66.7	22.2	3.11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46)	6.5	10.9	50.0	32.6	0.0	17.4	50.0	32.6	3.09
	2분위(268~402만원)	(37)	2.7	5.4	64.9	27.0	0.0	8.1	64.9	27.0	3.16
	3분위(403~588만원)	(159)	5.7	18.2	46.5	27.7	1.9	23.9	46.5	29.6	3.02
	4분위(589~1,042만원)	(211)	5.2	20.9	40.8	27.0	6.2	26.1	40.8	33.2	3.08
	5분위(1,043만원 이상)	(47)	0.0	14.9	42.6	34.0	8.5	14.9	42.6	42.6	3.36

(임차인 base)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또는 지역의 1년 뒤 전세가격(월세 포함)은 얼마나 하락 혹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매우 하락할 것이다 (%)	② 약간 하락할 것이다 (%)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약간 상승할 것이다 (%)	⑤ 매우 상승할 것이다 (%)	하락 (①+②) (%)	비슷 (③) (%)	상승 (④+⑤) (%)	5점 평균 (점)
전체		(500)	4.6	16.4	38.0	35.0	6.0	21.0	38.0	41.0	3.21
연령	청년층	(194)	2.1	12.9	33.5	43.8	7.7	14.9	33.5	51.5	3.42
	중/장년층	(283)	6.4	19.1	41.7	28.3	4.6	25.4	41.7	32.9	3.06
	노년층	(23)	4.3	13.0	30.4	43.5	8.7	17.4	30.4	52.2	3.39
지역	서울	(191)	3.7	14.1	38.2	36.6	7.3	17.8	38.2	44.0	3.30
	인천	(49)	6.1	16.3	36.7	32.7	8.2	22.4	36.7	40.8	3.20
	경기	(260)	5.0	18.1	38.1	34.2	4.6	23.1	38.1	38.8	3.15
가구원 수	1인가구	(219)	0.5	13.2	39.3	38.8	8.2	13.7	39.3	47.0	3.41
	다인가구	(281)	7.8	18.9	37.0	32.0	4.3	26.7	37.0	36.3	3.06
주택유형	아파트	(107)	6.5	16.8	37.4	35.5	3.7	23.4	37.4	39.3	3.13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261)	5.0	17.2	38.3	32.2	7.3	22.2	38.3	39.5	3.2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32)	2.3	14.4	37.9	40.2	5.3	16.7	37.9	45.5	3.3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61)	0.6	14.3	44.1	31.7	9.3	14.9	44.1	41.0	3.35
	2분위(268~402만원)	(91)	3.3	12.1	44.0	36.3	4.4	15.4	44.0	40.7	3.26
	3분위(403~588만원)	(132)	9.1	21.2	33.3	32.6	3.8	30.3	33.3	36.4	3.01
	4분위(589~1,042만원)	(102)	4.9	17.6	32.4	40.2	4.9	22.5	32.4	45.1	3.23
	5분위(1,043만원 이상)	(14)	14.3	14.3	14.3	50.0	7.1	28.6	14.3	57.1	3.21

(자가 base)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대출금리 변화	주택공급량 변화	우리나라 경기전망	정부의 조세정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소비자물가 수준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	기타
		(명)	(%)	(%)	(%)	(%)	(%)	(%)	(%)
전체		(500)	63.6	40.2	40.0	27.8	16.4	11.0	1.0
연령	청년층	(48)	45.8	41.7	41.7	29.2	22.9	18.8	0.0
	중/장년층	(415)	65.5	38.6	40.0	27.7	16.4	10.6	1.2
	노년층	(37)	64.9	56.8	37.8	27.0	8.1	5.4	0.0
지역	서울	(174)	60.9	42.0	36.8	31.6	20.1	8.6	0.0
	인천	(67)	61.2	43.3	46.3	22.4	10.4	14.9	1.5
	경기	(259)	66.0	38.2	40.5	26.6	15.4	11.6	1.5
가구원 수	1인가구	(52)	69.2	46.2	25.0	32.7	15.4	9.6	1.9
	다인가구	(448)	62.9	39.5	41.7	27.2	16.5	11.2	0.9
주택유형	아파트	(393)	64.6	37.7	41.2	26.2	17.3	12.2	0.8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80)	58.8	50.0	33.8	35.0	13.8	7.5	1.3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27)	63.0	48.1	40.7	29.6	11.1	3.7	3.7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46)	58.7	37.0	39.1	30.4	19.6	13.0	2.2
	2분위(268~402만원)	(37)	51.4	56.8	37.8	32.4	16.2	5.4	0.0
	3분위(403~588만원)	(159)	64.2	45.9	40.3	18.9	17.0	13.2	0.6
	4분위(589~1,042만원)	(211)	64.5	35.1	43.1	32.2	16.6	7.6	0.9
	5분위(1,043만원 이상)	(47)	72.3	34.0	27.7	31.9	10.6	21.3	2.1

[1순위]

구분		사례수	대출금리 변화	우리나라 경기전망	주택공급량 변화	정부의 조세정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소비자물가 수준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	기타
		(명)	(%)	(%)	(%)	(%)	(%)	(%)	(%)
전체		(500)	33.0	22.6	20.6	12.6	6.0	4.6	0.6
연령	청년층	(48)	27.1	16.7	14.6	25.0	6.3	10.4	0.0
	중/장년층	(415)	35.4	23.6	19.0	11.3	5.8	4.1	0.7
	노년층	(37)	13.5	18.9	45.9	10.8	8.1	2.7	0.0
지역	서울	(174)	32.8	21.8	20.1	14.9	7.5	2.9	0.0
	인천	(67)	22.4	31.3	28.4	7.5	1.5	9.0	0.0
	경기	(259)	35.9	20.8	18.9	12.4	6.2	4.6	1.2
가구원 수	1인가구	(52)	42.3	13.5	21.2	11.5	5.8	3.8	1.9
	다인가구	(448)	31.9	23.7	20.5	12.7	6.0	4.7	0.4
주택유형	아파트	(393)	32.8	23.2	18.3	13.2	7.1	4.8	0.5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80)	35.0	18.8	28.8	10.0	1.3	5.0	1.3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27)	29.6	25.9	29.6	11.1	3.7	0.0	0.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46)	41.3	21.7	21.7	6.5	4.3	2.2	2.2
	2분위(268~402만원)	(37)	27.0	18.9	32.4	10.8	5.4	5.4	0.0
	3분위(403~588만원)	(159)	28.3	23.9	23.9	7.5	10.7	5.7	0.0
	4분위(589~1,042만원)	(211)	33.6	24.6	17.5	16.6	3.8	3.3	0.5
	5분위(1,043만원 이상)	(47)	42.6	12.8	12.8	19.1	2.1	8.5	2.1

(임차인 base)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대출금리 변화	주택공급량 변화	우리나라 경기전망	정부의 조세정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소비자물가 수준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	기타
		(명)	(%)	(%)	(%)	(%)	(%)	(%)	(%)
전체		(500)	55.6	39.2	32.8	30.4	22.0	19.0	1.0
연령	청년층	(194)	53.6	33.0	33.5	29.9	30.4	18.0	1.5
	중/장년층	(283)	56.2	42.8	32.9	30.0	17.3	20.1	0.7
	노년층	(23)	65.2	47.8	26.1	39.1	8.7	13.0	0.0
지역	서울	(191)	56.5	37.7	36.6	28.8	22.5	17.8	0.0
	인천	(49)	53.1	32.7	38.8	28.6	26.5	18.4	2.0
	경기	(260)	55.4	41.5	28.8	31.9	20.8	20.0	1.5
가구원 수	1인가구	(219)	51.6	38.8	35.2	32.0	24.2	16.9	1.4
	다인가구	(281)	58.7	39.5	31.0	29.2	20.3	20.6	0.7
주택유형	아파트	(107)	65.4	41.1	30.8	23.4	17.8	20.6	0.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261)	50.2	40.2	32.2	33.3	21.8	21.5	0.8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32)	58.3	35.6	35.6	30.3	25.8	12.9	1.5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61)	48.7	38.5	38.5	33.3	21.2	18.6	1.3
	2분위(268~402만원)	(91)	56.5	35.9	35.9	30.4	28.3	12.0	1.1
	3분위(403~588만원)	(132)	58.8	35.3	25.0	33.8	21.3	25.7	0.0
	4분위(589~1,042만원)	(102)	58.8	49.0	30.4	22.5	19.6	17.6	2.0
	5분위(1,043만원 이상)	(14)	71.4	35.7	42.9	21.4	14.3	14.3	0.0

[1순위]

구분		사례수	대출금리 변화	주택공급량 변화	우리나라 경기전망	정부의 조세정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소비자물가 수준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	기타
		(명)	(%)	(%)	(%)	(%)	(%)	(%)	(%)
전체		(500)	31.2	20.0	14.6	12.8	12.8	8.2	0.4
연령	청년층	(194)	33.0	16.0	17.0	11.3	16.0	6.7	0.0
	중/장년층	(283)	30.0	21.6	12.7	13.4	11.7	9.9	0.7
	노년층	(23)	30.4	34.8	17.4	17.4	0.0	0.0	0.0
지역	서울	(191)	33.5	19.4	15.7	10.5	12.6	8.4	0.0
	인천	(49)	20.4	20.4	10.2	20.4	20.4	8.2	0.0
	경기	(260)	31.5	20.4	14.6	13.1	11.5	8.1	0.8
가구원 수	1인가구	(219)	27.9	20.1	17.8	12.8	13.2	8.2	0.0
	다인가구	(281)	33.8	19.9	12.1	12.8	12.5	8.2	0.7
주택유형	아파트	(107)	35.5	20.6	9.3	13.1	12.1	8.4	0.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261)	29.5	21.5	12.3	14.6	12.6	9.6	0.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32)	31.1	16.7	23.5	9.1	13.6	5.3	0.8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61)	25.6	21.8	16.0	15.4	14.1	7.1	0.0
	2분위(268~402만원)	(91)	37.0	16.3	20.7	8.7	10.9	6.5	0.0
	3분위(403~588만원)	(132)	33.8	17.6	7.4	14.0	14.7	12.5	0.0
	4분위(589~1,042만원)	(102)	33.3	23.5	14.7	11.8	9.8	4.9	2.0
	5분위(1,043만원 이상)	(14)	14.3	21.4	28.6	7.1	14.3	14.3	0.0

■ 주거불평등 인식·전망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주거가격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높은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거가격 상승으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ex. 강남 3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명)	(%)	(%)	(%)	(%)	(%)	(%)
전체		(1,000)	56.6	47.4	43.7	33.6	14.8	1.3
연령	청년층	(242)	54.1	49.6	46.7	31.0	14.9	0.4
	중/장년층	(698)	57.9	46.0	42.6	34.5	15.3	1.3
	노년층	(60)	51.7	55.0	45.0	33.3	8.3	5.0
지역	서울	(365)	58.4	47.7	43.8	33.2	13.7	1.4
	인천	(116)	57.8	50.0	37.9	33.6	12.9	2.6
	경기	(519)	55.1	46.6	44.9	33.9	16.0	1.0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60.1	47.6	48.7	28.4	11.1	0.7
	다인가구	(729)	55.3	47.3	41.8	35.5	16.2	1.5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53.2	46.6	39.6	40.2	16.0	1.8
	임차	(500)	60.0	48.2	47.8	27.0	13.6	0.8
주택유형	아파트	(500)	53.2	45.6	44.0	37.6	16.2	1.4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58.4	52.2	39.3	32.0	14.4	1.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63.5	42.8	52.2	24.5	11.3	0.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62.8	43.5	49.3	28.5	11.6	1.0
	2분위(268~402만원)	(128)	59.4	46.1	43.8	30.5	14.8	1.6
	3분위(403~588만원)	(291)	52.9	50.2	42.6	35.4	14.4	1.7
	4분위(589~1,042만원)	(313)	56.5	47.6	41.5	33.9	17.3	1.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47.5	49.2	41.0	47.5	14.8	0.0

[1순위]

구분		사례수	주거가격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가격 상승으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높은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 (ex. 강남 3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명)	(%)	(%)	(%)	(%)	(%)	(%)
전체		(1,000)	30.3	21.6	20.8	19.3	7.4	0.6
연령	청년층	(242)	28.1	24.4	24.8	17.4	5.0	0.4
	중/장년층	(698)	31.4	20.3	19.5	19.8	8.3	0.7
	노년층	(60)	26.7	25.0	20.0	21.7	6.7	0.0
지역	서울	(365)	33.4	21.9	18.6	19.5	6.3	0.3
	인천	(116)	33.6	18.1	21.6	19.0	6.0	1.7
	경기	(519)	27.4	22.2	22.2	19.3	8.5	0.6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1.4	25.5	21.4	15.1	5.9	0.7
	다인가구	(729)	29.9	20.2	20.6	20.9	8.0	0.5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7.8	20.2	19.0	23.0	9.0	1.0
	임차	(500)	32.8	23.0	22.6	15.6	5.8	0.2
주택유형	아파트	(500)	27.6	22.0	19.2	22.0	8.6	0.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3.1	18.2	24.0	17.0	7.0	0.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2.7	27.7	18.9	15.7	4.4	0.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33.3	23.7	17.9	18.4	5.8	1.0
	2분위(268~402만원)	(128)	34.4	22.7	20.3	14.1	8.6	0.0
	3분위(403~588만원)	(291)	31.3	19.9	24.4	18.2	5.5	0.7
	4분위(589~1,042만원)	(313)	28.4	21.1	19.2	20.4	10.2	0.6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4	23.0	23.0	32.8	4.9	0.0

그럼,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은 얼마나 심각하다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함 (①+②)	보통 (③)	심각하지 않음 (④+⑤)	5점 평균
		(명)	(%)	(%)	(%)	(%)	(%)	(%)	(%)	(%)	(점)
전체		(1,000)	50.0	37.2	9.9	2.2	0.7	87.2	9.9	2.9	1.66
연령	청년층	(242)	46.3	37.2	12.0	3.3	1.2	83.5	12.0	4.5	1.76
	중/장년층	(698)	51.7	37.0	8.7	2.0	0.6	88.7	8.7	2.6	1.63
	노년층	(60)	45.0	40.0	15.0	0.0	0.0	85.0	15.0	0.0	1.70
지역	서울	(365)	48.8	39.2	8.5	1.9	1.6	87.9	8.5	3.6	1.68
	인천	(116)	54.3	33.6	8.6	3.4	0.0	87.9	8.6	3.4	1.61
	경기	(519)	49.9	36.6	11.2	2.1	0.2	86.5	11.2	2.3	1.66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50.9	36.2	10.3	1.8	0.7	87.1	10.3	2.6	1.65
	다인가구	(729)	49.7	37.6	9.7	2.3	0.7	87.2	9.7	3.0	1.67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42.2	42.2	11.6	3.2	0.8	84.4	11.6	4.0	1.78
	임차	(500)	57.8	32.2	8.2	1.2	0.6	90.0	8.2	1.8	1.55
	아파트	(500)	43.4	41.8	11.0	3.0	0.8	85.2	11.0	3.8	1.76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56.6	32.6	8.5	1.8	0.6	89.1	8.5	2.3	1.5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56.6	32.7	9.4	0.6	0.6	89.3	9.4	1.3	1.5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54.1	33.8	9.7	1.0	1.4	87.9	9.7	2.4	1.62
	2분위(268~402만원)	(128)	56.3	34.4	8.6	0.8	0.0	90.6	8.6	0.8	1.54
	3분위(403~588만원)	(291)	51.9	35.4	10.3	2.1	0.3	87.3	10.3	2.4	1.64
	4분위(589~1,042만원)	(313)	44.1	42.5	8.3	4.2	1.0	86.6	8.3	5.1	1.7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44.3	36.1	19.7	0.0	0.0	80.3	19.7	0.0	1.75

귀하께서는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은 얼마나 악화되었다 혹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매우 악화 되었다	② 약간 악화 되었다	③ 1년 전과 비슷하다	④ 약간 개선 되었다	⑤ 매우 개선 되었다	심해짐 (①+②)	비슷 (③)	개선됨 (④+⑤)	5점 평균
		(명)	(%)	(%)	(%)	(%)	(%)	(%)	(%)	(%)	(점)
전체		(1,000)	39.5	32.1	22.9	5.0	0.5	71.6	22.9	5.5	1.95
연령	청년층	(242)	38.0	36.4	20.7	4.1	0.8	74.4	20.7	5.0	1.93
	중/장년층	(698)	40.5	30.5	23.6	4.9	0.4	71.1	23.6	5.3	1.94
	노년층	(60)	33.3	33.3	23.3	10.0	0.0	66.7	23.3	10.0	2.10
지역	서울	(365)	42.5	30.4	21.9	4.4	0.8	72.9	21.9	5.2	1.91
	인천	(116)	41.4	31.9	21.6	5.2	0.0	73.3	21.6	5.2	1.91
	경기	(519)	37.0	33.3	23.9	5.4	0.4	70.3	23.9	5.8	1.99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41.3	35.8	19.6	3.3	0.0	77.1	19.6	3.3	1.85
	다인가구	(729)	38.8	30.7	24.1	5.6	0.7	69.5	24.1	6.3	1.99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34.2	34.0	25.0	6.0	0.8	68.2	25.0	6.8	2.05
	임차	(500)	44.8	30.2	20.8	4.0	0.2	75.0	20.8	4.2	1.85
	아파트	(500)	36.2	33.0	25.0	5.0	0.8	69.2	25.0	5.8	2.01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40.8	29.9	23.8	5.3	0.3	70.7	23.8	5.6	1.94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47.2	34.0	14.5	4.4	0.0	81.1	14.5	4.4	1.7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0)	42.0	34.5	20.0	3.5	0.0	76.5	20.0	3.5	1.85
	2분위(268~402만원)	(131)	45.0	31.3	18.3	5.3	0.0	76.3	18.3	5.3	1.84
	3분위(403~588만원)	(295)	38.3	29.8	27.1	4.7	0.0	68.1	27.1	4.7	1.98
	4분위(589~1,042만원)	(313)	37.4	33.2	22.4	5.4	1.6	70.6	22.4	7.0	2.0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36.1	31.1	24.6	8.2	0.0	67.2	24.6	8.2	2.05

귀하께서는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 주거불평등 수준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라고 혹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매우 악화될 것이다	② 약간 악화될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개선될 것이다	⑤ 매우 개선될 것이다	심해 질 것 (①+②)	비슷 (③)	개선 될 것 (④+⑤)	5점 평균
		(명)	(%)	(%)	(%)	(%)	(%)	(%)	(%)	(%)	(점)
전체		(1,000)	24.9	29.6	33.9	10.7	0.9	54.5	33.9	11.6	2.33
연령	청년층	(242)	25.6	32.6	33.5	7.9	0.4	58.3	33.5	8.3	2.25
	중/장년층	(698)	25.5	28.5	34.0	10.9	1.1	54.0	34.0	12.0	2.34
	노년층	(60)	15.0	30.0	35.0	20.0	0.0	45.0	35.0	20.0	2.60
지역	서울	(365)	27.1	28.2	33.4	9.6	1.6	55.3	33.4	11.2	2.30
	인천	(116)	31.9	27.6	31.9	8.6	0.0	59.5	31.9	8.6	2.17
	경기	(519)	21.8	31.0	34.7	11.9	0.6	52.8	34.7	12.5	2.39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25.1	32.8	33.9	7.4	0.7	57.9	33.9	8.1	2.26
	다인가구	(729)	24.8	28.4	33.9	11.9	1.0	53.2	33.9	12.9	2.36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2.0	30.0	36.2	10.8	1.0	52.0	36.2	11.8	2.39
	임차	(500)	27.8	29.2	31.6	10.6	0.8	57.0	31.6	11.4	2.27
주택유형	아파트	(500)	22.8	30.4	36.6	9.0	1.2	53.2	36.6	10.2	2.35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26.7	27.9	29.9	15.0	0.6	54.5	29.9	15.5	2.3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27.7	30.8	34.0	6.9	0.6	58.5	34.0	7.5	2.2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30.0	26.1	33.3	10.1	0.5	56.0	33.3	10.6	2.24
	2분위(268~402만원)	(128)	24.2	39.1	28.9	7.0	0.8	63.3	28.9	7.8	2.21
	3분위(403~588만원)	(291)	23.4	26.5	35.7	13.7	0.7	49.8	35.7	14.4	2.43
	4분위(589~1,042만원)	(313)	21.7	32.9	33.2	10.9	1.3	54.6	33.2	12.1	2.37
	5분위(1,043만원 이상)	(61)	32.8	19.7	41.0	4.9	1.6	52.5	41.0	6.6	2.23

주거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대출상품 확대(저금리, 장기대출 등)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정 품질을 확보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제한
		(명)	(%)	(%)	(%)	(%)	(%)
전체		(1,000)	34.9	29.2	26.1	25.2	22.7
연령	청년층	(242)	40.5	31.8	28.9	25.6	17.8
	중/장년층	(698)	33.2	29.2	24.1	24.6	24.2
	노년층	(60)	31.7	18.3	38.3	30.0	25.0
지역	서울	(365)	31.0	30.4	26.8	23.0	22.7
	인천	(116)	37.9	28.4	17.2	30.2	22.4
	경기	(519)	37.0	28.5	27.6	25.6	22.7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2.8	30.3	30.6	28.0	18.1
	다인가구	(729)	35.7	28.8	24.4	24.1	24.4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37.0	28.0	21.6	25.0	22.8
	임차	(500)	32.8	30.4	30.6	25.4	22.6
주택유형	아파트	(500)	36.2	28.6	22.4	24.4	23.2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1.4	31.7	28.7	24.6	22.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8.4	25.8	32.1	28.9	21.4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8.5	30.0	31.9	29.5	23.2
	2분위(268~402만원)	(128)	37.5	33.6	36.7	18.0	15.6
	3분위(403~588만원)	(291)	31.6	29.2	25.4	27.1	26.1
	4분위(589~1,042만원)	(313)	39.0	27.2	19.5	24.0	23.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45.9	27.9	21.3	23.0	16.4

구분		사례수	주거지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이미지 개선	부자 동네·가난한 동네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계층 간 혼합 거주지역 확대	주택 품질개선으로 거주만족도 향상	기타
		(명)	(%)	(%)	(%)	(%)	(%)
전체		(1,000)	18.7	18.2	12.5	10.4	1.0
연령	청년층	(242)	15.3	14.5	12.4	9.1	2.1
	중/장년층	(698)	19.9	19.5	12.6	11.2	0.6
	노년층	(60)	18.3	18.3	11.7	6.7	1.7
지역	서울	(365)	21.6	18.9	13.2	9.6	1.4
	인천	(116)	15.5	23.3	12.9	10.3	0.9
	경기	(519)	17.3	16.6	11.9	11.0	0.8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4.8	20.3	12.5	9.2	1.8
	다인가구	(729)	20.2	17.4	12.5	10.8	0.7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3.0	17.2	12.2	11.4	1.0
	임차	(500)	14.4	19.2	12.8	9.4	1.0
주택유형	아파트	(500)	22.4	17.2	13.4	10.4	1.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6.1	20.5	11.7	10.9	0.9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2.6	16.4	11.3	9.4	1.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4.0	21.7	9.2	9.7	1.0
	2분위(268~402만원)	(128)	16.4	21.1	13.3	7.0	0.8
	3분위(403~588만원)	(291)	19.9	15.1	12.7	10.0	1.4
	4분위(589~1,042만원)	(313)	20.8	18.2	13.7	12.1	1.0
	5분위(1,043만원 이상)	(61)	23.0	14.8	14.8	13.1	0.0

주거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구분		사례수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대출상품 확대(저금리, 장기대출 등)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정 품질을 확보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제한
		(명)	(%)	(%)	(%)	(%)	(%)
전체		(1,000)	19.9	15.6	13.4	12.3	12.0
연령	청년층	(242)	22.7	18.6	14.9	12.0	8.7
	중/장년층	(698)	19.1	15.2	12.3	12.2	12.8
	노년층	(60)	18.3	8.3	20.0	15.0	16.7
지역	서울	(365)	18.4	15.3	14.0	11.2	13.2
	인천	(116)	24.1	13.8	7.8	16.4	10.3
	경기	(519)	20.0	16.2	14.3	12.1	11.6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9.6	18.5	16.2	13.7	7.0
	다인가구	(729)	20.0	14.5	12.3	11.8	13.9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1.8	14.2	11.6	12.6	12.0
	임차	(500)	18.0	17.0	15.2	12.0	12.0
주택유형	아파트	(500)	21.0	14.4	11.0	12.4	13.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7.3	18.8	15.0	11.1	11.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22.0	12.6	17.6	14.5	10.7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8.8	15.5	16.9	14.0	12.1
	2분위(268~402만원)	(128)	19.5	15.6	18.8	10.9	8.6
	3분위(403~588만원)	(291)	15.8	16.5	12.7	14.1	14.4
	4분위(589~1,042만원)	(313)	24.6	14.4	8.9	11.2	12.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9.7	18.0	16.4	6.6	4.9

구분		사례수	주거지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이미지 개선	부자 동네·가난한 동네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계층 간 혼합 거주 지역 확대	주택 품질개선으로 거주만족도 향상	기타
		(명)	(%)	(%)	(%)	(%)	(%)
전체		(1,000)	8.7	7.3	6.4	4.0	0.4
연령	청년층	(242)	5.4	5.8	6.6	4.1	1.2
	중/장년층	(698)	9.6	7.9	6.6	4.3	0.1
	노년층	(60)	11.7	6.7	3.3	0.0	0.0
지역	서울	(365)	9.6	6.3	7.1	4.4	0.5
	인천	(116)	5.2	12.9	6.0	3.4	0.0
	경기	(519)	8.9	6.7	6.0	3.9	0.4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7.0	6.6	7.0	3.7	0.7
	다인가구	(729)	9.3	7.5	6.2	4.1	0.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1.0	6.0	6.6	4.0	0.2
	임차	(500)	6.4	8.6	6.2	4.0	0.6
주택유형	아파트	(500)	11.2	7.0	6.4	3.4	0.2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7.3	8.8	5.9	4.4	0.3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8	5.0	7.5	5.0	1.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5.8	8.7	3.9	3.9	0.5
	2분위(268~402만원)	(128)	4.7	9.4	7.8	4.7	0.0
	3분위(403~588만원)	(291)	11.0	4.5	5.8	4.1	1.0
	4분위(589~1,042만원)	(313)	9.6	8.3	7.3	3.2	0.0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1.5	6.6	9.8	6.6	0.0

■ 주거불평등 심리

귀택의 주거 여건(주택 및 거주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가족의 주거 생활은 다른 가족과 비교하여, 얼마나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다른 가족에 비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② 다른 가족에 비해 약간 나쁘다고 생각한다	③ 다른 가족과 비슷한 수준 이라고 생각한다	④ 다른 가족에 비해 약간 좋다고 생각한다	⑤ 다른 가족에 비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나쁨 (①+②)	비슷 (③)	좋음 (④+⑤)	5점 평균
		(명)	(%)	(%)	(%)	(%)	(%)	(%)	(%)	(%)	(점)
전체		(1,000)	9.9	28.4	47.5	12.5	1.7	38.3	47.5	14.2	2.68
연령	청년층	(242)	9.5	30.2	45.0	13.2	2.1	39.7	45.0	15.3	2.68
	중/장년층	(698)	10.0	27.8	48.4	12.5	1.3	37.8	48.4	13.8	2.67
	노년층	(60)	10.0	28.3	46.7	10.0	5.0	38.3	46.7	15.0	2.72
지역	서울	(365)	10.7	26.6	46.8	14.2	1.6	37.3	46.8	15.9	2.70
	인천	(116)	6.9	32.8	49.1	9.5	1.7	39.7	49.1	11.2	2.66
	경기	(519)	10.0	28.7	47.6	11.9	1.7	38.7	47.6	13.7	2.67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2.9	31.4	45.4	9.2	1.1	44.3	45.4	10.3	2.54
	다인가구	(729)	8.8	27.3	48.3	13.7	1.9	36.1	48.3	15.6	2.7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4.4	20.4	56.8	16.2	2.2	24.8	56.8	18.4	2.91
	임차	(500)	15.4	36.4	38.2	8.8	1.2	51.8	38.2	10.0	2.44
주택유형	아파트	(500)	4.0	19.6	56.4	18.0	2.0	23.6	56.4	20.0	2.94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6.4	39.3	36.1	6.5	1.8	55.7	36.1	8.2	2.38
월 가구 소득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4.5	32.7	44.0	8.2	0.6	47.2	44.0	8.8	2.48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0.3	31.9	43.0	4.3	0.5	52.2	43.0	4.8	2.32
	2분위(268~402만원)	(128)	14.8	32.0	43.0	9.4	0.8	46.9	43.0	10.2	2.50
	3분위(403~588만원)	(291)	7.2	35.1	45.0	10.3	2.4	42.3	45.0	12.7	2.66
	4분위(589~1,042만원)	(313)	5.1	21.1	54.6	17.9	1.3	26.2	54.6	19.2	2.89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4.8	47.5	29.5	6.6	16.4	47.5	36.1	3.25

(타 가족 대비 주거 생활 '부정' 응답자 base)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
 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전세·월세 등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가 없는 주택(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희망하는 주거지역 (학군 좋은 곳, 교통환경 좋은 곳 등)에 거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명)	(%)	(%)	(%)	(%)	(%)	(%)	(%)
전체		(383)	49.9	38.6	33.9	29.8	29.0	7.0	2.6
연령	청년층	(96)	64.6	33.3	27.1	26.0	24.0	8.3	1.0
	중/장년층	(264)	45.1	40.5	34.5	32.6	31.1	6.1	3.0
	노년층	(23)	43.5	39.1	56.5	13.0	26.1	13.0	4.3
지역	서울	(136)	50.7	36.0	36.8	30.1	29.4	5.9	2.2
	인천	(46)	37.0	43.5	23.9	32.6	30.4	13.0	4.3
	경기	(201)	52.2	39.3	34.3	28.9	28.4	6.5	2.5
가구원 수	1인가구	(120)	65.8	32.5	34.2	24.2	21.7	6.7	1.7
	다인가구	(263)	42.6	41.4	33.8	32.3	32.3	7.2	3.0
주거 점유형태	자가	(124)	0.0	55.6	34.7	42.7	44.4	11.3	3.2
	임차	(259)	73.7	30.5	33.6	23.6	21.6	5.0	2.3
	아파트	(118)	21.2	47.5	19.5	38.1	50.0	12.7	1.7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90)	61.6	37.4	43.7	26.8	17.9	5.3	2.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75)	65.3	28.0	32.0	24.0	24.0	2.7	5.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08)	59.3	34.3	41.7	24.1	16.7	11.1	2.8
	2분위(268~402만원)	(60)	60.0	41.7	28.3	21.7	30.0	3.3	3.3
	3분위(403~588만원)	(123)	48.8	37.4	28.5	37.4	34.1	5.7	1.6
	4분위(589~1,042만원)	(82)	34.1	42.7	36.6	31.7	36.6	6.1	3.7
	5분위(1,043만원 이상)	(10)	30.0	50.0	30.0	30.0	30.0	10.0	0.0

[1순위]

구분		사례수	전세·월세 등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가 없는 주택(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희망하는 주거지역 (학군 좋은 곳, 교통환경 좋은 곳 등)에 거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명)	(%)	(%)	(%)	(%)	(%)	(%)	(%)
전체		(383)	36.6	17.0	15.9	13.8	11.7	4.4	0.5
연령	청년층	(96)	43.8	8.3	16.7	12.5	11.5	6.3	1.0
	중/장년층	(264)	35.2	17.8	16.3	14.4	12.5	3.4	0.4
	노년층	(23)	21.7	43.5	8.7	13.0	4.3	8.7	0.0
지역	서울	(136)	38.2	19.1	13.2	14.0	11.8	3.7	0.0
	인천	(46)	26.1	15.2	19.6	13.0	15.2	8.7	2.2
	경기	(201)	37.8	15.9	16.9	13.9	10.9	4.0	0.5
가구원 수	1인가구	(120)	45.0	17.5	12.5	10.0	10.8	4.2	0.0
	다인가구	(263)	32.7	16.7	17.5	15.6	12.2	4.6	0.8
주거 점유형태	자가	(124)	0.0	21.8	29.0	25.8	16.1	6.5	0.8
	임차	(259)	54.1	14.7	9.7	8.1	9.7	3.5	0.4
	아파트	(118)	16.9	6.8	27.1	26.3	15.3	6.8	0.8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90)	46.8	23.2	10.0	7.4	8.9	3.7	0.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75)	41.3	17.3	13.3	10.7	13.3	2.7	1.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08)	43.5	20.4	12.0	7.4	8.3	7.4	0.9
	2분위(268~402만원)	(60)	45.0	10.0	18.3	15.0	10.0	1.7	0.0
	3분위(403~588만원)	(123)	35.0	17.9	16.3	12.2	15.4	3.3	0.0
	4분위(589~1,042만원)	(82)	26.8	15.9	18.3	22.0	12.2	3.7	1.2
	5분위(1,043만원 이상)	(10)	10.0	20.0	20.0	30.0	10.0	10.0	0.0

(타 가족 대비 주거 생활 '부정' 응답자 base)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
시면서 느끼시는 감정/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사례수	주거불평등 으로 인해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을 느낀 적 이 있다	내가 이런 주택과 지역에 거주하여 내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남들에게 내 집(혹은 동네)을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내가 사는 집과 동네가 창피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주거불평등 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서 거주하는 것이 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보다 좋은 주택과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명)	(%)	(%)	(%)	(%)	(%)	(%)	(%)	(%)
전체		(383)	43.6	41.5	32.9	31.3	30.0	21.7	1.6	12.8
연령	청년층	(96)	44.8	52.1	12.5	33.3	32.3	30.2	0.0	10.4
	중/장년층	(264)	43.6	39.0	39.4	29.9	29.2	19.7	1.9	13.6
	노년층	(23)	39.1	26.1	43.5	39.1	30.4	8.7	4.3	13.0
지역	서울	(136)	44.1	50.0	33.1	33.1	33.1	20.6	0.7	11.0
	인천	(46)	34.8	23.9	28.3	30.4	19.6	28.3	2.2	21.7
	경기	(201)	45.3	39.8	33.8	30.3	30.3	20.9	2.0	11.9
가구원 수	1인가구	(120)	47.5	45.0	11.7	34.2	29.2	15.8	0.8	15.0
	다인가구	(263)	41.8	39.9	42.6	30.0	30.4	24.3	1.9	11.8
주거 점유형태	자가	(124)	33.9	30.6	30.6	24.2	26.6	25.0	1.6	16.9
	임차	(259)	48.3	46.7	34.0	34.7	31.7	20.1	1.5	10.8
	아파트	(118)	34.7	36.4	30.5	23.7	38.1	24.6	0.8	11.9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90)	48.4	43.2	36.3	34.7	24.2	22.1	1.1	14.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75)	45.3	45.3	28.0	34.7	32.0	16.0	4.0	9.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08)	56.5	51.9	20.4	31.5	29.6	19.4	0.9	13.9
	2분위(268~402만원)	(60)	46.7	46.7	25.0	30.0	25.0	11.7	1.7	13.3
	3분위(403~588만원)	(123)	36.6	36.6	46.3	30.9	29.3	19.5	1.6	14.6
	4분위(589~1,042만원)	(82)	37.8	32.9	36.6	29.3	36.6	34.1	2.4	8.5
	5분위(1,043만원 이상)	(10)	20.0	30.0	20.0	60.0	20.0	30.0	0.0	10.0

(타 가족 대비 주거 생활 '긍정' 응답자 base)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좋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자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희망하는 주거지역 (학군 좋은 곳, 교통환경 좋은 곳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주택이나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명)	(%)	(%)	(%)	(%)	(%)	(%)	(%)
전체		(142)	59.2	40.8	36.6	29.6	17.6	9.9	1.4
연령	청년층	(37)	59.5	10.8	24.3	43.2	18.9	27.0	0.0
	중/장년층	(96)	58.3	53.1	42.7	24.0	15.6	3.1	2.1
	노년층	(9)	66.7	33.3	22.2	33.3	33.3	11.1	0.0
지역	서울	(58)	56.9	37.9	44.8	24.1	13.8	13.8	1.7
	인천	(13)	38.5	76.9	61.5	23.1	0.0	0.0	0.0
	경기	(71)	64.8	36.6	25.4	35.2	23.9	8.5	1.4
가구원 수	1인가구	(28)	75.0	21.4	25.0	35.7	10.7	21.4	0.0
	다인가구	(114)	55.3	45.6	39.5	28.1	19.3	7.0	1.8
주거 점유형태	자가	(92)	54.3	63.0	40.2	19.6	15.2	5.4	1.1
	임차	(50)	68.0	0.0	30.0	48.0	22.0	18.0	2.0
	아파트	(100)	56.0	47.0	39.0	24.0	22.0	8.0	2.0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28)	67.9	21.4	28.6	42.9	10.7	14.3	0.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4)	64.3	35.7	35.7	42.9	0.0	14.3	0.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0)	50.0	10.0	50.0	40.0	10.0	20.0	0.0
	2분위(268~402만원)	(13)	76.9	23.1	7.7	38.5	30.8	15.4	0.0
	3분위(403~588만원)	(37)	59.5	56.8	27.0	16.2	21.6	16.2	0.0
	4분위(589~1,042만원)	(60)	53.3	45.0	40.0	33.3	13.3	6.7	3.3
	5분위(1,043만원 이상)	(22)	68.2	27.3	54.5	31.8	18.2	0.0	0.0

[1순위]

구분		사례수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자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희망하는 주거지역 (학군 좋은 곳, 교통환경 좋은 곳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주택이나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명)	(%)	(%)	(%)	(%)	(%)	(%)	(%)
전체		(142)	31.0	22.5	19.0	11.3	9.9	4.9	1.4
연령	청년층	(37)	29.7	10.8	13.5	18.9	10.8	16.2	0.0
	중/장년층	(96)	30.2	28.1	21.9	7.3	9.4	1.0	2.1
	노년층	(9)	44.4	11.1	11.1	22.2	11.1	0.0	0.0
지역	서울	(58)	25.9	22.4	25.9	6.9	10.3	6.9	1.7
	인천	(13)	38.5	15.4	30.8	15.4	0.0	0.0	0.0
	경기	(71)	33.8	23.9	11.3	14.1	11.3	4.2	1.4
가구원 수	1인가구	(28)	35.7	17.9	14.3	17.9	3.6	10.7	0.0
	다인가구	(114)	29.8	23.7	20.2	9.6	11.4	3.5	1.8
주거 점유형태	자가	(92)	27.2	34.8	19.6	6.5	8.7	2.2	1.1
	임차	(50)	38.0	0.0	18.0	20.0	12.0	10.0	2.0
	아파트	(100)	28.0	24.0	20.0	9.0	12.0	5.0	2.0
주택유형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28)	39.3	14.3	14.3	17.9	7.1	7.1	0.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4)	35.7	28.6	21.4	14.3	0.0	0.0	0.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0)	10.0	10.0	50.0	20.0	0.0	10.0	0.0
	2분위(268~402만원)	(13)	53.8	15.4	0.0	15.4	7.7	7.7	0.0
	3분위(403~588만원)	(37)	24.3	29.7	16.2	16.2	8.1	5.4	0.0
	4분위(589~1,042만원)	(60)	31.7	25.0	18.3	6.7	10.0	5.0	3.3
	5분위(1,043만원 이상)	(22)	36.4	13.6	22.7	9.1	18.2	0.0	0.0

(타 가족 대비 주거 생활 '긍정' 응답자 base)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느끼시는 감정/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사례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거지역의 이웃들을 존중한다	남들에게 내 집(혹은 동네)을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이런 주택과 지역에 거주하여 내 자식에게 몇몇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나는 나보다 나쁜 주택(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나는 나보다 나쁜 주택(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명)	(%)	(%)	(%)	(%)	(%)	(%)	(%)	(%)
전체		(142)	54.2	40.1	38.7	14.1	9.9	8.5	3.5	12.7
연령	청년층	(37)	51.4	32.4	21.6	21.6	13.5	5.4	2.7	13.5
	중/장년층	(96)	54.2	42.7	42.7	11.5	8.3	10.4	4.2	13.5
	노년층	(9)	66.7	44.4	66.7	11.1	11.1	0.0	0.0	0.0
지역	서울	(58)	50.0	43.1	48.3	10.3	10.3	5.2	1.7	13.8
	인천	(13)	53.8	38.5	46.2	23.1	23.1	23.1	0.0	7.7
	경기	(71)	57.7	38.0	29.6	15.5	7.0	8.5	5.6	12.7
가구원 수	1인가구	(28)	50.0	50.0	25.0	14.3	10.7	3.6	3.6	10.7
	다인가구	(114)	55.3	37.7	42.1	14.0	9.6	9.6	3.5	13.2
주거 점유형태	자가	(92)	54.3	42.4	46.7	12.0	10.9	12.0	3.3	10.9
	임차	(50)	54.0	36.0	24.0	18.0	8.0	2.0	4.0	16.0
주택유형	아파트	(100)	52.0	42.0	45.0	14.0	10.0	11.0	4.0	12.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28)	57.1	39.3	17.9	7.1	10.7	0.0	3.6	14.3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4)	64.3	28.6	35.7	28.6	7.1	7.1	0.0	14.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0)	70.0	30.0	30.0	10.0	0.0	0.0	10.0	10.0
	2분위(268~402만원)	(13)	61.5	69.2	30.8	23.1	0.0	0.0	7.7	7.7
	3분위(403~588만원)	(37)	59.5	40.5	29.7	13.5	10.8	5.4	0.0	13.5
	4분위(589~1,042만원)	(60)	51.7	35.0	43.3	11.7	11.7	11.7	3.3	13.3
	5분위(1,043만원 이상)	(22)	40.9	40.9	50.0	18.2	13.6	13.6	4.5	13.6

(타 가족 대비 주거 생활 '비슷 이하' 응답자 base)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남들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좋은 주거 여건(주택 및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②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기대한다	⑤ 매우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음 (①+②)	비슷 (③)	기대함 (④+⑤)	5점 평균
		(명)	(%)	(%)	(%)	(%)	(%)	(%)	(%)	(%)	(점)
전체		(858)	7.6	21.6	38.0	26.5	6.4	29.1	38.0	32.9	3.03
연령	청년층	(205)	5.9	22.9	36.6	27.3	7.3	28.8	36.6	34.6	3.07
	중/장년층	(602)	8.0	19.9	38.9	26.7	6.5	27.9	38.9	33.2	3.04
	노년층	(51)	9.8	35.3	33.3	19.6	2.0	45.1	33.3	21.6	2.69
지역	서울	(307)	9.1	22.1	38.4	23.8	6.5	31.3	38.4	30.3	2.96
	인천	(103)	14.6	17.5	35.0	27.2	5.8	32.0	35.0	33.0	2.92
	경기	(448)	4.9	22.1	38.4	28.1	6.5	27.0	38.4	34.6	3.09
가구원 수	1인가구	(243)	8.2	27.6	36.6	21.0	6.6	35.8	36.6	27.6	2.90
	다인가구	(615)	7.3	19.2	38.5	28.6	6.3	26.5	38.5	35.0	3.07
주거 점유형태	자가	(408)	6.4	19.1	46.8	23.3	4.4	25.5	46.8	27.7	3.00
	임차	(450)	8.7	23.8	30.0	29.3	8.2	32.4	30.0	37.6	3.05
주택유형	아파트	(400)	6.5	17.5	48.3	24.8	3.0	24.0	48.3	27.8	3.0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13)	9.3	23.6	28.8	30.4	8.0	32.9	28.8	38.3	3.04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45)	6.9	28.3	29.7	22.8	12.4	35.2	29.7	35.2	3.0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197)	12.7	27.9	34.0	19.3	6.1	40.6	34.0	25.4	2.77
	2분위(268~402만원)	(115)	8.7	29.6	33.0	21.7	7.0	38.3	33.0	28.7	2.88
	3분위(403~588만원)	(254)	5.1	21.3	37.0	31.1	5.5	26.4	37.0	36.6	3.11
	4분위(589~1,042만원)	(253)	6.3	15.4	43.9	28.9	5.5	21.7	43.9	34.4	3.12
	5분위(1,043만원 이상)	(39)	2.6	7.7	41.0	30.8	17.9	10.3	41.0	48.7	3.54

(기대자 base) 향후 10년 이내에 남들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좋은 주거 여건(주택 및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명)	우리 가족의 소득 변화 (%)	주택가격 변화 (%)	주택공급량 변화 (%)	부동산정책 변화 (%)	기타 (%)
전체		(282)	57.8	48.2	39.7	39.4	2.8
연령	청년층	(71)	62.0	47.9	42.3	35.2	2.8
	중/장년층	(200)	56.5	48.5	38.0	41.0	2.5
	노년층	(11)	54.5	45.5	54.5	36.4	9.1
지역	서울	(93)	68.8	47.3	34.4	36.6	2.2
	인천	(34)	55.9	61.8	23.5	26.5	11.8
	경기	(155)	51.6	45.8	46.5	43.9	1.3
가구원 수	1인가구	(67)	62.7	49.3	41.8	22.4	6.0
	다인가구	(215)	56.3	47.9	39.1	44.7	1.9
주거 점유형태	자가	(113)	56.6	51.3	38.1	40.7	4.4
	임차	(169)	58.6	46.2	40.8	38.5	1.8
주택유형	아파트	(111)	57.7	50.5	39.6	45.9	0.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0)	54.2	46.7	40.0	40.0	4.2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51)	66.7	47.1	39.2	23.5	3.9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50)	50.0	48.0	56.0	28.0	4.0
	2분위(268~402만원)	(33)	60.6	51.5	27.3	45.5	0.0
	3분위(403~588만원)	(93)	54.8	48.4	41.9	43.0	3.2
	4분위(589~1,042만원)	(87)	63.2	42.5	35.6	40.2	3.4
	5분위(1,043만원 이상)	(19)	63.2	68.4	26.3	36.8	0.0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우리 가족의 소득 변화 (%)	주택가격 변화 (%)	부동산정책 변화 (%)	주택공급량 변화 (%)	기타 (%)
전체		(282)	45.4	21.3	16.7	14.9	1.8
연령	청년층	(71)	47.9	21.1	9.9	18.3	2.8
	중/장년층	(200)	44.5	21.5	19.0	13.5	1.5
	노년층	(11)	45.5	18.2	18.2	18.2	0.0
지역	서울	(93)	53.8	23.7	7.5	14.0	1.1
	인천	(34)	41.2	29.4	17.6	5.9	5.9
	경기	(155)	41.3	18.1	21.9	17.4	1.3
가구원 수	1인가구	(67)	50.7	25.4	3.0	14.9	6.0
	다인가구	(215)	43.7	20.0	20.9	14.9	0.5
주거 점유형태	자가	(113)	44.2	21.2	18.6	14.2	1.8
	임차	(169)	46.2	21.3	15.4	15.4	1.8
주택유형	아파트	(111)	45.9	18.0	19.8	16.2	0.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0)	41.7	22.5	17.5	15.8	2.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51)	52.9	25.5	7.8	9.8	3.9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50)	36.0	22.0	8.0	30.0	4.0
	2분위(268~402만원)	(33)	48.5	33.3	9.1	9.1	0.0
	3분위(403~588만원)	(93)	47.3	18.3	19.4	14.0	1.1
	4분위(589~1,042만원)	(87)	44.8	19.5	21.8	11.5	2.3
	5분위(1,043만원 이상)	(19)	57.9	21.1	15.8	5.3	0.0

■ 부동산시장 관련 언론기사 평가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택품질, 주거환경’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다 혹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하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2	0.9	2.3	9.1	20.9	29.0	37.6	3.4	9.1	87.5	5.87
연령	청년층	(242)	0.4	1.2	2.9	8.3	21.9	23.1	42.1	4.5	8.3	87.2	5.88
	중/장년층	(698)	0.1	0.7	2.3	9.7	19.6	30.9	36.5	3.2	9.7	87.1	5.87
	노년층	(60)	0.0	1.7	0.0	5.0	31.7	30.0	31.7	1.7	5.0	93.3	5.83
지역	서울	(365)	0.3	0.8	2.7	8.5	19.7	29.6	38.4	3.8	8.5	87.7	5.89
	인천	(116)	0.9	2.6	0.9	8.6	18.1	26.7	42.2	4.3	8.6	87.1	5.90
	경기	(519)	0.0	0.6	2.3	9.6	22.4	29.1	36.0	2.9	9.6	87.5	5.85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4	0.7	2.6	7.7	21.8	25.5	41.3	3.7	7.7	88.6	5.92
	다인가구	(729)	0.1	1.0	2.2	9.6	20.6	30.3	36.2	3.3	9.6	87.1	5.85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2	0.8	2.8	11.6	21.2	32.4	31.0	3.8	11.6	84.6	5.74
	임차	(500)	0.2	1.0	1.8	6.6	20.6	25.6	44.2	3.0	6.6	90.4	6.00
주택유형	아파트	(500)	0.2	0.8	2.6	11.6	20.2	32.6	32.0	3.6	11.6	84.8	5.77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3	0.9	2.1	7.9	22.9	25.5	40.5	3.2	7.9	88.9	5.9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1.3	1.9	3.8	18.9	25.2	49.1	3.1	3.8	93.1	6.1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5	1.0	11.1	18.8	26.6	41.5	1.9	11.1	87.0	5.93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0.8	8.6	19.5	26.6	43.8	1.6	8.6	89.8	6.04
	3분위(403~588만원)	(291)	0.0	0.7	3.4	6.5	23.4	30.6	35.4	4.1	6.5	89.3	5.85
	4분위(589~1,042만원)	(313)	0.3	1.6	1.9	10.2	20.4	30.0	35.5	3.8	10.2	85.9	5.8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6.6	9.8	21.3	29.5	32.8	6.6	9.8	83.6	5.72

[반지하 증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4	1.6	3.1	14.6	28.3	24.8	27.2	5.1	14.6	80.3	5.52
연령	청년층	(242)	0.8	2.9	3.3	14.9	27.3	25.6	25.2	7.0	14.9	78.1	5.43
	중/장년층	(698)	0.3	1.1	3.2	14.8	28.5	24.6	27.5	4.6	14.8	80.7	5.54
	노년층	(60)	0.0	1.7	1.7	11.7	30.0	23.3	31.7	3.3	11.7	85.0	5.67
지역	서울	(365)	0.8	1.9	2.2	14.8	27.9	24.1	28.2	4.9	14.8	80.3	5.52
	인천	(116)	0.0	1.7	4.3	17.2	25.0	17.2	34.5	6.0	17.2	76.7	5.55
	경기	(519)	0.2	1.3	3.5	13.9	29.3	27.0	24.9	5.0	13.9	81.1	5.5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4	0.7	4.1	13.3	26.2	25.8	29.5	5.2	13.3	81.5	5.60
	다인가구	(729)	0.4	1.9	2.7	15.1	29.1	24.4	26.3	5.1	15.1	79.8	5.49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6	1.6	2.4	16.6	32.0	26.0	20.8	4.6	16.6	78.8	5.39
	임차	(500)	0.2	1.6	3.8	12.6	24.6	23.6	33.6	5.6	12.6	81.8	5.65
주택유형	아파트	(500)	0.6	1.8	2.6	17.4	31.0	24.4	22.2	5.0	17.4	77.6	5.38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3	1.2	4.1	11.7	27.3	25.2	30.2	5.6	11.7	82.7	5.6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1.9	2.5	11.9	22.0	25.2	36.5	4.4	11.9	83.6	5.75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1.0	3.4	16.9	23.2	22.7	32.4	4.8	16.9	78.3	5.62
	2분위(268~402만원)	(128)	0.8	0.8	3.9	6.3	25.0	28.1	35.2	5.5	6.3	88.3	5.78
	3분위(403~588만원)	(291)	0.0	1.4	1.7	14.4	31.6	24.4	26.5	3.1	14.4	82.5	5.54
	4분위(589~1,042만원)	(313)	0.3	2.6	3.5	15.3	30.0	24.9	23.3	6.4	15.3	78.3	5.40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6	4.9	21.3	27.9	26.2	16.4	8.2	21.3	70.5	5.16

[철근 누락 아파트(순살 아파트)]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4	1.2	2.2	8.6	15.3	22.2	50.1	3.8	8.6	87.6	6.04
연령	청년층	(242)	0.8	2.1	2.9	7.9	16.5	23.1	46.7	5.8	7.9	86.4	5.93
	중/장년층	(698)	0.1	1.0	2.0	9.3	14.9	21.1	51.6	3.2	9.3	87.5	6.07
	노년층	(60)	1.7	0.0	1.7	3.3	15.0	31.7	46.7	3.3	3.3	93.3	6.12
지역	서울	(365)	0.5	1.6	1.1	8.2	15.3	23.3	49.9	3.3	8.2	88.5	6.05
	인천	(116)	0.9	0.9	1.7	5.2	17.2	17.2	56.9	3.4	5.2	91.4	6.16
	경기	(519)	0.2	1.0	3.1	9.6	14.8	22.5	48.7	4.2	9.6	86.1	6.0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7	1.1	2.6	5.5	17.0	22.5	50.6	4.4	5.5	90.0	6.07
	다인가구	(729)	0.3	1.2	2.1	9.7	14.7	22.1	49.9	3.6	9.7	86.7	6.0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2	0.8	2.4	11.2	16.0	23.8	45.6	3.4	11.2	85.4	5.96
	임차	(500)	0.6	1.6	2.0	6.0	14.6	20.6	54.6	4.2	6.0	89.8	6.13
주택유형	아파트	(500)	0.2	1.2	2.8	10.2	15.4	24.2	46.0	4.2	10.2	85.6	5.9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0.6	1.8	8.2	16.1	20.5	51.9	3.2	8.2	88.6	6.0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2.5	1.3	4.4	13.2	19.5	59.1	3.8	4.4	91.8	6.2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4	1.0	2.4	7.2	14.5	21.7	51.7	4.8	7.2	87.9	6.04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0.8	9.4	14.1	20.3	54.7	1.6	9.4	89.1	6.18
	3분위(403~588만원)	(291)	0.0	1.4	2.1	8.9	15.5	24.1	48.1	3.4	8.9	87.6	6.03
	4분위(589~1,042만원)	(313)	0.3	1.3	2.9	8.0	16.0	21.4	50.2	4.5	8.0	87.5	6.0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1.6	1.6	13.1	16.4	23.0	44.3	3.3	13.1	83.6	5.90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부동산 시장'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다 혹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분양 아파트 증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2.5	3.1	5.2	21.6	26.1	23.3	18.2	10.8	21.6	67.6	5.08
연령	청년층	(242)	1.7	3.7	4.5	16.5	28.5	23.1	21.9	9.9	16.5	73.6	5.24
	중/장년층	(698)	2.7	2.9	5.4	24.1	25.4	22.6	16.9	11.0	24.1	64.9	5.02
	노년층	(60)	3.3	3.3	5.0	13.3	25.0	31.7	18.3	11.7	13.3	75.0	5.22
지역	서울	(365)	1.9	4.9	5.5	22.5	26.0	22.2	17.0	12.3	22.5	65.2	5.00
	인천	(116)	2.6	1.7	6.0	21.6	25.0	19.0	24.1	10.3	21.6	68.1	5.18
	경기	(519)	2.9	2.1	4.8	21.0	26.4	25.0	17.7	9.8	21.0	69.2	5.12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4.1	3.0	4.1	20.3	24.4	25.5	18.8	11.1	20.3	68.6	5.10
	다인가구	(729)	1.9	3.2	5.6	22.1	26.7	22.5	18.0	10.7	22.1	67.2	5.08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2	2.2	6.6	24.6	28.2	22.0	14.2	11.0	24.6	64.4	4.97
	임차	(500)	2.8	4.0	3.8	18.6	24.0	24.6	22.2	10.6	18.6	70.8	5.20
주택유형	아파트	(500)	2.6	3.4	6.4	23.2	27.4	21.8	15.2	12.4	23.2	64.4	4.9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2	2.9	4.1	21.1	26.4	25.8	18.5	8.2	21.1	70.7	5.2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5.0	2.5	3.8	17.6	21.4	22.6	27.0	11.3	17.6	71.1	5.24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4	1.9	3.9	20.8	26.1	24.2	20.8	8.2	20.8	71.0	5.25
	2분위(268~402만원)	(128)	0.8	2.3	3.9	18.8	25.0	25.8	23.4	7.0	18.8	74.2	5.37
	3분위(403~588만원)	(291)	3.4	3.1	5.2	22.0	23.0	25.8	17.5	11.7	22.0	66.3	5.03
	4분위(589~1,042만원)	(313)	2.9	4.2	6.4	21.4	30.0	20.1	15.0	13.4	21.4	65.2	4.92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3.3	6.6	29.5	23.0	19.7	18.0	9.8	29.5	60.7	5.03

[전월세 사기(빌라왕) 사건]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4	0.5	1.8	8.0	11.5	19.5	58.3	2.7	8.0	89.3	6.21
연령	청년층	(242)	0.0	0.8	1.7	9.9	11.2	16.5	59.9	2.5	9.9	87.6	6.21
	중/장년층	(698)	0.6	0.3	1.9	7.6	11.7	20.5	57.4	2.7	7.6	89.7	6.21
	노년층	(60)	0.0	1.7	1.7	5.0	10.0	20.0	61.7	3.3	5.0	91.7	6.30
지역	서울	(365)	0.3	0.5	1.9	6.3	11.8	17.5	61.6	2.7	6.3	91.0	6.28
	인천	(116)	1.7	1.7	2.6	6.0	9.5	19.0	59.5	6.0	6.0	87.9	6.15
	경기	(519)	0.2	0.2	1.5	9.6	11.8	21.0	55.7	1.9	9.6	88.4	6.18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0	1.1	1.5	6.3	9.2	18.5	63.5	2.6	6.3	91.1	6.33
	다인가구	(729)	0.5	0.3	1.9	8.6	12.3	19.9	56.4	2.7	8.6	88.6	6.17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8	0.4	2.2	8.6	14.0	21.8	52.2	3.4	8.6	88.0	6.09
	임차	(500)	0.0	0.6	1.4	7.4	9.0	17.2	64.4	2.0	7.4	90.6	6.34
주택유형	아파트	(500)	0.8	0.2	2.4	8.6	14.2	21.0	52.8	3.4	8.6	88.0	6.0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0	1.2	1.2	9.1	9.4	16.7	62.5	2.3	9.1	88.6	6.2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0.0	1.3	3.8	7.5	20.8	66.7	1.3	3.8	95.0	6.48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1.0	0.5	7.2	7.2	18.8	64.7	1.9	7.2	90.8	6.36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0.0	7.8	9.4	18.0	64.1	0.8	7.8	91.4	6.37
	3분위(403~588만원)	(291)	0.3	0.0	1.7	6.5	13.4	19.6	58.4	2.1	6.5	91.4	6.24
	4분위(589~1,042만원)	(313)	0.6	0.3	3.2	9.6	11.5	21.7	53.0	4.2	9.6	86.3	6.08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1.6	3.3	9.8	21.3	13.1	50.8	4.9	9.8	85.2	5.93

[역전세난]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0	0.8	3.1	14.9	23.8	28.8	27.6	4.9	14.9	80.2	5.57
연령	청년층	(242)	0.8	0.4	3.7	14.9	21.9	26.4	31.8	5.0	14.9	80.2	5.63
	중/장년층	(698)	1.0	1.0	3.0	15.0	24.4	29.7	25.9	5.0	15.0	79.9	5.53
	노년층	(60)	1.7	0.0	1.7	13.3	25.0	28.3	30.0	3.3	13.3	83.3	5.65
지역	서울	(365)	0.8	0.5	3.3	16.2	25.8	23.3	30.1	4.7	16.2	79.2	5.56
	인천	(116)	0.0	1.7	1.7	12.1	21.6	27.6	35.3	3.4	12.1	84.5	5.78
	경기	(519)	1.3	0.8	3.3	14.6	22.9	32.9	24.1	5.4	14.6	80.0	5.52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7	1.1	2.6	14.4	21.0	28.4	31.7	4.4	14.4	81.2	5.66
	다인가구	(729)	1.1	0.7	3.3	15.1	24.8	28.9	26.1	5.1	15.1	79.8	5.5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8	0.6	3.4	17.0	26.2	31.8	20.2	4.8	17.0	78.2	5.43
	임차	(500)	1.2	1.0	2.8	12.8	21.4	25.8	35.0	5.0	12.8	82.2	5.70
주택유형	아파트	(500)	1.2	0.6	3.8	17.4	26.0	30.2	20.8	5.6	17.4	77.0	5.4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6	0.6	3.2	14.1	22.3	24.9	34.3	4.4	14.1	81.5	5.69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3	1.9	0.6	8.8	20.1	32.7	34.6	3.8	8.8	87.4	5.81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0	0.0	0.5	14.5	21.7	27.1	35.3	1.4	14.5	84.1	5.80
	2분위(268~402만원)	(128)	0.8	0.0	2.3	14.1	22.7	29.7	30.5	3.1	14.1	82.8	5.70
	3분위(403~588만원)	(291)	1.0	1.4	2.7	15.8	22.7	29.2	27.1	5.2	15.8	79.0	5.53
	4분위(589~1,042만원)	(313)	1.3	1.3	4.8	13.4	27.2	29.1	23.0	7.3	13.4	79.2	5.4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6.6	21.3	21.3	29.5	21.3	6.6	21.3	72.1	5.38

[임대차 분쟁 증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4	0.4	2.1	12.5	27.4	26.0	31.2	2.9	12.5	84.6	5.69
연령	청년층	(242)	0.4	0.4	1.2	10.7	25.2	22.3	39.7	2.1	10.7	87.2	5.86
	중/장년층	(698)	0.4	0.4	2.6	13.0	27.7	28.2	27.7	3.4	13.0	83.5	5.62
	노년층	(60)	0.0	0.0	0.0	13.3	33.3	15.0	38.3	0.0	13.3	86.7	5.78
지역	서울	(365)	0.8	0.5	1.4	11.2	28.2	23.3	34.5	2.7	11.2	86.0	5.73
	인천	(116)	0.9	0.0	4.3	15.5	23.3	28.4	27.6	5.2	15.5	79.3	5.56
	경기	(519)	0.0	0.4	2.1	12.7	27.7	27.4	29.7	2.5	12.7	84.8	5.69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7	0.0	1.8	10.3	23.2	29.5	34.3	2.6	10.3	87.1	5.81
	다인가구	(729)	0.3	0.5	2.2	13.3	28.9	24.7	30.0	3.0	13.3	83.7	5.64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6	0.2	2.4	14.2	32.4	28.0	22.2	3.2	14.2	82.6	5.50
	임차	(500)	0.2	0.6	1.8	10.8	22.4	24.0	40.2	2.6	10.8	86.6	5.87
주택유형	아파트	(500)	0.6	0.4	2.8	15.2	31.2	25.4	24.4	3.8	15.2	81.0	5.5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3	0.6	0.6	10.6	23.8	26.4	37.8	1.5	10.6	88.0	5.8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0.0	3.1	8.2	23.3	27.0	38.4	3.1	8.2	88.7	5.89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0	1.4	10.6	23.7	24.2	39.6	1.9	10.6	87.4	5.90
	2분위(268~402만원)	(128)	0.0	0.0	0.8	10.9	25.0	24.2	39.1	0.8	10.9	88.3	5.91
	3분위(403~588만원)	(291)	0.7	0.7	1.7	11.7	31.3	24.4	29.6	3.1	11.7	85.2	5.62
	4분위(589~1,042만원)	(313)	0.3	0.6	2.6	14.1	29.1	29.4	24.0	3.5	14.1	82.4	5.5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6.6	18.0	18.0	26.2	31.1	6.6	18.0	75.4	5.57

[주택거래 사상 최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2.2	3.0	4.9	21.1	24.4	22.6	21.8	10.1	21.1	68.8	5.18
연령	청년층	(242)	2.9	3.3	5.0	20.2	25.2	20.7	22.7	11.2	20.2	68.6	5.14
	중/장년층	(698)	2.1	3.2	5.0	21.3	24.8	22.8	20.8	10.3	21.3	68.3	5.15
	노년층	(60)	0.0	0.0	3.3	21.7	16.7	28.3	30.0	3.3	21.7	75.0	5.60
지역	서울	(365)	2.2	3.6	5.2	22.5	24.7	21.9	20.0	11.0	22.5	66.6	5.10
	인천	(116)	2.6	2.6	2.6	16.4	26.7	19.8	29.3	7.8	16.4	75.9	5.39
	경기	(519)	2.1	2.7	5.2	21.2	23.7	23.7	21.4	10.0	21.2	68.8	5.18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7	3.7	4.1	22.1	23.2	21.8	21.4	11.4	22.1	66.4	5.08
	다인가구	(729)	1.6	2.7	5.2	20.7	24.8	22.9	21.9	9.6	20.7	69.7	5.21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4	3.2	6.2	21.2	27.6	23.0	17.4	10.8	21.2	68.0	5.09
	임차	(500)	3.0	2.8	3.6	21.0	21.2	22.2	26.2	9.4	21.0	69.6	5.26
주택유형	아파트	(500)	2.4	3.6	5.0	21.6	26.0	22.8	18.6	11.0	21.6	67.4	5.08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2.1	5.9	21.7	22.3	23.5	23.8	8.8	21.7	69.5	5.28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4.4	3.1	2.5	18.2	23.9	20.1	27.7	10.1	18.2	71.7	5.25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9	2.9	4.3	22.2	23.2	18.4	27.1	9.2	22.2	68.6	5.29
	2분위(268~402만원)	(128)	0.8	0.8	2.3	24.2	19.5	25.0	27.3	3.9	24.2	71.9	5.45
	3분위(403~588만원)	(291)	3.4	2.7	4.5	21.0	25.8	24.4	18.2	10.7	21.0	68.4	5.07
	4분위(589~1,042만원)	(313)	2.2	4.8	5.1	18.5	26.5	23.6	19.2	12.1	18.5	69.3	5.10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13.1	24.6	21.3	18.0	23.0	13.1	24.6	62.3	5.13

[3기 신도시 청약 지연]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8	1.5	5.6	26.1	30.3	20.8	13.9	8.9	26.1	65.0	5.00
연령	청년층	(242)	1.7	0.4	5.0	24.4	35.1	19.8	13.6	7.0	24.4	68.6	5.05
	중/장년층	(698)	2.0	1.7	5.9	27.8	27.9	20.6	14.0	9.6	27.8	62.6	4.96
	노년층	(60)	0.0	3.3	5.0	13.3	38.3	26.7	13.3	8.3	13.3	78.3	5.20
지역	서울	(365)	2.7	1.1	6.6	23.3	31.5	22.5	12.3	10.4	23.3	66.3	4.96
	인천	(116)	0.9	2.6	4.3	35.3	21.6	16.4	19.0	7.8	35.3	56.9	4.99
	경기	(519)	1.3	1.5	5.2	26.0	31.4	20.6	13.9	8.1	26.0	65.9	5.02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1	0.7	4.1	27.7	30.6	22.9	12.9	5.9	27.7	66.4	5.06
	다인가구	(729)	2.1	1.8	6.2	25.5	30.2	20.0	14.3	10.0	25.5	64.5	4.97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4	2.2	6.8	27.8	31.0	20.6	9.2	11.4	27.8	60.8	4.81
	임차	(500)	1.2	0.8	4.4	24.4	29.6	21.0	18.6	6.4	24.4	69.2	5.18
주택유형	아파트	(500)	2.2	2.4	6.8	27.6	29.6	19.8	11.6	11.4	27.6	61.0	4.8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5	0.6	4.7	23.5	31.4	21.4	17.0	6.7	23.5	69.8	5.1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3	0.6	3.8	27.0	30.2	22.6	14.5	5.7	27.0	67.3	5.1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4	0.5	4.8	25.1	32.4	16.4	19.3	6.8	25.1	68.1	5.15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3.1	25.8	35.2	25.8	9.4	3.9	25.8	70.3	5.10
	3분위(403~588만원)	(291)	2.4	1.4	4.1	27.8	27.8	23.7	12.7	7.9	27.8	64.3	4.98
	4분위(589~1,042만원)	(313)	2.2	2.6	8.6	24.3	29.4	19.8	13.1	13.4	24.3	62.3	4.88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6	4.9	31.1	29.5	16.4	14.8	8.2	31.1	60.7	4.93

[분양가 상승]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4	0.8	2.2	11.9	22.0	28.4	34.3	3.4	11.9	84.7	5.77
연령	청년층	(242)	0.4	0.8	0.4	12.4	27.3	24.8	33.9	1.7	12.4	86.0	5.75
	중/장년층	(698)	0.4	0.9	2.9	12.0	20.5	29.4	34.0	4.2	12.0	83.8	5.75
	노년층	(60)	0.0	0.0	1.7	8.3	18.3	31.7	40.0	1.7	8.3	90.0	6.00
지역	서울	(365)	0.3	1.1	1.9	11.5	24.9	24.1	36.2	3.3	11.5	85.2	5.77
	인천	(116)	1.7	0.9	2.6	9.5	21.6	20.7	43.1	5.2	9.5	85.3	5.83
	경기	(519)	0.2	0.6	2.3	12.7	20.0	33.1	31.0	3.1	12.7	84.2	5.75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4	0.4	2.2	10.7	22.1	27.3	36.9	3.0	10.7	86.3	5.83
	다인가구	(729)	0.4	1.0	2.2	12.3	21.9	28.8	33.3	3.6	12.3	84.1	5.74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6	0.6	3.0	14.2	25.2	30.0	26.4	4.2	14.2	81.6	5.58
	임차	(500)	0.2	1.0	1.4	9.6	18.8	26.8	42.2	2.6	9.6	87.8	5.95
주택유형	아파트	(500)	0.4	1.2	3.0	13.8	23.6	30.6	27.4	4.6	13.8	81.6	5.6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3	0.6	1.8	9.7	20.8	27.3	39.6	2.6	9.7	87.7	5.9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6	0.0	0.6	10.7	19.5	23.9	44.7	1.3	10.7	88.1	5.99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0	1.9	10.6	19.3	24.2	43.5	2.4	10.6	87.0	5.95
	2분위(268~402만원)	(128)	0.0	0.0	3.1	10.2	15.6	36.7	34.4	3.1	10.2	86.7	5.92
	3분위(403~588만원)	(291)	0.7	1.7	0.7	11.3	20.6	30.9	34.0	3.1	11.3	85.6	5.77
	4분위(589~1,042만원)	(313)	0.3	1.0	3.5	12.5	25.6	26.5	30.7	4.8	12.5	82.7	5.64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1.6	19.7	32.8	23.0	23.0	1.6	19.7	78.7	5.46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최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2.8	2.4	4.9	24.6	25.9	22.1	17.3	10.1	24.6	65.3	5.04
연령	청년층	(242)	2.9	2.1	3.3	21.9	24.4	24.0	21.5	8.3	21.9	69.8	5.21
	중/장년층	(698)	2.7	2.4	5.9	26.6	25.9	21.2	15.2	11.0	26.6	62.3	4.95
	노년층	(60)	3.3	3.3	0.0	11.7	31.7	25.0	25.0	6.7	11.7	81.7	5.40
지역	서울	(365)	4.4	1.4	4.7	24.9	24.7	21.4	18.6	10.4	24.9	64.7	5.03
	인천	(116)	3.4	3.4	4.3	22.4	24.1	22.4	19.8	11.2	22.4	66.4	5.07
	경기	(519)	1.5	2.9	5.2	24.9	27.2	22.5	15.8	9.6	24.9	65.5	5.04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2.6	3.0	4.8	24.0	22.9	20.7	22.1	10.3	24.0	65.7	5.12
	다인가구	(729)	2.9	2.2	4.9	24.8	27.0	22.6	15.5	10.0	24.8	65.2	5.01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8	2.0	6.6	26.2	28.0	21.8	12.6	11.4	26.2	62.4	4.90
	임차	(500)	2.8	2.8	3.2	23.0	23.8	22.4	22.0	8.8	23.0	68.2	5.17
주택유형	아파트	(500)	2.8	2.8	6.0	25.6	26.0	22.8	14.0	11.6	25.6	62.8	4.94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2.3	2.1	2.9	23.2	28.7	21.7	19.1	7.3	23.2	69.5	5.1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8	1.9	5.7	24.5	19.5	20.8	23.9	11.3	24.5	64.2	5.1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9	2.9	2.4	27.1	24.2	19.3	21.3	8.2	27.1	64.7	5.12
	2분위(268~402만원)	(128)	0.8	1.6	2.3	20.3	27.3	25.8	21.9	4.7	20.3	75.0	5.36
	3분위(403~588만원)	(291)	3.8	1.7	5.2	24.7	25.1	25.1	14.4	10.7	24.7	64.6	4.98
	4분위(589~1,042만원)	(313)	2.6	3.2	6.4	24.9	27.8	20.4	14.7	12.1	24.9	62.9	4.92
	5분위(1,043만원 이상)	(61)	3.3	1.6	9.8	23.0	23.0	18.0	21.3	14.8	23.0	62.3	5.00

[영끌·빚투로 가계 빚 증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8	0.7	1.8	12.2	19.0	25.1	40.4	3.3	12.2	84.5	5.85
연령	청년층	(242)	1.7	0.8	1.7	16.1	19.4	26.0	34.3	4.1	16.1	79.8	5.66
	중/장년층	(698)	0.6	0.7	1.9	11.3	18.9	24.1	42.6	3.2	11.3	85.5	5.90
	노년층	(60)	0.0	0.0	1.7	6.7	18.3	33.3	40.0	1.7	6.7	91.7	6.03
지역	서울	(365)	0.8	1.4	2.5	13.2	18.1	21.6	42.5	4.7	13.2	82.2	5.81
	인천	(116)	1.7	0.0	1.7	9.5	20.7	22.4	44.0	3.4	9.5	87.1	5.91
	경기	(519)	0.6	0.4	1.3	12.1	19.3	28.1	38.2	2.3	12.1	85.5	5.86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1	0.7	1.5	15.1	17.7	25.8	38.0	3.3	15.1	81.5	5.77
	다인가구	(729)	0.7	0.7	1.9	11.1	19.5	24.8	41.3	3.3	11.1	85.6	5.88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8	0.6	2.6	11.6	22.8	25.8	35.8	4.0	11.6	84.4	5.76
	임차	(500)	0.8	0.8	1.0	12.8	15.2	24.4	45.0	2.6	12.8	84.6	5.94
주택유형	아파트	(500)	0.8	0.6	2.8	12.0	22.6	24.6	36.6	4.2	12.0	83.8	5.75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0.9	0.9	12.6	15.5	27.0	42.2	2.6	12.6	84.8	5.9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6	0.6	0.6	11.9	15.1	22.6	48.4	1.9	11.9	86.2	6.0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5	0.5	12.6	15.0	27.5	43.5	1.4	12.6	86.0	6.01
	2분위(268~402만원)	(128)	0.8	0.0	1.6	11.7	15.6	22.7	47.7	2.3	11.7	85.9	6.01
	3분위(403~588만원)	(291)	0.7	0.7	2.4	15.1	18.6	23.4	39.2	3.8	15.1	81.1	5.75
	4분위(589~1,042만원)	(313)	1.0	1.0	2.2	9.3	23.0	27.5	36.1	4.2	9.3	86.6	5.79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6	1.6	13.1	21.3	18.0	42.6	4.9	13.1	82.0	5.75

[전세값 상승]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7	1.7	3.5	15.3	25.4	26.3	27.1	5.9	15.3	78.8	5.50
연령	청년층	(242)	0.4	1.2	3.3	13.6	22.3	24.4	34.7	5.0	13.6	81.4	5.68
	중/장년층	(698)	0.7	1.7	3.6	16.2	26.5	26.5	24.8	6.0	16.2	77.8	5.45
	노년층	(60)	1.7	3.3	3.3	11.7	25.0	31.7	23.3	8.3	11.7	80.0	5.43
지역	서울	(365)	1.4	2.2	3.8	15.1	23.8	27.1	26.6	7.4	15.1	77.5	5.45
	인천	(116)	0.0	0.9	2.6	12.9	28.4	29.3	25.9	3.4	12.9	83.6	5.60
	경기	(519)	0.4	1.5	3.5	16.0	25.8	25.0	27.7	5.4	16.0	78.6	5.5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4	1.5	1.1	15.5	24.7	24.7	32.1	3.0	15.5	81.5	5.65
	다인가구	(729)	0.8	1.8	4.4	15.2	25.7	26.9	25.2	7.0	15.2	77.8	5.45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0	2.2	4.2	18.8	29.2	27.0	17.6	7.4	18.8	73.8	5.24
	임차	(500)	0.4	1.2	2.8	11.8	21.6	25.6	36.6	4.4	11.8	83.8	5.76
주택유형	아파트	(500)	0.6	2.0	4.0	19.6	27.2	26.4	20.2	6.6	19.6	73.8	5.31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1.5	2.6	10.9	23.5	28.2	32.6	5.0	10.9	84.2	5.69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6	1.3	3.8	11.3	23.9	22.0	37.1	5.7	11.3	83.0	5.71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5	2.4	11.6	22.2	25.1	37.7	3.4	11.6	85.0	5.83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1.6	14.1	24.2	25.8	33.6	2.3	14.1	83.6	5.73
	3분위(403~588만원)	(291)	1.4	1.7	3.1	14.8	27.5	28.9	22.7	6.2	14.8	79.0	5.42
	4분위(589~1,042만원)	(313)	0.3	2.6	5.1	17.3	26.5	25.2	23.0	8.0	17.3	74.8	5.3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3.3	4.9	23.0	23.0	24.6	19.7	9.8	23.0	67.2	5.1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의 ‘건설사’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
지 않다 혹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2.5	1.4	4.0	14.5	26.7	28.7	22.2	7.9	14.5	77.6	5.36
연령	청년층	(242)	2.9	0.8	5.8	11.2	31.4	30.2	17.8	9.5	11.2	79.3	5.29
	중/장년층	(698)	2.3	1.7	3.6	15.6	25.8	27.5	23.5	7.6	15.6	76.8	5.37
	노년층	(60)	3.3	0.0	1.7	15.0	18.3	36.7	25.0	5.0	15.0	80.0	5.55
지역	서울	(365)	3.6	1.4	4.9	14.0	26.0	27.4	22.7	9.9	14.0	76.2	5.31
	인천	(116)	1.7	1.7	1.7	19.0	24.1	26.7	25.0	5.2	19.0	75.9	5.42
	경기	(519)	1.9	1.3	3.9	13.9	27.7	30.1	21.2	7.1	13.9	79.0	5.39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4.1	0.4	4.8	12.9	29.2	27.3	21.4	9.2	12.9	77.9	5.30
	다인가구	(729)	1.9	1.8	3.7	15.1	25.8	29.2	22.5	7.4	15.1	77.5	5.39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8	2.0	4.0	14.8	29.6	27.2	20.6	7.8	14.8	77.4	5.32
	임차	(500)	3.2	0.8	4.0	14.2	23.8	30.2	23.8	8.0	14.2	77.8	5.40
주택유형	아파트	(500)	2.2	2.2	3.8	16.2	28.2	26.6	20.8	8.2	16.2	75.6	5.2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2.3	0.6	3.8	12.0	25.5	33.4	22.3	6.7	12.0	81.2	5.4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8	0.6	5.0	14.5	24.5	25.2	26.4	9.4	14.5	76.1	5.3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9	0.0	2.4	17.9	23.7	30.9	23.2	4.3	17.9	77.8	5.48
	2분위(268~402만원)	(128)	2.3	0.8	2.3	13.3	27.3	35.2	18.8	5.5	13.3	81.3	5.44
	3분위(403~588만원)	(291)	3.8	1.7	4.5	14.8	25.1	26.8	23.4	10.0	14.8	75.3	5.29
	4분위(589~1,042만원)	(313)	2.2	1.9	5.4	13.1	27.5	26.8	23.0	9.6	13.1	77.3	5.34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3.3	3.3	11.5	39.3	26.2	16.4	6.6	11.5	82.0	5.31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5	0.7	3.1	10.5	21.9	28.6	34.7	4.3	10.5	85.2	5.77
연령	청년층	(242)	0.4	0.8	3.7	10.7	25.6	27.7	31.0	5.0	10.7	84.3	5.67
	중/장년층	(698)	0.4	0.6	2.9	11.0	20.9	28.4	35.8	3.9	11.0	85.1	5.80
	노년층	(60)	1.7	1.7	3.3	3.3	18.3	35.0	36.7	6.7	3.3	90.0	5.87
지역	서울	(365)	0.5	0.8	2.5	11.0	22.2	27.9	35.1	3.8	11.0	85.2	5.78
	인천	(116)	1.7	0.0	3.4	6.9	23.3	24.1	40.5	5.2	6.9	87.9	5.84
	경기	(519)	0.2	0.8	3.5	11.0	21.4	30.1	33.1	4.4	11.0	84.6	5.75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7	0.7	3.0	10.3	25.5	25.8	33.9	4.4	10.3	85.2	5.72
	다인가구	(729)	0.4	0.7	3.2	10.6	20.6	29.6	35.0	4.3	10.6	85.2	5.79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2	0.6	4.2	12.4	21.2	30.2	31.2	5.0	12.4	82.6	5.69
	임차	(500)	0.8	0.8	2.0	8.6	22.6	27.0	38.2	3.6	8.6	87.8	5.85
주택유형	아파트	(500)	0.2	0.4	4.0	13.0	21.8	28.2	32.4	4.6	13.0	82.4	5.7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1.2	2.9	7.6	22.0	29.3	36.1	5.0	7.6	87.4	5.8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6	0.6	0.6	8.8	22.0	28.3	39.0	1.9	8.8	89.3	5.9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0	1.0	2.9	12.1	17.9	26.6	38.6	4.8	12.1	83.1	5.79
	2분위(268~402만원)	(128)	0.8	0.0	1.6	11.7	21.9	25.0	39.1	2.3	11.7	85.9	5.88
	3분위(403~588만원)	(291)	0.0	0.3	2.7	6.9	24.1	30.2	35.7	3.1	6.9	90.0	5.87
	4분위(589~1,042만원)	(313)	0.6	1.0	3.2	12.1	22.4	28.4	32.3	4.8	12.1	83.1	5.69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1.6	8.2	11.5	23.0	36.1	19.7	9.8	11.5	78.7	5.43

[건설자재가격 폭등]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0	0.9	2.3	12.7	22.4	32.4	28.3	4.2	12.7	83.1	5.65
연령	청년층	(242)	1.7	1.2	3.7	18.6	22.7	29.8	22.3	6.6	18.6	74.8	5.38
	중/장년층	(698)	0.7	0.9	2.0	11.2	22.6	33.0	29.7	3.6	11.2	85.2	5.72
	노년층	(60)	1.7	0.0	0.0	6.7	18.3	36.7	36.7	1.7	6.7	91.7	5.97
지역	서울	(365)	1.6	1.1	3.0	15.1	22.7	31.0	25.5	5.8	15.1	79.2	5.51
	인천	(116)	0.0	0.9	0.9	8.6	25.9	29.3	34.5	1.7	8.6	89.7	5.85
	경기	(519)	0.8	0.8	2.1	11.9	21.4	34.1	28.9	3.7	11.9	84.4	5.70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5	0.7	1.1	14.8	26.9	30.3	24.7	3.3	14.8	81.9	5.55
	다인가구	(729)	0.8	1.0	2.7	11.9	20.7	33.2	29.6	4.5	11.9	83.5	5.69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6	0.8	3.2	10.8	24.4	33.6	26.6	4.6	10.8	84.6	5.65
	임차	(500)	1.4	1.0	1.4	14.6	20.4	31.2	30.0	3.8	14.6	81.6	5.65
주택유형	아파트	(500)	0.8	1.0	3.0	13.2	23.0	31.2	27.8	4.8	13.2	82.0	5.61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1.2	1.8	12.9	21.1	33.4	28.7	3.8	12.9	83.3	5.67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9	0.0	1.3	10.7	23.3	34.0	28.9	3.1	10.7	86.2	5.71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0	0.5	0.5	15.5	19.3	34.3	29.0	1.9	15.5	82.6	5.72
	2분위(268~402만원)	(128)	0.8	0.8	3.1	6.3	27.3	39.8	21.9	4.7	6.3	89.1	5.68
	3분위(403~588만원)	(291)	1.7	0.7	1.4	12.0	20.3	34.0	29.9	3.8	12.0	84.2	5.68
	4분위(589~1,042만원)	(313)	0.3	1.3	3.5	14.7	23.6	28.4	28.1	5.1	14.7	80.2	5.58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6	4.9	9.8	26.2	23.0	32.8	8.2	9.8	82.0	5.57

[건설 카르텔]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심각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심각 하다	심각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심각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4	0.7	2.5	11.5	19.7	26.2	39.0	3.6	11.5	84.9	5.84
연령	청년층	(242)	0.8	0.8	1.2	14.0	25.2	25.2	32.6	2.9	14.0	83.1	5.68
	중/장년층	(698)	0.3	0.7	3.2	11.3	18.1	25.6	40.8	4.2	11.3	84.5	5.86
	노년층	(60)	0.0	0.0	0.0	3.3	16.7	36.7	43.3	0.0	3.3	96.7	6.20
지역	서울	(365)	0.5	1.1	1.9	11.8	19.5	24.7	40.5	3.6	11.8	84.7	5.85
	인천	(116)	1.7	0.9	0.9	12.1	13.8	22.4	48.3	3.4	12.1	84.5	5.96
	경기	(519)	0.0	0.4	3.3	11.2	21.2	28.1	35.8	3.7	11.2	85.2	5.8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7	0.4	1.1	12.2	22.9	25.8	36.9	2.2	12.2	85.6	5.81
	다인가구	(729)	0.3	0.8	3.0	11.2	18.5	26.3	39.8	4.1	11.2	84.6	5.85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0.2	0.8	3.4	12.6	18.6	28.4	36.0	4.4	12.6	83.0	5.78
	임차	(500)	0.6	0.6	1.6	10.4	20.8	24.0	42.0	2.8	10.4	86.8	5.90
주택유형	아파트	(500)	0.2	1.0	3.6	13.2	18.8	25.4	37.8	4.8	13.2	82.0	5.77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0.6	2.1	8.5	21.4	29.0	37.5	3.5	8.5	88.0	5.8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0.0	0.0	12.6	18.9	22.6	45.9	0.0	12.6	87.4	6.0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5	1.4	9.7	23.2	22.2	42.5	2.4	9.7	87.9	5.92
	2분위(268~402만원)	(128)	0.8	0.0	2.3	12.5	18.8	24.2	41.4	3.1	12.5	84.4	5.89
	3분위(403~588만원)	(291)	0.7	0.0	2.1	9.3	19.6	29.2	39.2	2.7	9.3	88.0	5.91
	4분위(589~1,042만원)	(313)	0.0	1.9	3.2	13.1	19.2	27.2	35.5	5.1	13.1	81.8	5.7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4.9	18.0	13.1	24.6	39.3	4.9	18.0	77.0	5.75

■ LH 관련 언론기사 평가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각 사업 분야가 국민 주거 안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품질]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음 (①+②+③)	보통 (④)	중요함 (⑤+⑥+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0.7	1.2	3.9	13.8	22.3	26.1	32.0	5.8	13.8	80.4	5.62
연령	청년층	(242)	0.8	1.2	2.5	14.9	25.6	25.6	29.3	4.5	14.9	80.6	5.57
	중/장년층	(698)	0.7	1.1	4.6	13.9	21.8	25.5	32.4	6.4	13.9	79.7	5.61
	노년층	(60)	0.0	1.7	1.7	8.3	15.0	35.0	38.3	3.3	8.3	88.3	5.95
지역	서울	(365)	1.4	1.4	3.6	15.1	23.6	23.3	31.8	6.3	15.1	78.6	5.55
	인천	(116)	0.9	1.7	1.7	13.8	19.8	24.1	37.9	4.3	13.8	81.9	5.74
	경기	(519)	0.2	1.0	4.6	12.9	22.0	28.5	30.8	5.8	12.9	81.3	5.64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0.4	0.4	1.8	15.9	24.0	24.7	32.8	2.6	15.9	81.5	5.68
	다인가구	(729)	0.8	1.5	4.7	13.0	21.7	26.6	31.7	7.0	13.0	80.0	5.60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0	1.6	5.4	14.0	24.2	25.4	28.4	8.0	14.0	78.0	5.49
	임차	(500)	0.4	0.8	2.4	13.6	20.4	26.8	35.6	3.6	13.6	82.8	5.76
주택유형	아파트	(500)	0.6	1.6	5.2	13.4	22.6	27.4	29.2	7.4	13.4	79.2	5.55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2	0.6	3.2	12.9	22.0	26.4	33.7	5.0	12.9	82.1	5.68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0.0	1.3	1.3	17.0	22.0	21.4	37.1	2.5	17.0	80.5	5.7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0.5	0.5	2.4	14.5	17.9	24.2	40.1	3.4	14.5	82.1	5.81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2.3	15.6	20.3	27.3	33.6	3.1	15.6	81.3	5.75
	3분위(403~588만원)	(291)	0.3	1.4	4.8	13.4	22.7	26.8	30.6	6.5	13.4	80.1	5.59
	4분위(589~1,042만원)	(313)	1.6	1.9	3.2	12.8	25.6	25.9	29.1	6.7	12.8	80.5	5.5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0.0	11.5	14.8	23.0	27.9	23.0	11.5	14.8	73.8	5.36

[주거복지]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음 (①+②+③)	보통 (④)	중요함 (⑤+⑥+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1	1.8	3.0	13.5	23.3	27.5	29.8	5.9	13.5	80.6	5.58
연령	청년층	(242)	0.8	1.7	2.5	13.2	19.8	28.9	33.1	5.0	13.2	81.8	5.69
	중/장년층	(698)	1.3	1.7	3.4	13.9	24.2	26.8	28.7	6.4	13.9	79.7	5.53
	노년층	(60)	0.0	3.3	0.0	10.0	26.7	30.0	30.0	3.3	10.0	86.7	5.70
지역	서울	(365)	1.4	1.6	3.0	14.2	24.7	25.5	29.6	6.0	14.2	79.7	5.54
	인천	(116)	2.6	1.7	0.9	8.6	26.7	27.6	31.9	5.2	8.6	86.2	5.66
	경기	(519)	0.6	1.9	3.5	14.1	21.6	28.9	29.5	6.0	14.1	80.0	5.59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5	1.5	2.2	11.8	21.4	28.0	33.6	5.2	11.8	83.0	5.69
	다인가구	(729)	1.0	1.9	3.3	14.1	24.0	27.3	28.4	6.2	14.1	79.7	5.54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2	1.6	3.6	15.2	27.6	27.6	23.2	6.4	15.2	78.4	5.42
	임차	(500)	1.0	2.0	2.4	11.8	19.0	27.4	36.4	5.4	11.8	82.8	5.74
주택유형	아파트	(500)	1.2	1.2	3.0	15.2	26.6	27.4	25.4	5.4	15.2	79.4	5.4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0.9	2.3	3.2	11.1	21.1	29.3	32.0	6.5	11.1	82.4	5.6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3	2.5	2.5	13.2	17.6	23.9	39.0	6.3	13.2	80.5	5.71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9	1.4	1.4	13.5	16.4	26.6	38.6	4.8	13.5	81.6	5.75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3.1	9.4	25.8	26.6	34.4	3.9	9.4	86.7	5.79
	3분위(403~588만원)	(291)	1.4	2.4	3.4	11.7	23.7	30.2	27.1	7.2	11.7	81.1	5.54
	4분위(589~1,042만원)	(313)	1.0	1.9	3.2	16.3	25.2	27.2	25.2	6.1	16.3	77.6	5.4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1.6	4.9	16.4	29.5	21.3	26.2	6.6	16.4	77.0	5.43

[부동산시장 안정화]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중요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4	1.5	4.2	15.8	24.6	29.3	23.2	7.1	15.8	77.1	5.41
연령	청년층	(242)	1.2	1.2	4.1	17.8	26.0	31.0	18.6	6.6	17.8	75.6	5.33
	중/장년층	(698)	1.6	1.7	4.4	15.0	23.8	29.4	24.1	7.7	15.0	77.2	5.42
	노년층	(60)	0.0	0.0	1.7	16.7	28.3	21.7	31.7	1.7	16.7	81.7	5.65
지역	서울	(365)	1.9	1.1	3.6	16.7	25.8	28.2	22.7	6.6	16.7	76.7	5.39
	인천	(116)	2.6	3.4	1.7	12.1	23.3	28.4	28.4	7.8	12.1	80.2	5.49
	경기	(519)	0.8	1.3	5.2	16.0	24.1	30.3	22.4	7.3	16.0	76.7	5.4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1	1.5	3.0	19.9	24.0	28.4	22.1	5.5	19.9	74.5	5.38
	다인가구	(729)	1.5	1.5	4.7	14.3	24.8	29.6	23.6	7.7	14.3	78.1	5.4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4	1.4	3.6	17.4	25.8	29.6	20.8	6.4	17.4	76.2	5.37
	임차	(500)	1.4	1.6	4.8	14.2	23.4	29.0	25.6	7.8	14.2	78.0	5.46
주택유형	아파트	(500)	1.6	1.2	4.6	17.4	25.6	29.8	19.8	7.4	17.4	75.2	5.33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2	1.5	3.8	11.7	26.4	27.9	27.6	6.5	11.7	81.8	5.55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3	2.5	3.8	19.5	17.6	30.8	24.5	7.5	19.5	73.0	5.4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4	1.0	3.4	16.4	23.7	29.5	24.6	5.8	16.4	77.8	5.47
	2분위(268~402만원)	(128)	0.8	0.8	4.7	16.4	21.9	32.8	22.7	6.3	16.4	77.3	5.47
	3분위(403~588만원)	(291)	1.4	1.4	3.4	15.5	24.4	30.9	23.0	6.2	15.5	78.4	5.45
	4분위(589~1,042만원)	(313)	1.9	1.6	5.4	15.0	25.6	27.2	23.3	8.9	15.0	76.0	5.3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0.0	4.9	3.3	18.0	29.5	24.6	19.7	8.2	18.0	73.8	5.25

[사회공헌]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중요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3	1.3	3.7	19.6	29.1	28.8	16.2	6.3	19.6	74.1	5.25
연령	청년층	(242)	1.2	1.2	4.1	19.4	28.9	33.1	12.0	6.6	19.4	74.0	5.21
	중/장년층	(698)	1.4	1.3	3.6	20.2	28.9	26.6	17.9	6.3	20.2	73.5	5.26
	노년층	(60)	0.0	1.7	3.3	13.3	31.7	36.7	13.3	5.0	13.3	81.7	5.38
지역	서울	(365)	1.9	1.4	2.7	19.5	29.0	29.6	15.9	6.0	19.5	74.5	5.25
	인천	(116)	1.7	1.7	6.0	15.5	25.0	28.4	21.6	9.5	15.5	75.0	5.32
	경기	(519)	0.8	1.2	3.9	20.6	30.1	28.3	15.2	5.8	20.6	73.6	5.24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8	1.5	3.3	19.6	29.9	27.3	16.6	6.6	19.6	73.8	5.23
	다인가구	(729)	1.1	1.2	3.8	19.6	28.8	29.4	16.0	6.2	19.6	74.2	5.26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4	1.6	3.8	22.4	31.2	28.8	10.8	6.8	22.4	70.8	5.10
	임차	(500)	1.2	1.0	3.6	16.8	27.0	28.8	21.6	5.8	16.8	77.4	5.40
주택유형	아파트	(500)	1.0	1.8	4.2	21.6	30.4	29.0	12.0	7.0	21.6	71.4	5.14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1.5	0.6	3.2	16.4	28.4	27.9	22.0	5.3	16.4	78.3	5.4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1.9	1.3	3.1	20.1	26.4	30.2	17.0	6.3	20.1	73.6	5.2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1.4	0.5	2.4	15.5	25.1	32.4	22.7	4.3	15.5	80.2	5.50
	2분위(268~402만원)	(128)	0.0	0.0	4.7	20.3	32.8	23.4	18.8	4.7	20.3	75.0	5.32
	3분위(403~588만원)	(291)	1.7	1.4	2.7	16.8	32.3	31.6	13.4	5.8	16.8	77.3	5.26
	4분위(589~1,042만원)	(313)	1.3	2.2	5.4	22.4	29.4	25.2	14.1	8.9	22.4	68.7	5.08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6	1.6	31.1	18.0	32.8	13.1	4.9	31.1	63.9	5.13

[LH 기업경영]

구분		사례수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중요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2.5	2.4	5.2	21.0	26.8	24.4	17.7	10.1	21.0	68.9	5.11
연령	청년층	(242)	2.5	2.1	7.4	24.8	29.3	20.7	13.2	12.0	24.8	63.2	4.91
	중/장년층	(698)	2.6	2.6	4.9	20.1	26.4	25.1	18.5	10.0	20.1	69.9	5.14
	노년층	(60)	1.7	1.7	0.0	16.7	21.7	31.7	26.7	3.3	16.7	80.0	5.57
지역	서울	(365)	3.0	2.2	4.1	23.0	28.8	22.5	16.4	9.3	23.0	67.7	5.05
	인천	(116)	3.4	2.6	5.2	20.7	20.7	23.3	24.1	11.2	20.7	68.1	5.19
	경기	(519)	1.9	2.5	6.0	19.7	26.8	26.0	17.1	10.4	19.7	69.9	5.13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0	1.1	5.5	26.9	28.0	21.0	14.4	9.6	26.9	63.5	4.97
	다인가구	(729)	2.3	2.9	5.1	18.8	26.3	25.7	18.9	10.3	18.8	70.9	5.17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4	3.4	5.0	20.8	27.8	25.2	15.4	10.8	20.8	68.4	5.05
	임차	(500)	2.6	1.4	5.4	21.2	25.8	23.6	20.0	9.4	21.2	69.4	5.17
주택유형	아파트	(500)	2.4	3.2	5.2	21.6	27.2	24.8	15.6	10.8	21.6	67.6	5.05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2.6	1.8	5.3	20.2	26.4	25.2	18.5	9.7	20.2	70.1	5.1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2.5	1.3	5.0	20.8	26.4	21.4	22.6	8.8	20.8	70.4	5.2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9	1.0	4.3	23.2	23.2	24.6	20.8	8.2	23.2	68.6	5.17
	2분위(268~402만원)	(128)	0.0	0.8	6.3	28.1	23.4	22.7	18.8	7.0	28.1	64.8	5.21
	3분위(403~588만원)	(291)	3.4	2.4	4.8	18.6	26.8	26.1	17.9	10.7	18.6	70.8	5.13
	4분위(589~1,042만원)	(313)	2.6	4.2	5.1	18.8	27.8	24.6	16.9	11.8	18.8	69.3	5.07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6	1.6	8.2	21.3	41.0	18.0	8.2	11.5	21.3	67.2	4.85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각 사업이 국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품질]

구분		사례수	① 그다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 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도움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7.8	4.9	8.7	26.5	28.0	16.8	7.3	21.4	26.5	52.1	4.42
연령	청년층	(242)	7.0	5.4	8.7	25.6	28.5	16.5	8.3	21.1	25.6	53.3	4.46
	중/장년층	(698)	7.7	4.9	8.9	26.6	28.9	15.9	7.0	21.5	26.6	51.9	4.40
	노년층	(60)	11.7	3.3	6.7	28.3	15.0	28.3	6.7	21.7	28.3	50.0	4.43
지역	서울	(365)	10.4	3.6	10.1	25.2	26.3	18.1	6.3	24.1	25.2	50.7	4.37
	인천	(116)	10.3	6.9	6.0	29.3	19.8	14.7	12.9	23.3	29.3	47.4	4.33
	경기	(519)	5.4	5.4	8.3	26.8	31.0	16.4	6.7	19.1	26.8	54.1	4.49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0.3	5.5	8.5	31.4	24.7	13.7	5.9	24.4	31.4	44.3	4.19
	다인가구	(729)	6.9	4.7	8.8	24.7	29.2	18.0	7.8	20.3	24.7	55.0	4.50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7.0	4.0	9.6	23.8	30.4	18.8	6.4	20.6	23.8	55.6	4.49
	임차	(500)	8.6	5.8	7.8	29.2	25.6	14.8	8.2	22.2	29.2	48.6	4.35
주택유형	아파트	(500)	7.2	4.8	8.4	25.8	30.4	16.8	6.6	20.4	25.8	53.8	4.44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9.1	5.0	9.7	25.8	25.5	17.0	7.9	23.8	25.8	50.4	4.3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6.9	5.0	7.5	30.2	25.8	16.4	8.2	19.5	30.2	50.3	4.45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7.7	6.3	6.8	29.5	25.6	15.9	8.2	20.8	29.5	49.8	4.38
	2분위(268~402만원)	(128)	8.6	7.0	7.0	27.3	26.6	11.7	11.7	22.7	27.3	50.0	4.43
	3분위(403~588만원)	(291)	8.6	2.4	8.9	25.4	31.3	16.2	7.2	19.9	25.4	54.6	4.45
	4분위(589~1,042만원)	(313)	7.0	5.8	9.3	24.6	26.2	21.4	5.8	22.0	24.6	53.4	4.44
	5분위(1,043만원 이상)	(61)	6.6	3.3	14.8	29.5	32.8	9.8	3.3	24.6	29.5	45.9	4.21

[주거복지]

구분		사례수	① 그다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 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도움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4.7	6.1	7.9	23.7	28.1	20.5	9.0	18.7	23.7	57.6	4.62
연령	청년층	(242)	4.5	5.8	7.4	20.7	27.7	21.9	12.0	17.8	20.7	61.6	4.75
	중/장년층	(698)	5.0	5.7	8.0	25.4	28.7	19.2	8.0	18.8	25.4	55.9	4.57
	노년층	(60)	1.7	11.7	8.3	16.7	23.3	30.0	8.3	21.7	16.7	61.7	4.72
지역	서울	(365)	5.5	4.7	9.3	22.5	26.0	23.3	8.8	19.5	22.5	58.1	4.64
	인천	(116)	8.6	6.0	6.9	30.2	15.5	17.2	15.5	21.6	30.2	48.3	4.52
	경기	(519)	3.3	7.1	7.1	23.1	32.4	19.3	7.7	17.5	23.1	59.3	4.63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5.9	6.3	7.7	25.8	28.4	17.7	8.1	19.9	25.8	54.2	4.50
	다인가구	(729)	4.3	6.0	8.0	22.9	28.0	21.5	9.3	18.2	22.9	58.8	4.66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3.8	6.4	10.4	22.2	29.4	21.6	6.2	20.6	22.2	57.2	4.57
	임차	(500)	5.6	5.8	5.4	25.2	26.8	19.4	11.8	16.8	25.2	58.0	4.67
주택유형	아파트	(500)	4.4	6.4	9.0	23.0	28.2	21.6	7.4	19.8	23.0	57.2	4.5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5.9	6.2	6.5	24.0	27.0	20.5	10.0	18.5	24.0	57.5	4.62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1	5.0	7.5	25.2	30.2	17.0	11.9	15.7	25.2	59.1	4.7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6.3	5.3	6.3	25.6	27.5	17.4	11.6	17.9	25.6	56.5	4.62
	2분위(268~402만원)	(128)	3.9	4.7	9.4	27.3	24.2	20.3	10.2	18.0	27.3	54.7	4.66
	3분위(403~588만원)	(291)	4.8	6.5	8.2	21.6	27.1	23.0	8.6	19.6	21.6	58.8	4.62
	4분위(589~1,042만원)	(313)	4.2	6.4	6.7	23.3	30.7	20.4	8.3	17.3	23.3	59.4	4.6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3.3	8.2	14.8	21.3	29.5	19.7	3.3	26.2	21.3	52.5	4.38

[부동산시장 안정화]

구분		사례수	① 그다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 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도움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8.0	6.2	10.4	25.9	26.3	16.3	6.9	24.6	25.9	49.5	4.33
연령	청년층	(242)	7.9	8.7	13.2	22.3	25.2	16.5	6.2	29.8	22.3	47.9	4.23
	중/장년층	(698)	8.2	5.6	9.2	27.1	26.9	16.2	6.9	22.9	27.1	50.0	4.35
	노년층	(60)	6.7	3.3	13.3	26.7	23.3	16.7	10.0	23.3	26.7	50.0	4.47
지역	서울	(365)	8.8	6.6	12.1	26.0	25.8	14.5	6.3	27.4	26.0	46.6	4.22
	인천	(116)	7.8	7.8	6.9	26.7	26.7	18.1	6.0	22.4	26.7	50.9	4.35
	경기	(519)	7.5	5.6	10.0	25.6	26.6	17.1	7.5	23.1	25.6	51.3	4.40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8.5	8.5	14.0	26.6	21.4	14.8	6.3	31.0	26.6	42.4	4.13
	다인가구	(729)	7.8	5.3	9.1	25.7	28.1	16.9	7.1	22.2	25.7	52.1	4.40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6.8	5.6	9.8	25.8	27.8	17.0	7.2	22.2	25.8	52.0	4.42
	임차	(500)	9.2	6.8	11.0	26.0	24.8	15.6	6.6	27.0	26.0	47.0	4.24
주택유형	아파트	(500)	7.2	6.2	9.6	25.6	27.4	17.4	6.6	23.0	25.6	51.4	4.38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9.7	7.3	9.7	27.0	26.1	13.8	6.5	26.7	27.0	46.3	4.2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6.9	3.8	14.5	24.5	23.3	18.2	8.8	25.2	24.5	50.3	4.4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8.2	7.2	11.1	26.6	24.6	17.4	4.8	26.6	26.6	46.9	4.24
	2분위(268~402만원)	(128)	11.7	4.7	13.3	25.8	21.1	14.1	9.4	29.7	25.8	44.5	4.22
	3분위(403~588만원)	(291)	6.9	5.8	8.9	26.5	26.8	17.2	7.9	21.6	26.5	51.9	4.42
	4분위(589~1,042만원)	(313)	6.7	7.0	9.3	24.6	29.7	15.7	7.0	23.0	24.6	52.4	4.39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1.5	3.3	14.8	27.9	23.0	16.4	3.3	29.5	27.9	42.6	4.10

[사회공헌]

구분		사례수	① 그다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 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도움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6.7	5.2	8.2	28.6	27.5	18.9	4.9	20.1	28.6	51.3	4.41
연령	청년층	(242)	5.8	4.1	8.3	27.7	26.4	21.1	6.6	18.2	27.7	54.1	4.55
	중/장년층	(698)	7.2	5.4	8.5	29.2	27.8	17.8	4.2	21.1	29.2	49.7	4.35
	노년층	(60)	5.0	6.7	5.0	25.0	28.3	23.3	6.7	16.7	25.0	58.3	4.62
지역	서울	(365)	6.0	5.2	10.4	27.4	27.7	18.6	4.7	21.6	27.4	51.0	4.40
	인천	(116)	12.1	5.2	6.0	28.4	19.8	21.6	6.9	23.3	28.4	48.3	4.31
	경기	(519)	6.0	5.2	7.1	29.5	29.1	18.5	4.6	18.3	29.5	52.2	4.45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8.5	5.2	8.9	33.6	22.1	15.9	5.9	22.5	33.6	43.9	4.27
	다인가구	(729)	6.0	5.2	8.0	26.7	29.5	20.0	4.5	19.2	26.7	54.0	4.47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6.8	5.8	8.4	27.8	28.0	19.4	3.8	21.0	27.8	51.2	4.38
	임차	(500)	6.6	4.6	8.0	29.4	27.0	18.4	6.0	19.2	29.4	51.4	4.45
주택유형	아파트	(500)	7.4	5.2	8.0	27.6	29.2	17.4	5.2	20.6	27.6	51.8	4.39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6.2	5.3	8.5	27.0	28.7	20.2	4.1	19.9	27.0	53.1	4.44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5.7	5.0	8.2	35.2	19.5	20.8	5.7	18.9	35.2	45.9	4.4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6.3	4.3	7.7	31.4	24.6	19.3	6.3	18.4	31.4	50.2	4.48
	2분위(268~402만원)	(128)	6.3	4.7	12.5	27.3	25.0	18.0	6.3	23.4	27.3	49.2	4.39
	3분위(403~588만원)	(291)	7.2	5.2	5.8	29.9	26.1	19.6	6.2	18.2	29.9	51.9	4.46
	4분위(589~1,042만원)	(313)	6.1	6.4	8.6	25.6	32.3	18.2	2.9	21.1	25.6	53.4	4.38
	5분위(1,043만원 이상)	(61)	9.8	3.3	9.8	31.1	24.6	19.7	1.6	23.0	31.1	45.9	4.23

[내 기업경영]

구분		사례수	① 그다지 도움 되지 않았다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 되지 않음 (①+② +③)	보통 (④)	도움됨 (⑤+⑥ +⑦)	7점 평균
		(명)	(%)	(%)	(%)	(%)	(%)	(%)	(%)	(%)	(%)	(%)	(점)
전체		(1,000)	10.5	7.9	11.2	26.6	25.7	13.7	4.4	29.6	26.6	43.8	4.08
연령	청년층	(242)	9.5	7.9	12.0	28.1	24.4	14.9	3.3	29.3	28.1	42.6	4.08
	중/장년층	(698)	10.2	8.2	11.2	25.9	26.2	13.5	4.9	29.5	25.9	44.6	4.10
	노년층	(60)	18.3	5.0	8.3	28.3	25.0	11.7	3.3	31.7	28.3	40.0	3.85
지역	서울	(365)	11.0	9.3	11.5	25.8	27.1	11.8	3.6	31.8	25.8	42.5	3.98
	인천	(116)	13.8	7.8	11.2	23.3	17.2	15.5	11.2	32.8	23.3	44.0	4.14
	경기	(519)	9.4	6.9	11.0	27.9	26.6	14.6	3.5	27.4	27.9	44.7	4.13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12.5	8.9	15.1	26.2	21.8	11.8	3.7	36.5	26.2	37.3	3.86
	다인가구	(729)	9.7	7.5	9.7	26.7	27.2	14.4	4.7	27.0	26.7	46.2	4.16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10.8	7.0	11.4	25.2	27.2	14.4	4.0	29.2	25.2	45.6	4.10
	임차	(500)	10.2	8.8	11.0	28.0	24.2	13.0	4.8	30.0	28.0	42.0	4.05
주택유형	아파트	(500)	11.4	7.4	12.6	24.8	26.4	13.6	3.8	31.4	24.8	43.8	4.03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9.7	7.9	9.4	26.4	28.2	12.9	5.6	27.0	26.4	46.6	4.1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9.4	9.4	10.7	32.7	18.2	15.7	3.8	29.6	32.7	37.7	4.03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8.7	6.8	13.0	31.4	25.1	11.6	3.4	28.5	31.4	40.1	4.05
	2분위(268~402만원)	(128)	12.5	9.4	7.8	27.3	21.9	14.8	6.3	29.7	27.3	43.0	4.08
	3분위(403~588만원)	(291)	11.0	6.9	9.6	25.8	27.8	14.1	4.8	27.5	25.8	46.7	4.14
	4분위(589~1,042만원)	(313)	10.5	9.3	13.1	23.0	24.9	14.7	4.5	32.9	23.0	44.1	4.04
	5분위(1,043만원 이상)	(61)	9.8	6.6	9.8	31.1	29.5	11.5	1.6	26.2	31.1	42.6	4.05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품질’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고. [1+2순위]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중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	선교통-후입주 추진 (%)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
전체		(1,000)	60.7	54.5	50.3	34.5
연령	청년층	(242)	56.6	55.4	49.2	38.8
	중/장년층	(698)	62.8	53.9	51.1	32.2
	노년층	(60)	53.3	58.3	45.0	43.3
지역	서울	(365)	61.9	51.5	48.5	38.1
	인천	(116)	59.5	58.6	44.0	37.9
	경기	(519)	60.1	55.7	53.0	31.2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59.4	53.9	52.4	34.3
	다인가구	(729)	61.2	54.7	49.5	34.6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60.2	49.8	55.0	35.0
	임차	(500)	61.2	59.2	45.6	34.0
주택유형	아파트	(500)	59.8	53.4	52.2	34.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64.2	55.7	45.5	34.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56.0	55.3	54.7	34.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60.9	55.6	49.3	34.3
	2분위(268~402만원)	(128)	62.5	57.8	46.1	33.6
	3분위(403~588만원)	(291)	64.3	51.5	50.5	33.7
	4분위(589~1,042만원)	(313)	57.2	57.2	51.1	34.5
	5분위(1,043만원 이상)	(61)	57.4	44.3	57.4	41.0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중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	선교통-후입주 추진 (%)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
전체		(1,000)	32.3	31.4	23.3	13.0
연령	청년층	(242)	28.5	32.2	21.9	17.4
	중/장년층	(698)	33.7	30.7	23.9	11.7
	노년층	(60)	31.7	36.7	21.7	10.0
지역	서울	(365)	35.3	28.2	20.0	16.4
	인천	(116)	31.9	34.5	20.7	12.9
	경기	(519)	30.3	32.9	26.2	10.6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2.5	32.8	22.9	11.8
	다인가구	(729)	32.2	30.9	23.5	13.4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34.0	27.0	26.4	12.6
	임차	(500)	30.6	35.8	20.2	13.4
주택유형	아파트	(500)	33.2	28.0	26.2	12.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0.8	34.9	19.4	15.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2.7	34.6	22.6	10.1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35.3	33.8	21.7	9.2
	2분위(268~402만원)	(128)	29.7	38.3	19.5	12.5
	3분위(403~588만원)	(291)	35.4	27.8	24.1	12.7
	4분위(589~1,042만원)	(313)	27.8	32.6	24.3	15.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36.1	19.7	27.9	16.4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 복지’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1+2순위]

구분		사례수 (명)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 (%)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 (%)
전체		(1,000)	62.3	55.8	49.9	19.6	12.4
연령	청년층	(242)	69.4	32.2	60.7	20.7	16.9
	중/장년층	(698)	60.2	62.8	46.8	18.9	11.3
	노년층	(60)	58.3	70.0	41.7	23.3	6.7
지역	서울	(365)	63.6	53.4	55.6	17.3	10.1
	인천	(116)	62.1	52.6	50.9	23.3	11.2
	경기	(519)	61.5	58.2	45.7	20.4	14.3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64.2	48.0	58.7	16.6	12.5
	다인가구	(729)	61.6	58.7	46.6	20.7	12.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62.0	60.6	42.6	21.8	13.0
	임차	(500)	62.6	51.0	57.2	17.4	11.8
주택유형	아파트	(500)	61.6	57.8	42.2	23.6	14.8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61.0	55.4	58.4	14.7	10.6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67.3	50.3	56.0	17.6	8.8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65.7	53.6	55.1	17.4	8.2
	2분위(268~402만원)	(128)	61.7	53.9	60.2	11.7	12.5
	3분위(403~588만원)	(291)	56.4	55.0	51.5	22.3	14.8
	4분위(589~1,042만원)	(313)	65.8	58.5	43.5	20.1	12.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62.3	57.4	36.1	27.9	16.4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 (%)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 (%)
전체		(1,000)	35.6	27.5	23.8	8.0	5.1
연령	청년층	(242)	38.8	16.1	31.4	8.7	5.0
	중/장년층	(698)	34.2	30.2	21.9	8.0	5.6
	노년층	(60)	38.3	41.7	15.0	5.0	0.0
지역	서울	(365)	33.7	26.0	28.5	7.7	4.1
	인천	(116)	35.3	30.2	22.4	6.9	5.2
	경기	(519)	37.0	27.9	20.8	8.5	5.8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4.3	25.5	29.9	6.6	3.7
	다인가구	(729)	36.1	28.3	21.5	8.5	5.6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34.6	29.8	21.0	8.8	5.8
	임차	(500)	36.6	25.2	26.6	7.2	4.4
주택유형	아파트	(500)	36.4	26.0	21.4	10.0	6.2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2.3	31.7	26.4	5.6	4.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40.3	23.3	25.8	6.9	3.8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32.9	28.0	29.5	6.8	2.9
	2분위(268~402만원)	(128)	37.5	28.9	25.8	4.7	3.1
	3분위(403~588만원)	(291)	36.8	26.5	20.6	9.6	6.5
	4분위(589~1,042만원)	(313)	36.1	28.1	22.7	7.7	5.4
	5분위(1,043만원 이상)	(61)	32.8	24.6	21.3	13.1	8.2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명)	불법건설행위 (불법노조) 적발·근절 (%)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	건설경기 회복지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
전체		(1,000)	59.9	57.9	50.7	31.5
연령	청년층	(242)	58.7	58.7	47.1	35.5
	중/장년층	(698)	59.6	58.6	51.1	30.7
	노년층	(60)	68.3	46.7	60.0	25.0
지역	서울	(365)	59.2	59.7	50.4	30.7
	인천	(116)	69.8	52.6	51.7	25.9
	경기	(519)	58.2	57.8	50.7	33.3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61.6	60.1	50.9	27.3
	다인가구	(729)	59.3	57.1	50.6	33.1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59.8	53.6	54.2	32.4
	임차	(500)	60.0	62.2	47.2	30.6
주택유형	아파트	(500)	58.4	53.8	53.2	34.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60.4	62.8	47.8	29.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63.5	60.4	49.1	27.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59.9	68.1	48.3	23.7
	2분위(268~402만원)	(128)	64.8	66.4	43.8	25.0
	3분위(403~588만원)	(291)	60.8	53.3	52.2	33.7
	4분위(589~1,042만원)	(313)	56.2	52.7	55.0	36.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63.9	54.1	44.3	37.7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불법건설행위 (불법노조) 적발·근절 (%)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	건설경기 회복지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
전체		(1,000)	33.8	29.1	23.2	13.9
연령	청년층	(242)	34.3	31.4	19.4	14.9
	중/장년층	(698)	31.8	29.7	24.8	13.8
	노년층	(60)	55.0	13.3	20.0	11.7
지역	서울	(365)	35.9	34.5	18.4	11.2
	인천	(116)	41.4	22.4	20.7	15.5
	경기	(519)	30.6	26.8	27.2	15.4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33.2	33.9	21.4	11.4
	다인가구	(729)	34.0	27.3	23.9	14.8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33.6	25.2	27.0	14.2
	임차	(500)	34.0	33.0	19.4	13.6
주택유형	아파트	(500)	33.8	24.6	26.0	15.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3.7	34.3	19.9	12.0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34.0	32.1	21.4	12.6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34.3	37.2	19.8	8.7
	2분위(268~402만원)	(128)	37.5	32.0	21.1	9.4
	3분위(403~588만원)	(291)	37.1	26.1	21.0	15.8
	4분위(589~1,042만원)	(313)	26.8	26.5	29.4	17.3
	5분위(1,043만원 이상)	(61)	44.3	23.0	18.0	14.8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 공헌’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1+2순위]

구분		사례수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 서비스 시행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민에 게 일자리· 취업 알선	LH 상가·산 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산불·폭 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주택 아동· 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 여	공공임대 단지 내 주거복지 사 배치	토지주택 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명)	(%)	(%)	(%)	(%)	(%)	(%)	(%)	(%)	(%)
전체		(1,000)	38.3	33.6	26.7	25.3	24.1	16.7	15.1	15.1	5.1
연령	청년층	(242)	32.2	31.0	21.9	35.5	24.0	15.7	17.4	12.4	9.9
	중/장년층	(698)	39.7	34.2	28.1	22.6	24.6	17.3	14.3	15.2	3.9
	노년층	(60)	46.7	36.7	30.0	15.0	18.3	13.3	15.0	25.0	0.0
지역	서울	(365)	37.3	35.3	25.5	24.4	23.0	17.8	17.5	13.2	6.0
	인천	(116)	35.3	30.2	32.8	28.4	27.6	11.2	10.3	19.8	4.3
	경기	(519)	39.7	33.1	26.2	25.2	24.1	17.1	14.5	15.4	4.6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41.3	32.8	22.5	31.4	22.9	14.4	14.8	13.3	6.6
	다인가구	(729)	37.2	33.9	28.3	23.0	24.6	17.6	15.2	15.8	4.5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40.4	31.8	29.0	21.2	24.6	15.2	17.2	16.0	4.6
	임차	(500)	36.2	35.4	24.4	29.4	23.6	18.2	13.0	14.2	5.6
주택유형	아파트	(500)	36.4	32.4	27.8	20.0	28.6	19.0	15.0	15.2	5.6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39.6	36.1	25.5	29.6	18.5	14.1	15.8	16.7	4.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41.5	32.1	25.8	32.7	22.0	15.1	13.8	11.3	5.7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43.0	37.7	28.0	25.6	21.3	16.9	11.6	11.6	4.3
	2분위(268~402만원)	(128)	33.6	33.6	28.1	32.8	25.8	10.2	12.5	18.0	5.5
	3분위(403~588만원)	(291)	37.8	37.1	25.4	25.4	21.6	16.2	16.2	16.2	4.1
	4분위(589~1,042만원)	(313)	39.6	27.5	25.9	23.6	26.5	19.5	15.3	15.7	6.4
	5분위(1,043만원 이상)	(61)	27.9	34.4	29.5	16.4	29.5	18.0	26.2	13.1	4.9

[1순위]

구분		사례수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 서비스 시행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산불·폭 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상가·산 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공공임대 입주민 에게 일자리· 취업 알선	임대주택 아동· 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 여	공공임대 단지 내 주거복지 사 배치	토지주택 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명)	(%)	(%)	(%)	(%)	(%)	(%)	(%)	(%)	(%)
전체		(1,000)	20.2	16.0	13.6	13.4	13.1	7.6	7.4	6.1	2.6
연령	청년층	(242)	13.2	13.6	13.2	22.3	13.2	7.4	7.4	4.1	5.4
	중/장년층	(698)	22.2	16.3	14.0	11.2	13.0	7.7	7.6	6.0	1.9
	노년층	(60)	25.0	21.7	10.0	3.3	13.3	6.7	5.0	15.0	0.0
지역	서울	(365)	20.3	18.6	11.2	12.9	10.4	7.9	8.2	6.8	3.6
	인천	(116)	16.4	14.7	20.7	12.9	16.4	6.0	6.0	5.2	1.7
	경기	(519)	21.0	14.5	13.7	13.9	14.3	7.7	7.1	5.8	2.1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20.7	14.0	11.8	17.7	11.1	8.1	7.0	6.3	3.3
	다인가구	(729)	20.0	16.7	14.3	11.8	13.9	7.4	7.5	6.0	2.3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21.2	17.2	15.2	9.0	13.0	6.4	8.8	6.8	2.4
	임차	(500)	19.2	14.8	12.0	17.8	13.2	8.8	6.0	5.4	2.8
주택유형	아파트	(500)	19.2	17.4	16.8	8.6	13.0	8.2	7.8	6.0	3.0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20.2	15.0	10.0	19.9	12.9	6.2	7.3	6.5	2.1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23.3	13.8	11.3	14.5	13.8	8.8	6.3	5.7	2.5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20.3	17.4	12.1	11.1	17.4	8.2	5.3	5.8	2.4
	2분위(268~402만원)	(128)	18.8	9.4	15.6	22.7	14.1	3.9	5.5	7.8	2.3
	3분위(403~588만원)	(291)	20.3	18.2	12.7	13.7	11.0	8.6	8.2	5.5	1.7
	4분위(589~1,042만원)	(313)	22.4	14.7	14.7	12.1	12.1	6.7	7.3	6.1	3.8
	5분위(1,043만원 이상)	(61)	11.5	21.3	13.1	6.6	11.5	13.1	14.8	6.6	1.6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기업 경영'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1+2순위]**

구분		사례수 (명)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	K-신도시, K-산업단지 해외수출 (%)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
전체		(1,000)	90.9	54.8	54.3
연령	청년층	(242)	86.4	55.4	58.3
	중/장년층	(698)	92.3	53.9	53.9
	노년층	(60)	93.3	63.3	43.3
지역	서울	(365)	89.6	58.6	51.8
	인천	(116)	89.7	57.8	52.6
	경기	(519)	92.1	51.4	56.5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91.1	53.1	55.7
	다인가구	(729)	90.8	55.4	53.8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88.6	58.8	52.6
	임차	(500)	93.2	50.8	56.0
주택유형	아파트	(500)	89.4	58.8	51.8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91.8	51.0	57.2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93.7	50.3	56.0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90.8	50.7	58.5
	2분위(268~402만원)	(128)	94.5	43.8	61.7
	3분위(403~588만원)	(291)	91.1	54.6	54.3
	4분위(589~1,042만원)	(313)	89.8	59.1	51.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88.5	70.5	41.0

[1순위]

구분		사례수 (명)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	K-신도시, K-산업단지 해외수출 (%)
전체		(1,000)	73.3	13.8	12.9
연령	청년층	(242)	61.2	19.8	19.0
	중/장년층	(698)	76.8	12.2	11.0
	노년층	(60)	81.7	8.3	10.0
지역	서울	(365)	72.9	12.1	15.1
	인천	(116)	72.4	14.7	12.9
	경기	(519)	73.8	14.8	11.4
가구원 수	1인가구	(271)	70.8	14.0	15.1
	다인가구	(729)	74.2	13.7	12.1
주거 점유형태	자가	(500)	74.0	12.4	13.6
	임차	(500)	72.6	15.2	12.2
주택유형	아파트	(500)	73.2	14.6	12.2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341)	73.0	13.2	13.8
	기타(다가구, 오피스텔 등)	(159)	74.2	12.6	13.2
월 가구 소득	1분위(267만원 이하)	(207)	72.0	13.0	15.0
	2분위(268~402만원)	(128)	74.2	16.4	9.4
	3분위(403~588만원)	(291)	73.9	14.8	11.3
	4분위(589~1,042만원)	(313)	74.8	12.1	13.1
	5분위(1,043만원 이상)	(61)	65.6	14.8	19.7

2022-321-072

부동산시장 관련 이슈별 국민 인식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설문문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응답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답례품 발송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화번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조사 종료 후 6개월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설문 참여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사중단

2023년 11월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소 장 오 창 업

담당 연구원 전 민 형 / 최 예 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Program 전체에게 복수응답

SQ1) 귀하나 귀하의 가족 중 다음의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 1. 광고/시장조사회사/컨설팅회사
- 2. 언론기관(TV, 신문, 잡지 등)
- 3. 건설회사
- 4. 부동산 중개업
- 5. 해당 없음

→ Program 1~4 응답자는 조사 중단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성
- 2. 여성

Program 전체에게 OPEN

SQ3)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년도 4자리를 기입해주시요.

◎ 출생년도 : 년

→ Program 만나이 기준 1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응답자는 조사 중단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SQ4)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Program SQ4=1, 4, 9 이외 응답자는 조사 중단

SQ4-1) _____ 시/군/구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SQ5) 귀하께서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이십니까?

▶가구주 : 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가구주

- 1. 가구주
- 2. 가구주의 배우자
- 3. 가구원

→ Program SQ5=3 응답자는 조사 중단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할당체크

SQ6)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자가
- 2. 전세
- 3. 월세/반전세/연세
- 4. 사택, 기숙사 등 회사 제공 주택
- 5. 관사, 부모님댁 거주 등 무상 주택
- 97. 기타

→ Program SQ6=4~97 응답자는 조사 중단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할당체크

SQ7)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아파트
- 2. 일반단독주택
- 3.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 4. 다가구주택
- 5. 오피스텔/주상복합
- 97. 기타

→ Program SQ7=97 응답자는 조사 중단

▶일반 단독주택 : 마당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가 없는 단독주택

Program SQ7=1 단수응답

SQ7-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GH) 등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아파트

- 1. 그렇다
- 2. 아니다

A | 주택 가격 및 전월세 전망 |

Program 전체에게 OPEN SQ3 출생년도 ≤ A1 년 응답 < 2023, 1 ≤ A1 월 응답 ≤ 12

A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는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년 □□월부터 거주 중

Program 전체에게 단순응답

A2) 귀하께서는 내 집 마련(자가주택 보유)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다고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Program SQ6=1 단순응답

A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또는 지역의 1년 뒤 주택가격은 얼마나 하락 혹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매우 하락할 것이다
2. 약간 하락할 것이다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상승할 것이다
5. 매우 상승할 것이다

Program SQ6=2, 3 단순응답

A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또는 지역의 1년 뒤 전세가격(월세 포함)은 얼마나 하락 혹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매우 하락할 것이다
2. 약간 하락할 것이다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상승할 것이다
5. 매우 상승할 것이다

Program 1+2 1, 2 | Rotation

[SQ6=1] A5)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SQ6=2,3] A6)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대출금리 변화
2. 주택공급량 변화
3. 정부의 조세정책(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4.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
5. 소비자물가 수준
6. 우리나라 경기전망
97. 기타()

B | 주거불평등 인식·전망 |

Program

1+2	1
-----	---

 | Rotation

B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금리 인상으로(높은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 특정 지역(ex. 강남 3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5. 부동산 관련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97. 기타()

Program

단수응답

B2) 그럼,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은 얼마나 심각하다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심각하다
2. 약간 심각하다
3. 보통이다
4. 심각하지 않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	------

B3) 귀하께서는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은 얼마나 악화되었다 혹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악화되었다
2. 약간 악화되었다
3. 1년 전과 비슷하다
4. 약간 개선되었다
5. 매우 개선되었다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	------

B4) 귀하께서는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 주거불평등 수준**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라고 혹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매우 악화될 것이다
2. 약간 악화될 것이다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개선될 것이다
5. 매우 개선될 것이다

Program

1+2	1
-----	---

 | Rotation

B5) **주거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
2.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제한
3. 주택 품질개선으로 거주만족도 향상
4. 주거지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5. 부자 동네·가난한 동네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계층 간 혼합 거주 지역 확대
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7.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이미지 개선
8.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대출상품 확대(저금리, 장기대출 등)
9. 일정 품질을 확보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
97. 기타()

C | 주거불평등 심리 |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C1) 귀댁의 주거 여건(주택 및 주거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가족의 주거 생활은 다른 가족과 비교하여, 얼마나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른 가족에 비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2. 다른 가족에 비해 약간 나쁘다고 생각한다
3. 다른 가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4. 다른 가족에 비해 약간 좋다고 생각한다
5. 다른 가족에 비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Program C1=1, 2 1+2 1 | Rotation SQ6=2,3 C2-1=5

C2-1)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인기가 없는 주택(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내가 희망하는 주거지역(학군 좋은 곳, 교통환경 좋은 곳 등)에 거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전세·월세 등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97. 기타()

Program C1=1, 2 복수응답 Rotation

C2-2)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서 느끼시는 감정/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
2. 남들에게 내 집(혹은 동네)을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내가 사는 집과 동네가 창피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3. 나보다 좋은 주택과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4. 내가 이런 주택과 지역에 거주하여 내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5. 주거불평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6. 주거불평등으로 인해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97. 기타()

99. 해당사항 없음

Program C1=4, 5 1+2 1 | Rotation SQ6=1 C3-1=5

C3-1)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좋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아닌)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내가 희망하는 주거지역(학군 좋은 곳, 교통환경 좋은 곳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내 집(자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주택이나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97. 기타()

Program	C1=4, 5	복수응답	Rotation
---------	---------	------	----------

C3-2)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에 비해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느끼시는 감정/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2. 남들에게 내 집(혹은 동네)을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있다
3. 나는 나보다 나쁜 주택(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직위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4. 나는 나보다 나쁜 주택(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5. 내가 이런 주택과 지역에 거주하여 내 자식에게 떳떳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6.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거지역의 이웃들을 존중한다
97. 기타()

99. 해당사항 없음

Program	C1=1~3	단수응답
---------	--------	------

C4)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남들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좋은 주거 여건(주택 및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2.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기대한다
5. 매우 기대한다

Program	C4=4~5	1+2	1	Rotation
---------	--------	-----	---	----------

C4-1) 향후 10년 이내에 남들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좋은 주거 여건(주택 및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우리 가족의 소득 변화
2. 주택가격 변화
3. 주택공급량 변화
4. 부동산정책 변화
97. 기타()

D | 부동산시장 관련 언론기사 평가 |

■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를 다룬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심각성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면 1점, '보통'은 4점, '매우 심각하다'는 7점 등 1~7점 사이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전체에게 | 단수응답 | Rotation | Step by step

D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택품질, 주거환경'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다 혹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보통		매우 심각하다 →	
1.	아파트 하자 심각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택하자 유형 중 '균열과 '기능불량'이 가장 많음. 매년 분쟁조정 신청 건이 증가하는 추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반지하 증가 (작년 최악 폭우에도...서울 반지하 300곳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철근 누락 아파트(순살 아파트)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주거불안 조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rogram 전체에게 | 단수응답 | Rotation | Step by step

D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부동산 시장'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다 혹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보통		매우 심각하다 →	
1.	미분양 아파트 증가 (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부실위험 사업장 74% 증가, 손놓은 건설사, 중소건설사 출도산 우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전월세 사기(빌라왕)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구제 못 받아, 때인 전세보증금 132억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역전세난 (전셋값 10% 더 하락 땀 아파트 40%가 보증금 못 돌려줄 위험, 역전세난에 집주인 전세금 반환보증 확대, 전세 사기 막으려다 27만가구 역전세 노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임대차 분쟁 증가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집주인-세입자 극한 대립, 임대차분쟁 건수 11%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주택거래 사상 최저 (고금리 시대 풍경...아파트 거래 비중 사상 최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 안쳐다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3기 신도시 청약 지연 (3기 신도시 공급 빠져, 3기 신도시 2년 지연...사전청약자 속탄다, 금리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급 차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분양가 상승 (미분양 쌓이는데...분양가 왜 치솟나, 소형 아파트 분양가 22% 상승, 아파트 분양가 10년새 11.87배 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최저 (서울에 들어갈 집 없어진다...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 내년 신축 아파트 품귀현상으로 전월세 물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영끌 빚투로 가계 빚 증가 (아파트 영끌 열풍이 다시 불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초과,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우려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전세값 상승 (역전세 걱정했더니...매물 부족에 다시 뛰는 전셋값)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rogram 전체에게 | 단수응답 | Rotation | Step by step

D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의 '건설사'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다 혹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보통		매우 심각하다 →	
1.	민간건설사 부도 위기 (하루 13곳씩 문닫는 건설사, 지방 아파트현장 공사 중단 속출, 미분양 수렁에...폐업 57%가 '지방 건설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계속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건설자재가격 폭등(공사비 쇼크) (레미콘 철근값 50% 이상 올라, 30년 만의 시멘트 파동...건설현장 멈췄다,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사업 발빠는 건설업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건설 카르텔(전관예우) (공공 입찰담합 감시 확대, 취업심사 거친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56명이 유관기관 협회로 취업, 계열사끼리는 공공택지 전매 불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 | LH 관련 언론기사 평가 |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Rotation

E1)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각 사업 분야가 국민 주거 안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품질/주거 복지/부동산 시장 안정화/사회 공헌/LH 기업 경영, 5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제시하는 LH 추진 활동 관련 주요 언론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div> <div>← 전혀 중요하지 않다</div> <div>보통</div> <div>매우 중요하다 →</div> </div>						
1.	주택 품질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면적 넓히고 마감재 업그레이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층간소음 없는 공공주택 공급)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특허 신기술을 발굴하여 현장 적용) 선교통·후입주 추진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 </div>						
2.	주거 복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신혼희망타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입주민 육아돌봄 부담 덜기 위해 아이돌봄 시설 확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주택 공급)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낡은 임대주택의 외관, 공용공간, 커뮤니티공간 정비 추진) </div>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건설경기 부양 및 주거난 해소에 기여) 불법건설행위(불법노조) 적발·근절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조사 및 경찰수사 의뢰, 손해배상 청구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건설경기 회복지원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공부문 공사 조기 발주) </div>						
4.	사회 공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산불 폭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산불 수해 이재민들에게 임시대피 숙소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 (임대주택 입주민 2000명에게 일자리 제공, 취업희망 8천명에게 취업알선 및 교육 지원)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공공임대주택단지 상가 시세의 50% 저렴하게 공급, 물가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상태 점검) </div>						
5.	LH 기업 경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사회적 약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 부여,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 채용)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증 취득,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혁신을 위해 조직 전면 개편) K-신도시, K-산업단지 해외수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추진, 스마트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div>						

E2)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각 사업이 국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그다지 도움 되지 않았다 ←			보통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1. 주택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면적 넓히고 마감재 업그레이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층간소음 없는 공공주택 공급)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특허 신기술을 발굴하여 현장 적용) 선교통·후입주 추진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거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신혼희망타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입주민 육아돌봄 부담 덜기 위해 아이돌봄 시설 확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주택 공급)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낡은 임대주택의 외관, 공용공간, 커뮤니티공간 정비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동산 시장 안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건설경기 부양 및 주거난 해소에 기여) 불법건설행위(불법노조) 적발·근절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조사 및 경찰수사 의뢰, 손해배상 청구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건설경기 회복지원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공부문 공사 조기 발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회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산불 폭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산불 수해 이재민들에게 임시대피 숙소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 (임대주택 입주민 2000명에게 일자리 제공, 취업희망 8천명에게 취업알선 및 교육 지원)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공공임대주택단지 상가 시세의 50% 저렴하게 공급, 물가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상태 점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LH 기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사회적 약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 부여,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 채용)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증 취득,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혁신을 위해 조직 전면 개편) K-신도시, K-산업단지 해외수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추진, 스마트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3)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품질'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	--	-----------	--

1.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2.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착수
3. 건설 신기술 개발·보급
4. 선교통·후입주 추진

E4)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 복지'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	--	-----------	--

1.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2. 아이돌봄 클러스터 구축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4.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공급
5.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Program	1+2	1, 2	Rotation
---------	-----	------	----------

E5)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미분양주택 공공매입
2. 불법건설행위(불법노조) 적발·근절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4. 건설경기 회복지원

Program	1+2	1, 2	Rotation
---------	-----	------	----------

E6)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 공헌'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토지주택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2.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참여
3. 산불·폭우피해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4. 공공임대 입주민에게 일자리·취업 알선
5. 공공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6. 임대주택 아동·청소년 멘토링, 도시락 제공
7.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8. LH 상가산업단지 임대료 25% 인하
9. 임대주택 1인 고령가구 생활돌봄서비스 시행

Program	1+2	1, 2	Rotation
---------	-----	------	----------

E7) 귀하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기업 경영' 분야 관련하여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가장(1순위)

그 다음(2순위)

1. 신입사원 채용시 자립준비생 가산점 부여
2.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부패방지 강화
3. K-신도시, K-산업단지 해외수출

DQ | 자료 분류형 질문 |

Program 전체에게 OPEN 1 이상 응답 가능

DQ1) 귀 닥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명

Program DQ1=2 이상 복수응답

DQ2) 다음 중 귀하께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만 7세 이하(미취학 아동) 자녀
2. 만 8-13세(초등학생) 자녀
3. 만 14-19세(중·고등학생) 자녀
4. 만 20세 이상 자녀
5. 만 65세 이상 구성원

99.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음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SQ5=1] DQ3-1)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SQ5=2] DQ3-2) 귀댁 **가구주**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직원 9인 이하 업소 주인 또는 가족 종사자, 약국 운영,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전자기·가전제품 A/S 기술자, 중장비·트럭 기사,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유치원·초·중·고 교사, 회사 소속 디자이너·프로그래머·개발자, 기술직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 고위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 직위 등)
8. 전문직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1. 무직
12. 은퇴
97. 기타()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SQ5=1] DQ4-1) 귀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SQ5=2] DQ4-2) 귀댁 **가구주**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상용근로자
2. 임시·일용근로자
3. 자영업자
97. 기타(무직, 가사, 학생 등)

Program	전체에게	단수응답
---------	------	------

DQ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재학은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 졸업
5. 대학원 졸업

99. 학교를 다닌 적 없음

Program	전체에게	OPEN	1개만 입력해도 다음 문항으로 Skip 가능, 모두 0 응답 불가	안내 문구 제시 '귀 가구의 2022년 기준 총 연소득(세전 기준)은 00억 0000만원이 맞습니까?'
---------	------	------	--------------------------------------	---

DQ6) 실례지만, 귀 **댁(가구주 및 가구원 포함)의 2022년 기준 가구의 총 연소득(세전 기준)**은 얼마입니까?
근로 및 사업 소득, 금융 및 재산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 2022년 기준 세전 1년 가구 총 소득 억 만원

Program	SQ6=1	OPEN	1개만 입력해도 다음 문항으로 Skip 가능, 모두 0 응답 불가
---------	-------	------	--------------------------------------

DQ7) 귀하께서 **자가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은 **현재 시세**로 얼마입니까?
현재 시세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https://isale.land.naver.com/iSale/Map/#?SYMap=37.5604716,126.9857673,15&a=IA01>)

자가로 소유한 주택의 현재 시세는 억 만원 이다

Program	SQ6=2, 3	OPEN	1개만 입력해도 다음 문항으로 Skip 가능, 모두 0 응답 불가 SQ6=2은 보증금만 제시, SQ6=3은 보증금, 월세 모두 제시
---------	----------	------	--

DQ8)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임차 비용**은 얼마입니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억 만원, 월세 만원

Program	전체에게	OPEN	1개만 입력해도 다음 문항으로 Skip 가능, 모두 0 응답 불가	안내 문구 제시 '귀 가구의 총 부채는 전체 ##억 ##만원이 맞습니까?'
---------	------	------	--------------------------------------	---

DQ9) 실례지만,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여 귀 **댁의 부채(빚)**은 얼마입니까?
전체 가구원 기준으로, 부채(빚)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현재 우리 가구의 전체 부채(빚)은 억 만원 이다

9998. 모름

Program	전체에게	OPEN	1개만 입력해도 다음 문항으로 Skip 가능, 모두 0 응답 불가
---------	------	------	--------------------------------------

DQ10) 귀 **댁의 전체 부채(빚)** 중 **주택 비용**(주택 구입비, 전세, 월세 등) 관련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 중 대략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주택 비용 관련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이 해당합니다.)

전체 부채(빚) 100% 중 주택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 이다

→ [DQ10] 총 부채 금액 x [DQ11] 만원 자동 계산하여 숫자(한글) 제시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HRIreport

LAND USES IN GHANA RESEARCH UNIT INSTITUTE